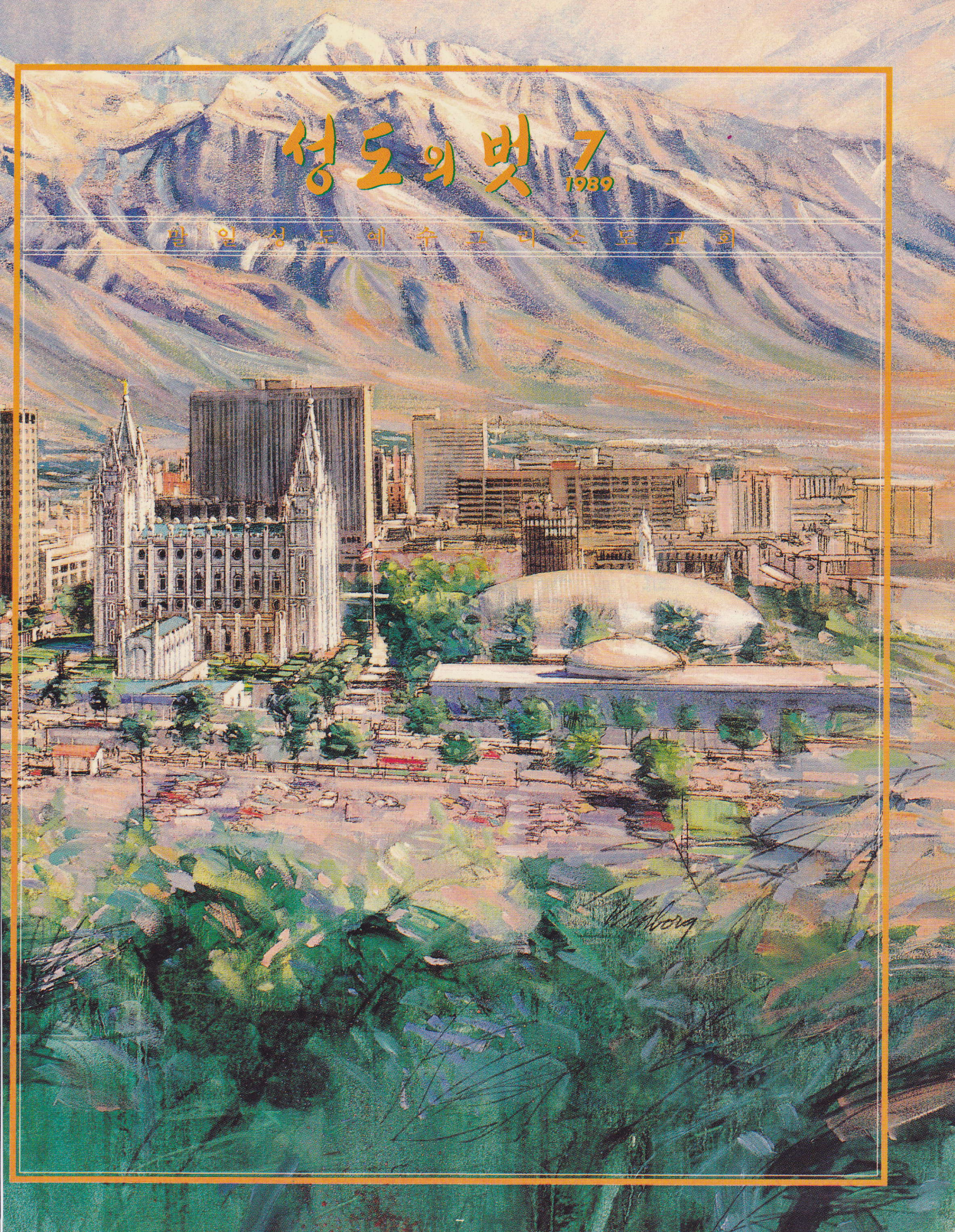


성도의 빛 7

1989

팔 일 성 도 에 슈 그 리 스 톤 교 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9차 연차 대회 보고

1989년 4월 1~2일,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템플 스퀘어의 태버네클에서 행해진 말씀과 절차

“**교**만은 널리 행하여 지고 있는 죄이며, 큰 악입니다.”라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159차 연차 대회의 개회 모임에서 말씀하셨다.

벤슨 대관장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교만의 중심적인 양상은 적대감,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적대감이란 증오의 감정, 적개심 또는 반목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능력으로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경쟁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리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 들게 됩니다.”

“교만의 치료제는 겸손, 즉 온유함과 순종입니다. 그것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입니다.”

벤슨 대관장이 이를 동안 열린 대회를 감리하셨다. 대회 모임은 대관장단의 제1보좌인 고든 비 형클리 부대관장과 대관장단의 제2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이 사회했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몬슨 부대관장은 역사적인 행정 조치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계속되는 교회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는 교회의 확장과 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시간부터 시행되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조직을 발표합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최초의 회원은 현재 5년 임기로 봉사하고 있는 총관리 역원들이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 추가로 형제들이 칠십인 제이 정원에 보충될 것이며, 그들 또한 5년 임기로 칠십인과 총관리 역원으로서 봉사할 것입니다.”

“칠십인 제일 정원은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회원들이나 여러 신권 지도자들 중에서 부름을 받은 회원들에 의해 현재와 같은 인원으로 계속될 것입니다.”(21페이지 참조)

이 조치로 칠십인 제일 정원에서 38명의 회원이 존속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현재의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및 이전에 5년 임기 동안 봉사하도록 부름받은 두 명의 총관리 역원인 존 케이 카머 장로와 한스 비 링거 장로가 포함되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네 명의 새로운 형제가 추가되었다. 조 제이 크리스티슨 장로, 아이다호주 렉스버그 소재 릭스 대학 학장; 더블류 유진 헨슨 장로, 솔트레이크시티;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유타주 프로보 소재 브리감 영 대학교 총장; 말린 케이 젠슨 장로, 유타주 헌츠빌.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구성을 위해

칠십인 제일 정원회 회원 중에서 38명의 형제가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지명받았으며 이들은 모두 5년 임기 동안 봉사하게 되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여덟 명의 새로운 형제가 칠십인 제이 정원회 회원으로 부름받았다.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장로, 파테말라 파테말라 시티; 벤자민 비 뱅크스 장로, 스코틀랜드 애딘버러 선교부장; 스펜서 제이 콘디 장로, 유타주 프로보; 에프 델빈 하몬드 장로, 아이다호주 렉스버그; 맬콤 에스 쟁슨 장로, 솔트레이크시티; 리처드 피 린지 장로, 솔트레이크시티; 멀린 알 리버트 장로, 솔트레이크시티;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 장로, 멕시코 구아달라하라.

칠십인 제일 정원회 및 칠십인 제이 정원회는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이 감리하게 되며, 칠십인 정원회는 현재 모두 78명의 칠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관리 역원은 모두 101명이다.

대회 진행 과정은 12개의 언어로 북미 및 하와이에서 텔레비전 위성 중계로 방영되었다. 대회의 시험 전송이 영국 맨체스터, 서독 프랑크푸르트 및 코스타리카 산호세 지역으로 보내어졌다.

대회의 비디오 테이프가 만들어져 세계 각 곳의 회원들에게 배부될 것이다.

연차 대회에 앞서 3월 31일 금요일 지역 대표 세미나 및 기타 지도자 모임이 있었다. -편집인

성도의 빛

1989년 7월호

교회 잡지인 성도의 빛은 연사인, 뉴 이라 및 프렌드의 기사를 다룬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대관장단: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십이사도 평의회: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휴 더블류 피녹크, 진 알 쿡,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지 피리, 키드 더블류 윌콕스

통 권: 제277권, 제32권, 제7호
등록: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1989년 7월 1일(월간지)

발행인: 한 인 상

편집인: 정 기 만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인쇄인: 영인쇄주식회사 이 세 용

International Magazine PBMA8907KO

PRINTED IN KOREA 7/89

© 1989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The Songdo-ui Pot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Application to mail at second class postage rates is pending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S.A.

성도의 빛 1년 구독료는 4,000원입니다. 권당 400원이며, 성도의 빛 해의 구독일 경우에는 우송료를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표시하여 한국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색인

아래의 주제는 다음 연사의 말씀에 나와 있다.

가족...워스린, 클라크, 넬슨, 벨라드,

벤슨 대관장(일요일 오후)

가족 역사...클라크

가치관...벨라드

간증...워스린 페리 포울맨

거짓 예언자...옥스

겸손...벤슨(토요일 오전)

교만...벤슨 대관장(토요일 오전)

구원의 계획...페리, 포울맨, 데릭, 벤슨

대관장(일요일 오후)

기적...헌터

독일 민주 공화국...몬슨(일요일 오전)

물론경...페리, 벤슨 대관장(일요일 오후)

봉사...테일러, 조이 에반스

부활...데릭

분쟁...옥스, 넬슨

비판...페이스

사랑...워스린, 조이 에반스

힝클리(일요일 오전), 넬슨

상호부조화...조이 에반스

선교 사업...페리, 테일러, 몬슨(일요일 오전)

성신...파우스트

성전 사업...클라크, 부쉬

성찬...그로버그

속죄...맥스웰

순종...피녹크, 페이스, 옥스,

힝클리(신권) 벤슨 대관장(일요일 오전)

순종(유순)...넬슨

승영...데릭

신권...힝클리(신권)

신앙...워스린, 헌터, 스코트, 몬슨(신권 모임) 몬슨(일요일 오전), 패커

어린이...벤슨 대관장(일요일 오후)

역경...포울맨, 맥스웰, 조지 에반스

영상...스코트, 테일러

예산 밖의 결과...맥스웰

예수 그리스도...맥스웰, 데릭

완전...애쉬튼

용기...피녹크

인격...스코트

인내...몬슨(신권, 패커)

일...워스린

자람...피녹크

자유 의지...옥스

자존심...몬슨(신권)

정적...부쉬

지상 생활...테일러, 패커

지식...옥스

지혜의 말씀...테일러

책임...피녹크

청소년...패커

텔레비전...벨라드

평화...넬슨

폭력...벨라드

함당성...애쉬튼, 그로버그

회개...피녹크, 패커, 부쉬

기도하신 총관리 역원: 토요일 오전 모임, 칼로스 이 애쉬 장로와 알렉산더 비 모리슨 장로; 토요일 오후 모임, 폴 에이치 던 장로와 엘 엘던 포터 장로; 신권 모임, 요시히코 기쿠찌 장로와 린 에이 소렌슨 장로; 일요일 오전 모임,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와 한스 비 링거 장로; 일요일 오후 모임, 더글러스 제이 마틴 장로와 왈도 피 콜 장로.

사진: 대회의 모든 사진은 교회 본부 시청각 계획 및 개발부의 사진과에서 촬영함: 제프 에이 클라크(책임자), 윌슨 앤더슨, 필 서틀레프, 크레이크 다이아몬드, 존 룩, 크레이그 모이어 및 엘덴 린쇼튼.

목차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제159차 연차 대회 보고서

토요일 오전 모임

- 4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8 소생의 씨앗
조셉 비 워스런 장로
- 12 이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
- 15 온 세상에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엘 톰 페리 장로
- 18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토요일 오후 모임

- 21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22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윌포드 지 에드링
- 23 1988년도 통계 보고서
에프 마이클 왓슨
- 24 합당하게 댐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 27 역경과 인생의 거룩한 목적
로날드 이 포울먼
- 30 예언자를 따름
글렌 엘 페이스 감독
- 33 여러 음성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 38 성신의 온사-확실한 나침반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신권 모임

- 42 벤슨 대관장님에게 스카우트
상을 수여함
- 43 주님을 믿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47 성찬의 아름다움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 50 의로움의 점수 올리기
러셀 시 테일러 장로
- 53 목표 향해 나아갑시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58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함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일요일 오전 모임

- 64 하나님께 감사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 68 청년 청년에게
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 72 대가족
제이 리차드 클라크 장로
- 75 예상밖의 결과에 대처함
닐 에이 맥스웰 장로
- 79 사랑이 여러분 생의 복극성이 되게
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일요일 오후 모임

- 83 분쟁의 해독
러셀 엠 넬슨 장로
- 87 영생을 위한 대학교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 89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았나이까?”
조이 에프 이반스 자매
- 94 완전에 이르는 길
로이든 지 데릭 장로
- 97 텔레비전의 영향력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101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 104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 106 교회 및 지역 소식

대회 연사가 아래에 열거되어 있다.

마빈 제이 에쉬튼
엠 러셀 벨라드
에즈라 태프트 벤슨
에프 엔지오 부쉬
제이 리차드 클라크
로이든 지 데릭
조이 에프 이반스
제임즈 이 파우스트
존 에이치 그로버그
고든 비 힝클리
하워드 더블류 헌터
닐 에이 맥스웰
토마스 에스 몬슨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글렌 엘 페이스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휴 더블류 피녹크
로날드 이 포울먼
리차드 지 스코트
러셀 시 테일러
조셉 비 워스런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교만은 널리 행하여 지고 있는 죄이며, 큰 악입니다. ... 교만은 시온에 큰 장애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다시 맞는 영광스런 교회의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 기쁩니다. 전세계에서 헌신적인 교회 회원들의 사랑과 기도와 봉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경으로 온 세상을 덮고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고자 노력하시는 충실한 모든 성도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더 많은 물론경을 보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활과 온 지상에 그 놀라운 메시지를 더욱더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책은 오늘날 우리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 경전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니파이일서 19 : 23 참조)

교리와 성약은 물론경이 “타락한 백성들의 기록”임을 말해 줍니다. (교성

20 : 9 참조) 왜 그들은 타락했습니까? 그것이 물론경의 주요 메시지의 하나입니다. 물론경은 끝부분의 장에서 이와 같이 답해 줍니다. “이 나라 곧 니파이 백성들의 교만함을 보라. ...이 교만으로 인하여 멸망하리로다.” (모로나이서 8 : 27) 우리가 그 타락한 백성들로부터 나온 중요한 물론경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하시려, 주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교만을 조심하여 옛 니파이인과 같이 되지 말라.” (교성 38 : 39)

나는 간절히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의 도움을 구하며, 이 물론경 메시지인 교만이라는 죄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는 얼마 동안 나에게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이 메시지가 이제 전달되기를 원하심을 압니다.

전세의 회의에서, 아침의 아들인 루시퍼가 떨어져 나간 것은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니파이일서 24 : 12~15; 교성 76 : 25~27; 모세서 4 : 3 참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에 불로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실 때, 교만한 자는 초개와 같이 될 것이며, 운유한 자는 땅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니파이삼서 25 : 1; 교성 29 : 9; 요셉 스미스서 2 : 37; 말라기 4 : 1; 니파이삼서 12 : 5 참조)

교리와 성약에서 주님은 “교만을 조심하라”는 말씀을 세 번 하셨는데, 교회의 두번째 장로인 올리버 카우드리와 예언자의 아내인 엠마 스미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포함됩니다. (교성 23 : 11, 25 : 14, 38 : 39 참조)

교만은 사람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죄이며, 많은 사람들이 무지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모사이아서 3 : 11; 니파이삼서 6 : 18 참조) 경전에는 의로운 교만과 같은 말은 없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죄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여 경전에 나오는 단어를 알고 거기서 ‘유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엘마서 5 : 61; 니파이일서 4 : 15; 모사이아서 1 : 3~7 참조)

우리는 대체로 교만을 자기 중심, 자만, 자랑, 거만함 또는 오만함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은 모두 죄의 요소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교만의 중심적인 양상은 적대감,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적대감이란 증오의 감정, 적개심 또는 반목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능력으로 사탄은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경쟁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리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 들게 됩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 (빌립보서 2 : 21)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에 더 치중하면 소망, 욕망과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됩니다. (엘마서 38 : 12; 니파이삼서 12 : 30 참조)

교만한 자는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권능 (힐라맨서 12 : 6 참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보다는 그들의 진리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의 신권 권능보다는 그들의 능력을, 주님의 놀라운 신업적보다는 그들의 성취를 더 내세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적대감은 반항, 강박한 마음, 완고함, 회개치 않음, 자랑,



대회 장면

쉽게 성 내고 표적을 구하는 등의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뜻에 동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들의 의견을 바꾸는 데는 흥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널리 퍼져 있는 교만이라도 죄의 다른 중요한 면은 우리 이웃에 대한 적대감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생각하고 그들을 낮추어 보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힐라맨서 6:17; 교성 58:41 참조)

교만한 자는 다른 사람보다는 자신의 지성과 의견, 행실, 부, 재능 또는 기타 세속적인 평가 기준을 내세움으로써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듭니다. 시 에스 루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만한 무언가를 갖고 있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데서 즐거움을 얻는다. 비교하는 것, 즉 다른 사람의 위에 있다는 즐거움은 인간을 교만하게 한다. 비교의 요소가 사라지면, 교만도 사라진다.” (순수한 기독교 정신, 109~110페이지)

전세의 천국 회의에서 무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옹호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쟁하여 자신의 제안을 내 놓았습니다. (모세서 4:1~3 참조) 그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존경받기를 원했습니다. (니파이서서 24:13 참조) 간단히 말해서 그의 교만한 욕망은 하나님을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교성 29:36, 76:28 참조)

경전에는 개인이나 단체, 도시나 나라에 대한 교만이란 죄의 심각한 결과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잠언 16:18) 교만은 니파이 민족과 소돔시를 멸망시켰습니다. (모로나이서 8:27;

에스겔 16:49~50 참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화를 냈으며, 그것은 그들의 신분을 위협하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요한복음 11:53 참조)

사울은 교만으로 인해 다윗을 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했기 때문에 질투가 났습니다. (삼상 18:6~8 참조)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인간의 심판을 더 두려워합니다. (교성 3:6~7, 30:1~2, 60:2 참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하는 것보다 더 비중이 크게 됩니다.

노아왕은 선지자 아빈아다이를 풀어 주려 했으나, 그의 사악한 제사들이 그의 교만에 호소하여 아빈아다이를 불길속에 처넣게 했습니다. (모로나아서 17:11~12 참조) 헤롯은 침례 요한의 목을 베라는 그의 아내의 요청을 받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 곁에 “앓은 자들”에게 좋게 보이려는 교만한 욕망이 요한을 죽이게 했습니다.

인간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교만한 자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2:42~43)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동기를 보면 죄가 어디에 있는지 곧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그러한 일을 향상” 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29) 우리의 동기가 우리 자신을 우리 형제나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올리려 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데 있는 것이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어떤 교만한 사람들은 자신의 월급으로 그들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보다는 월급이 다른 사람 것보다 많은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들이 얻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으로 인한 적대감입니다.

교만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 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속박당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신의 속삭임보다 더 강하게 유혹합니다. 논리를 따지는 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교만한 자는 쇠막대를 지나칩니다. (니파이삼서 8:19~28, 11:25, 15:23~24 참조)

교만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은 거의 인정하려 들지 않는 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교만이란 저보다 못한 사람들을 내려다 보는 부자나 학식있는 자와 같은 높은 사람들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니파이서 9:42 참조)

그러나 우리를 사이에서 훨씬 더 흔히 보게 되는 문제는 밑에서 올려다 보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교만입니다. 그것은 결점 찾기, 험담, 비난, 불평, 분수에 넘는 생활, 질투, 탐심, 배은망덕, 용서하지 않고 시기함 등 너무나 많은 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우리 위에 있는 권능있는 자에 대항하여 싸우는 필수적인 교만한 힘입니다. 그 대상은 부모거나 신권 지도자, 교사 또는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 자기 위에 있다는 사실을 싫어합니다. 그는 그것이 자신의 위치를 낮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기심은 좀더 흔히 보는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은 자기 기만, 자기 연민, 세상적인 자기 성취, 자기 만족 및 자기 본위와 같은 모든 문제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세상의 영광”과 힘을 얻기 위해 세워지는 비밀 결사들 낱습니다. (히라맨서 7:5; 이더서 8:9, 16, 22~23; 모세서 5:31 참조) 소위 비밀 결사라는 교만의 죄의 열매는 야릇인과 니파이인의 문명의 몰락을 초래했고, 지금까지 그래왔으며, 앞으로도 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더서 8:18~25 참조)

교만의 다른 모습은 논쟁하는 것입니다. 말다툼, 싸움, 불의한 지배, 세대 차이, 이혼, 배우자 학대, 폭동 및 소요... 이러한 모든 것은 교만이라는 범주에 포함됩니다.

가정에서의 논쟁은 주님의 영을 쫓아 냅니다. 그것은 또한 많은 가족들을 쫓아 냅니다. 논쟁은 거친 말에서부터 세계 도처의 분쟁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다양합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교만에서는 다름만 일어날 뿐이라”(잠언 13:10, 28:25)고 말해 줍니다

경전은 교만한 자는 쉽게 화내며 악의를 품는다고 증거해

줍니다. (니파이일서 16:1~3 참조) 그들은 그것을 마음속에 담아 두고 용서하지 않고 상처받은 그들의 감정을 정당화시키려 듭니다.

교만한 자는 권고나 시정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잠언 15:10; 아모스 5:10 참조) 자기 방어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실패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9; 요한복음 6:32~59 참조)

교만한 자는 그들이 가치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세상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그들의 자긍심은 세상적인 면에서 얼마나 성공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에 정해집니다. 그들은 업적에 있어서나, 재능이나 아름다움이나 지적인 면에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느낍니다. 교만은 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성공했다면, 나는 실패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행하며, 인간의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교만은 그 말 자체로 보면 저주스러운 죄입니다. 그것은 발전을 제한시키거나 멈추게 합니다. (앨마서 12:10~11 참조) 교만한 사람은 쉽게 가르침받지 못합니다. (니파이일서 15:3, 7~11 참조) 그들은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여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우리의 모든 관계 즉, 하나님과 그의 종과 우리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고용주와 고용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 모든 인류의 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교만의 정도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결정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이 있는 곳으로 올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도 그와 같이 하기를 원합니까?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다른 사람과 형제 관계라는 느낌을 버리게 해줍니다. 교만은 우리가 “지닌 부와 학식의 정도에”(니삼 6:12) 따라 우리를 구분하고 나눕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단합이란 불가능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의 것이 아닙니다. (모사이야서 7:18, 18:21; 교성 38:27, 105:2~3 참조)

교만으로 인해 과거에 그리고 현재 우리 생활, 우리 가정, 교회에서 어떠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회개하여 생활이 변하고, 결혼 생활이 안정되고, 가정의 강화됨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성 58:43 참조) 감정을 상하고 교만으로 인해 용서치 못하고 주님의 식탁에 온전히 앉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활동이 저조하게 된 많은 회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교만이 아니었다면 선교 사업에 나가 있었을 수많은 젊은이들과

부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마서 10:6; 힐라맨서 3:35 참조)

만약 성전 사업에 쏟는 시간을 우리 시대에 교만한 마음으로 다투어 추구하는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성전 사업이 얼마나 증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은 모든 사람에게 때와 정도를 가리지 않고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교만을 나타내는 리하이의 꿈에서 본 건물이 왜 그렇게 크고 넓었으며 그곳으로 들어간 무리들이 많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니파이일서 8:26, 33, 11:35~36 참조)

교만은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죄이며, 큰 악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널리 행하여지고 있는 죄이며, 큰 악입니다.

교만의 치료제는 겸손, 즉 온유함과 순종입니다. (엘마서 7:23 참조) 그것은 애통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입니다. (니파이삼서 9:20, 12:19; 교성 20:37, 59:8; 시편 34:18; 이사야 57:15, 66:2) 루드야드 키플링이

그것을 잘 묘사했습니다.

“걱정 소요 사라지고 수령과 왕은 떠나가, 주께서 보이신 희생 결단코 없이지않네. 만군의 주 잊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 찬송가, 139장)

하나님은 겸손한 백성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지는 수도 있고 어찌할 수 없이 겸손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겸손해지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니.” (엘마서 32:16)

스스로 겸손해지도록 합시다

우리는 형제 자매에 대한 적대감을 없애고 그들을 우리 자신과 같이 존중하며, 우리와 같이 또는 더 높이 올려 줌으로써 스스로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교성 38:24, 81:5, 84:106 참조)

우리는 권고와 징계를 받음으로써 스스로 겸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10; 힐라맨서 15:30; 교성 65:55, 101:4~5, 108:11, 124:61, 84, 136:31; 잠언 9:8 참조)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한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니파이삼서 13:11, 14, 교성 64:10)

우리는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모사이야서 2:16~17 참조)

우리는 선교사로 나가 다른 사람들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말을 전파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엘마서 4:19, 31:5, 48:20 참조)

좀더 자주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버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 태어남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교성 58:43; 모사이야서 27:25~26; 엘마서 5:7~14, 49 참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소생의 씨앗

조셉 비 워스런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는 가능한 한 깊게 복음의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당면하게 될 어떤 악과 유혹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번성하고 꽃을 피우고 충만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경을 이겨 나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양분을 찾기 위해 그것은 돌과 모래로 된 땅에 6피트나 뿌리를 뿔습니다. 일년에 비가 한 번만 오는 46도나 되는 사막 기온에서도 그것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거의 물을 받지 못하고 7월 중순의 뜨거운 열기에도 잎은 여전히 푸른 색을 띄고 있습니다. (게리 파울 나브한, “소생의 씨앗”, 세계의 동정, 1989년 1월호, 17페이지 참조)

아마 교회 회원들은 이 강하고 역센 식물의 예를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깊게 복음의 땅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당면하게 될 어떤 악과 유혹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성장하고 번성하고 꽃을 피우고 충만한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경을 이겨나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개척자 선조들은 극심한 역경과 고통을 맞이하고도 생존하고 더 강하게 성장했으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이사야 35:1)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천식으로 너무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먼지를 피해 대평원을 건너는 포장마차에서 1~2마일 떨어져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목적지에 도착했으며 자신의 몫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련은 선조들의 경우와는 다릅니다. 많은 선조들이 빈곤과 역경의 생을 사셨지만 우리중에는 부유하고 자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 풍요함 그리고 편안한 생활은

따르며, 우리 생활에서 주님을 앞세움으로써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해지도록 합시다.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시온을 구축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시대에 우리가 시온을 건설하지 못했던 것은 본질적으로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니파이인들간에 헌신이 종말을 맞이했던 것도 교만이라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니파이사서 24:25 참조)

교만은 시온에 큰 장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만은 시온의 큰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교만을 극복하여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엘마서 60:23~24; 마태복음 23:25~26 참조)

우리는 “성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겨” 교만한 “육으로 된 자기를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 아이같이 되어 유순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되어야 합니다. (모사이야서 3:19; 엘마서 13:28 참조)

우리가 그와 같이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성스러운 소명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예언자이며 선견자이시고 계시자 되시는 분의 이 훌륭하고 의미 깊은 말씀에 의해 감동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우리의 젊은이들이 부른 아름다운 노래를 즐거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멕시코 북서부의 뜨겁고 건조한 사막 지대에 농부들은 씨를 뿌려 여러 종류의 옥수수와 콩을 기르는데 이것은 특별히 내구력과 가뭄에 강합니다. 이런 종류들은 다른 식물들이 시들거나 죽어버릴 어려운 기온에서도 생존하고 번성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얀 콩입니다. 그 씨는 비가 아주 조금만 내려도 싹을 피우고 자랍니다. 필요한

우리가 생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될 때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도움이 안됩니다. 편안함을 추구하기 보다는 유혹, 죄 그리고 악의 바람과 열기에 대항할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순결한 생활을 하게 해 줄 씨앗을 우리 자신에게 심고, 가꾸고 성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몇가지 그런 씨앗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우리는 구세주요,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씨앗을 심고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계명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졌음을 알고 주님이 명하신 일을 하고자 했던(니파이일서 3:7 참조) 니파이의 신앙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니파이는 자신의 신앙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양육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하신 일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시나니,”(니파이일서 17:3) 주님께서 그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그의 형들은 동생이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라보고 놀렸습니다. 니파이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만사를 다 행하라고 이르신 것이라면 내가 능히 이룰 수 있으리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땅을 명하여 육지가 되게 하라고 명하신다면 그도 역시... 되어지리라.”(니파이일서 17:50)

다음은 예언자를 따를 용기를 주는 신앙의 씨앗을 가꿉시다. 오늘날의 예언자인 에스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오늘날 온 인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대변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감적인 권고를 기쁘게 받아들일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생활해야 합니다. 이는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기 때문입니다.(교성 1:38) 교회가 조직된 날 벤슨 대관장님의 첫번째 선임자인 요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계시는 오늘날 교회 회원들에게도 적용됩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너희는 요셉이 받은 대로 너희에게 주게 될 말씀과 계명을 모두 마음에 새겨두며...

“너희는 인내와 신앙으로 저희 말을 내 입에서 직접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라”(교성 21:4~5) 교회 회원들이 벤슨 대관장님이 물론경을 읽고 나누라는 강조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1988년에는 3천 5백만권 이상이 팔렸는데 이는 이전 어느 해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아마 더욱 중요한 것은 수많은 성도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물론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의 씨앗을 마음에 심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사랑의 완전한 모범이십니다. 그의 전생애 특히 대속의 희생은 사랑에 대한 교훈입니다. 그의 모든 행위는 온 인류와 우리 모두에 대한 완전하고 진지한 사랑을 반영해 줍니다. 그의 모범을 따르면 사랑은 자신의 유익보다 기쁘고 기꺼이 다른 사람의 필요 사항을 우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영과 영생에 향한 발전은 얼마나 우리가 사랑의 원리를 배우고 생활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마음과 정신의 근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복음 교사와 방문 교사 여러분께 사랑의 정신으로 담당 가정을 돌보도록 촉구합니다. 가정 복음 교육과 방문 교육은 올바른 의도로 올바르게 행해진다면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 가정과 가족간에 사랑, 조화 단합의 씨를 계속해서 가꿔나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버지들은 다음 구절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가족을 관리해야 합니다. “신권의 권능을 구실삼아 어떠한 권력이나 세력도 유지될 수 없고 또 되어서도 아니되나니 다만 설득과 오래참음과 온화함과 온유함과 거짓없는 사랑...으로 할 것이니”(교성

121:41) 남편과 아내는 이기심을 벗어난 순수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중 한 사람이 있는 가족도 그 사람이 관리해야 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에게 올바르게 사는 원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라도 주님은 이 책임을 궁극적으로 부모에게 주셨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출애굽기 20:12), 그들이 가르친 대로 생활하고 가정에 평화가 깃들도록 함으로써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일하는 것에 대한 씨앗을 자녀들의 마음과 습관에 깊게 심어야 합니다. 사회가 농경 사회에서 도시 구조로 바뀔에 따라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의 기쁨과 필요성이 무시되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들 가정에서 있는 동안 일하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후에 고통스럽게 그러한 교훈을 어쩔 수 없이 배우게 될 것입니다.

56년전에 주어진 제이 루우벤 클라크 부대관장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교훈적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 어떤 성장이든지간에 일과 준비를 통해서만 온다는 것은 영원하고 피할 수 없는 율법입니다.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대회 보고, 1933년 4월, 103페이지) 좀 더 최근에 하워드 더블류 헌터 장로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 그에게 주어진 첫번째로 기록된 가르침은 일에 대한 영원한 원리였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창세기 3:19)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하라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열쇠중의 하나입니다. 그분은 쉽게 사는 생활보다 근면한 생활에서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달성하고, 봉사하고, 유익을 얻을 수 있음을 아십니다.”(앤사인, 1975년 11월호, 122페이지)



고든 비 헐클리(왼쪽), 토마스 에스 몬슨(오른쪽)과 함께 앉아 계신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부모들은 자녀가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자녀들의 마음과 정신에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은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든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잠언 29:15)는 말씀을 기억하며 가정과 가족을 책임져야 합니다. 나는 오랜 기간동안 부모의 보호없이 어린 십대 자녀들을 남겨두고 즐기 위해 여행을 자주하는 우리 교회의 어떤 부모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슬픔과 절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조그만” 죄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 중에는 약간의 죄는 나쁜 결과없이 쉽게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도덕적인 죄를 짓지만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생각하면서 곧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봅니다. 어떤 죄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악마로부터 온 생각입니다. “주는 털끝 만큼의 죄도 묵과할 수 없음이니라.”(교성 1:31) 우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 니파이의 권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많은 자들이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은 죄를 조금 지으면 용서하시리니...하나도 해 될 일이 없으니...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리라...”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니파이서 28:8, 21)

우리는 몇 년 후 결혼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장차 태어날 자녀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요청합니다. 이 영들이 지금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들은 자녀들이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지 알아야하며 그것의 나쁜 영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들은 건전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및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프로그램만을 봄으로써 올바른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와 악을 정상적이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묘사하는 텔레비전 쇼를 비난하며 올바른 생활 모습을 보여 주는 방송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청자들이 텔레비전 방송에 대한 표준을 세우게 됩니다. 방송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길 원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합니다. 명예 CBS 회장인 프랭크 스탠튼씨는

BYU 청중들에게 텔레비전 방송국의 표준이 사회 표준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청자들로부터 표준이 세워집니다. ...시청자들이 프로그램과 그 내용을 결정합니다.” 덧붙여 말하길 “더 많은 부도덕과 폭력의 예가 보여질 것이며 사회의 표준이 변하기 때문에 더 좋게 변하기 전에 훨씬 나빠질 것임을 믿습니다.”(매일의 세계, 1989년 2월 2일, 1페이지 참조)

우리 사회에 대한 얼마나 슬픈 논평입니까! 다시 우리는 물문경에서 한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모사이아왕은 왕대신 판사가 다스려야 한다고 제안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백성이 모두 바르지 않은 것을 내세우는 일은 드문 일이요...”

백성들의 뜻이 죄를 택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요.”(모사이아서 29:26~27)

그 죄의 때가 약 60년 후와 다른 때 여러 차례 왔었습니다. 힐라맨서에서 “악을 좇는 자가 선을 행하는 자보다 많았으며”라는 글을 읽습니다.(힐라맨서 5:2 참조) 만약 우리가 텔레비전에서 무엇을 보느냐가 사회의 현재 척도라면 분명히 악을 택하는 사람이 선을 택하는 사람보다 많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우리가 권세와 설득으로 자유로히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참됨과 신성에 대한 굳건하고 불변의 확신이 있는 간증의 씨앗을 우리 가슴에 심기를 제안합니다. 영의 감화를 받을 때 주어지는 겸손하고 뜨거운 간증은 훨씬 더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이 1959년 10월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있는 중앙 침례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부탁받았을 때 그러한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는 후에 그 일을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감동적인 경험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정부 정책으로 종교를 억제한지라도 영적인 굶주림과 갈증을 채우려는 약 1,500명의

사람으로 교회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심을 압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 이십니다. 세상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지켜보십니다. ...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평화를 간구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마치면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봉사하는 교회의 종으로서 나는 진리는 지속될 것이라는 간증을 드립니다. 시간은 진리의 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온 생애동안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참석하신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냉소적이었던 기자와 젊은 통역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회중은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벤슨 대관장님과 수행원들이 모임을 떠날 때 기쁨이 넘치는 감사함과 작별의 뜻으로 손수건을 흔들며 주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십자투구: 아이젠하워와의 8년, 485~488페이지 참조)

벤슨 대관장님의 간증은 그 교회 성직자인 알렉산더 신부에게 깊고 오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수년 후 이 성직자는 말일성도 교회의 핀란드 회원인 이르마 아이르토 자매에게 그 침례 교회를 방문하여 방명록에 서명한 유명한 사람들중에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미국 고위 공직자로서 러시아를 방문했지만 알렉산더 신부는 그를 영적인 지도자로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신부는 아이르토 자매에게 “벤슨씨를 만나거든 그분께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려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르토 자매는 벤슨 대관장님을 직접 만나 이 메시지를 전하리라고는 결코 기대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벤슨 대관장님이 핀란드를 방문하여



철심인 제이 정원회의 엘 앤던 로터 장로와 철심인 제일 정원회의 진 알 록 장로

1977년 10월에 헬싱키 핀란드 스테이크를 조직했을 때 그녀는 그 메시지를 전했고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간증을 강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영감적인 간증으로 큰 효과를 가져온 또 다른 예는 예언자 아빈아다이의 경우입니다. 그가 배도한 노아왕과 그의 제사들에게 회개하라고 이르며 전한 간증은 물론경에서 가장 의미깊은 교리적인 설교중의 하나입니다. 한 사람을 제외하고 왕과 그의 제사들은 아빈아다이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그를 죽게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은 엘마였습니다. 기록상으론 단 한 사람의 개종자밖에 없기 때문에 아빈아다이는 선교사로서 실패했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개종자인 엘마와 그의 후손들은 약 300년 동안 레이맨인들과 니파이인들 중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엘마는 니파이 백성중에 첫번째 대관사요, 교회를 관리하는 대체사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종교 지도자들이 된 엘마 일세의

다른 후손 중에는 손자인 힐라멘과 증손자인 힐라멘, 고손자 니파이,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였던 4대손 니파이가 포함됩니다.

아빈아다이의 한 명의 개종자로부터 이 모든 결과가 생겼습니다. (모사이아서 18장: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물론경 학습의 동반자, 187페이지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언급한 씨앗 및 다른 씨앗들을 우리 가슴과 마음에 심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심고 키울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사탄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참되고 충실하며 행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요, 구속주라는 것과 요셉 스미스는 복음을 회복시킨 예언자이며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오늘날의 예언자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휴 더블류 피녹크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 정부, 교회 또는 자신의 환경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형 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낯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주 시대 또는 컴퓨터 시대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신이 처한 불리한 상황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시대인 듯이 보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지닌 문제에 대해 동료, 부모, 교회, 배우자, 교사, 이웃, 거주지, 심지어 기후에까지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일부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구속주 앞에 홀로 서서 우리가 행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야곱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가 짊어진 임무를 진지한 마음으로 다하며, ...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려 하노라.”(야곱서 2:2).

물론 부정직하고 속이거나 불친절한 사람들로 인해 마음상하고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끔찍한 고통을 주며 때로는 평생 불구가 되게 하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하고 비난하며 용서하지 않는 것은 언제나 문제를 악화시키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치료를 더디게 합니다. 그것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거나 원함니까? 니파이의 부친 리하이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저 스스로 행동하게 하시었음에...”(니파이이서 2:16)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정부, 교회 또는 기타 단체에 자신들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엘마서 30:8, 여호수아 24:15)

우리가 필요한 것의 일부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것은 물론

온당합니다. 사랑하고 도와 주는 부모님,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훌륭한 의사, 헌신적인 교사, 숙달된 자동차 및 기계 수리공들을 대신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이 해 주길 기대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기쁩니다. 우리는 아마 그것을 위해 무엇인가를 했을 것이고 우리의 사랑과 격려가 도움이 되었으리라고 믿지만, 교회로 돌아와 자신의 구원을 위한 책임을 짊어진 사람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이었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15명을 교회로 데려왔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15명의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것을 결심하고 침례받음으로써 그들 자신의 영적인 성장에 대한 책임을 진 것입니다. 우리는 개종자들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훌륭한 회원이 될 것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예를 몇 가지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중 많은 사람들이 한 특별한 영웅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켄 앤더슨입니다. 앤더슨 형제는 14개월 전에 죽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희귀한 병인 표피민감증에 걸렸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는 살갗을 만질 때마다 피가 났습니다. 조금 지나면 상처에 딱지가 앉았습니다. 천으로 손과 발 및 신체 일부를 보호할 수는 있지만 고통을 멈추게 하거나 딱지가 앉지 못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피부는 온통 딱지 투성이었습니다. 그는 두피를 만질 수 없었기 때문에 머리 빗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는 26년을 살았지만 그 312개월 동안 하루도 고통과 딱지와 붕대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같이 달리거나 놀 수 있었던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할 수 있는 한 적극적으로 생산적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유머 감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의 용기와 헌신과 가능한 한 스스로 하고자 하는 모범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부모님과 친구와 교회 지도자들과 교사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잭 앤더슨은 가능한 한 자립하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선교사로 봉사하길 원했지만 그런 문제로 인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는 자신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물론 소년이며 주님을 사랑을 알게 함으로써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잊고 담대한 마음을 지니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다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른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봄 한 무리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신학 연구원 중등부 반에 앉아 시계를 쳐다보며 공과가 곧 끝나기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행되고 있는 공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크게 웃으며 장난하고 쪽지 글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들이 보아야 할 벤슨 대관장님의 모습이 비디오에 비쳤습니다. 그는 물문경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잠담은 계속 되었습니다. 갑자기 한 젊은 자매가 일어나 교실 앞으로 나오더니 엄숙한 얼굴로 멈춤 보트를 누르며 말했습니다. "이분은 우리의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물문경에 관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귀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갑자기 모두 교실 앞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 훌륭한 젊은 자매는 텔레비전을 다시 켜고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일 이주 후 그 반 교사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친 여러 해 동안 그 사랑스런 젊은 자매가 반원 앞에 나가 '우리 예언자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말했던 그날 만큼 반원들이 경건하게 그 문제에 집중했던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그것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전 아리조나주 페닉스에 가기 위해 비행기에 탑승했지만 안개로 인해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했습니다. 예정된 출발 시간이 30분 이상 지났지만 기다리는 동안 비행기 문이 여러 차례 열리고 다른 사람들이 탑승했습니다.

어린 십대 소년이 내 옆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나를 보더니 "선생님, 물문경이세요?"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렇다고 말하고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 개월 전에 교회에 가입했지만 교회를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간증을 전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관한 많은 것들을 토론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비행기는 솔트레이크를 떠나 남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젊은이는 그의 간증을

재확인하고 강화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기계이 그것에 대해 무엇인가 행하고자 했습니다. 코디와 나는 지금 편지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생각할 때 진리를 찾고 좀더 재확신을 필요로 하여 그것을 스스로 찾자 하던 훌륭한 젊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전세계의 모든 와드와 지부에는 "정말입니까?" 또는 "어떻게 하면 나의 생활을 좀더 낮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도와 주어야 합니다만 간증을 강화시키고 생활을 정리해 줄 좁은 길을 걸을 책임은 그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단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강화하고 생활을 좋은 면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첫째, 변화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변화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든지 그것을 행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둘째, 예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경전을 읽는 것입니다. 니파이,



모세, 바울, 누가, 요셉 스미스 및 기타 예언자들을 통해 전해진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때로는 괴롭고 어려울 때 경전을 상고하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주어질 수 없는 힘과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간증을 좀더 강화하고 인격을 도야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행해야 합니다.

셋째, 계명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대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대로 생활하지 않을 때 간증이 약화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의 진실성에 대한 지식이 점차 사라지는 것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누구도 우리를 위해 회개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혼자서 행해야 할 책임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내 사무실을 찾아온 한 젊은 자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낙담하고 거의 절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교사인 직업을 좋아했지만 그의 생활에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주는 것은 간증이 약화되고 있으며 그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그녀가 이전에 지녔던 열의를 잃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까. 하지만 자세하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매님은 계명대로 생활하십니까?”

그녀는 “아니오.”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감독에게 가는 것과 간증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계명대로 생활할 때 다른 방법으로는 주어질 수 없는 영의 축복이 어떻게 주어지는 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들어올 때처럼 실망한 듯이 떠났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약 일 개월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죠?”라고 내가 물었습니다.

“저, 감독님께 갔었어요. 지금은 계명대로 생활하고 있어요. 물론 복음이

참됨을 알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 해냈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자매님을 위해 그것을 해줄 수 없었을 겁니다.”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떠맡아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보낸 나날들, 여러 주일, 심지어 여러 달, 여러 해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을 우리를 위해 해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넷째, 참으로 무거운 짐을 들어 주기 원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해야 하는 다른 책임을 해주는 것은 그들에게 해를 입히고 발전을 가로막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 네 단계를 따르면 우리가 구세주와 “하나”가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 생활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오직 구세주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있으며 그 관계는 항상 개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혼자 갑니다. 그는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를 맞이하십시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잡지, 공과 교재, 비디오 테이프는 결코 문제를 해결하고 공과를 준비하거나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경전만큼 완전하고 힘이 있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이 표준 경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는 내용에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성서인 페이지를 직접 펼치고 찾아보십시오.

우리는 일요일에 예배를 보고 수요일에 농구와 배구를 하며 그외의 날에는 정해진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좋아합니다. 그 건물들은 잘 꾸며져 있으며 안락하고 언제나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리 가정을 대신해 주지는 못하며 결코 그렇게는 못할

것입니다. 예배당이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곳이라도 훌륭한 사람과 함께 만나며 성찬을 취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께 경배드릴 곳은 항상 존재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의지하는 일이 적을수록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집에서 만든 공과 보조 자료, 부모와 자녀가 고안한 가정의 밤 토론 및 활동, 그리고 경전 말씀과 독특한 문화 모두에 부합되는 모범 등은 때로는 우리가 구입하는 자료보다 더욱 유익합니다.

가족 예배 시간이나 복음 교리 반 또는 기타 교회 부름에서 좋은 모범이 되는,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영감을 지나치거나 상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어른이 선의로 너무 많은 것을 도와 주고자 할 때 자녀가 “아니오, 제가 하겠어요.”라고 말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버드나무 가지로 피리를 만들어 볼 때 가게에서 산 것보다 훨씬 소리가 좋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대어받은 비디오 테이프나 상업적으로 만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기타 다른 형태로 꾸며진 오락에만 의존할 때 얼마나 손실이 큼니까? 우리는 자녀와 동반기 놀이를 하거나 이웃과 거닐거나 친구와 함께 간단한 그림이나 노래를 하거나 보기 좋게 많은 물몬경에서 참된 진리를 찾을 때 오는 기쁨과 성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의견, 방향, 심지어 사용하는 말조차 다른 사람에게 의존합니까?

이제 “아, 이제 그만, 내 행위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지고 싶다.”라고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것에 대해 다른 사람, 정부, 교회 또는 자신의 환경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온 세상에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될 듯한 사람들에게 매우 큰 호기심을 줄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 영원한 가족에 관한 개념,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에 대한 간증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다음의 권고를 받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베드로전서 3:15)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랄 만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가능성이 지금보다 큰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나라에 시온의 스테이크를 세웠습니다. 새로 세워지고 잘 관리되고 있는 건물들은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예배를 보도록 해줍니다. 훈련된 신권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신앙을 키워 가고 있습니다. 물론경은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이 위대한 교리의 기초가 되는 경전이 훨씬 더 많은 우리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오는 축복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은 인류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도구를 제공해 왔습니다. 많은 나라에 성전이 세워져 하나님 아버지의 수많은 자녀들에게 구원의 의식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위대한 일에 부름은 받고 또 이 일에 대한 간증을 나누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앞으로 행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튼튼한 반석 위에서 있으며 어느 때보다도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시대는 예언자이신 벤슨 대관장님의 다음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임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뭉쳐야 할 이유입니다. 복음만이 이

세상을 자멸의 재난으로부터 구해줄 것이며, 복음만이 온 민족과 백성을 평화로 결속시킬 것입니다. 복음만이 인류에게 기쁨과 행복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에즈라 테프트 벤슨의 가르침, 167페이지)

이 사업은 기쁜 소식을 전파하는 선교사의 수에 비례해서 성장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교회 역사상 가장 많은 복음 선교사를 파견했으며, 또한 가장 많은 개종자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능성에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아직도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과 부부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예언자의 부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십년간 예언자께서 “모든 회원은 선교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어 왔으나, 아직도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책임에 있어서 스테이크 선교사나 복음 선교사를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의 수는 매우 적습니다.

우리는 왜 이 일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싫어합니까?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이러한 두려움의 근거를 찾지도 못합니다. 사실상 경험으로 볼 때 회원 선교 사업의 과정은 우리 자신과 친구간의 관계를 더욱 강하게 해줍니다.

둘째, 우리는 훌륭한 전파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반 회원은 오래 전에 복음 선교사로서 내가 처해 있던 위치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우리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거의 훈련을 받지 않았습니. 내가 선교 지역에 도착했을 때, 나의 동반자도 그 지역에 새로 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행하도록 부름받은 일을 시작하기 위해 동반자가 주어지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즉시 그와 함께 가자호호하기를 권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맨처음 집을

항해 다가가던 때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 집으로 다가가면서 나는 동반자를 보며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요?” 그의 대답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모르겠습니다. 한번도 이것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봉사하고 있는 복음 선교사의 훈련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회원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성취하려면, 우리는 그들 이상의 능력을 갖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때,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될 듯한 사람들에게 매우 큰 호기심을 줄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들은 우리가 더 훌륭한 전파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데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첫째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 지상의 삶만이 있다면 그리고 죽음이 우리의 존재의 종말이라면, 관심을 가질 일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로부터 주어진 거룩한 예언자들의 기록을 연구하면, 우리는 곧 인간이 육체와 영을 지닌 이원적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상 생활의 주 목적은 세상이 생겨 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우리의 영이 지상 생활의 기회를 갖는 동안 우리의 육체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결합은 우리의 영과 육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만 한다면 성장하고 발전하며 성숙하도록 특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시험 상태로 일컬어지는 일정 기간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 기간은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기에 합당한지 알아보는 배움과 시험의 기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거룩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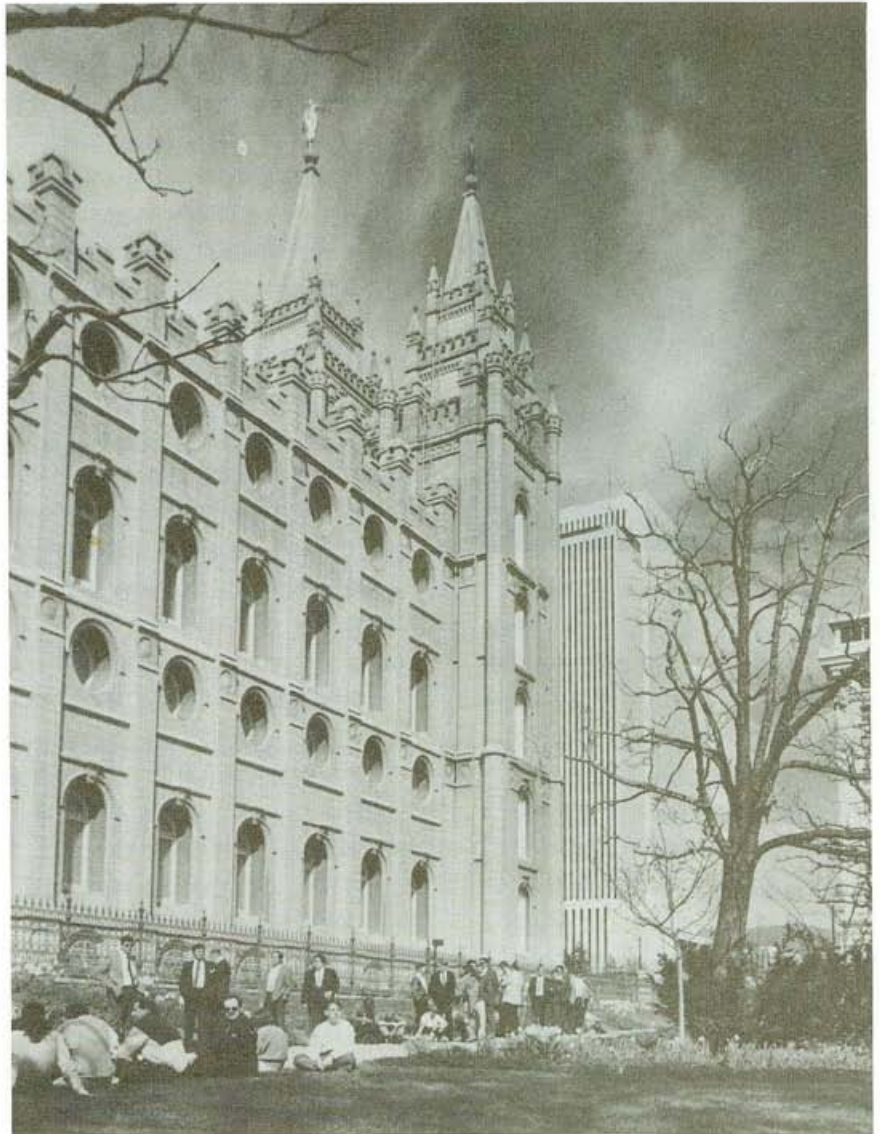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창조의 목적과 우리의 필멸의 시험 기간으로 인해 오는 기회와 한계를 알기 원합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메시지를 진리를 구하는 자들에게 전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의 목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가족과 함께 경전을 면밀하게 연구하기를 권고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워드 도서실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라는 비디오 테이프나 카세트를 빌려서 가정의 밤에서 보거나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가족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왜 이곳에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를 더 잘 이해하게 될때, 그들은 이 생애에 관해 기본이 되는 교리를 진실로 그 대답을 찾는 사람과 함께 나눌 준비를 보다

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에 관해 더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번째 메시지는 영원한 가족에 관한 개념입니다. 태초에 주님께서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가족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하셨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몸을 이룰찌로다”(창세기 2:24)

하나님의 계획은 무덤을 넘어서 계속 될 남편과 아내라는 성스러운 결합을 통해 그분의 영원한 가족을 함께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에게는



그들의 자녀를 세상에 데리고 와서 그들이 누구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에서 그들이 맡은 역할은 무엇인지 가르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들의 가정을 축복해 줄 새로운 생명에게 그 어느 것보다도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영광스러운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생애에서의 최대의 기쁨과 다가올 영생에 대한 소망은 영원한 가족 단위의 결합에서 찾을 수 있음을 곧 알게 될 것입니다. 결혼을 했던 안했던 우리는 영원한 가족의 일원입니다.

우리는 또한 가정에서 의로운 부모에 의한 충분한 양육과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회에 미치는 악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가족이 함께 가족의 영원성을 다루는 경전을 읽어 이 영원한 원리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의 결과로서 이 지상에 주어질 기쁨의 산 본보기가 될 수 있기를 권고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가정의 밤에서 보기를 원할 수 있는 "영원히 함께 함"이라는 또 하나의 비디오 테이프나 카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집회소 도서실에서 빌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에 대한 간증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음모를 피하는 자들이 만들어낸, 그분이 신화의 인물이라는 교리를 배척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단지 위대한 교사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론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신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간증합니다. 우리는 물론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거룩한 진리에 대한 또다른 증거를 갖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기술의 하나로서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의 사명에 대한 또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굳은 증거로서 물론경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역사와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들어, 요셉 스미스가 그의 서기인 올리버 카우드리의 도움을 받아 물론경을 번역하던 기적을 생각해 봅시다.

마틴 해리스가 집으로 가져 가도록 허락받은 166페이지의 원고를 분실한 후, 진정한 번역은 올리버 카우드리가 서기로 일하기 위해 펜실바니아에 도착한 이를 후인 1829년 4월 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5주 후인 5월 15일에 그들은 니파이섬서 11장에 나와 있는 니파이인에 대한 구세주의 성역의 기사를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6월 11일에도 물론서의 마지막 판을 번역했고 같은 날 예언자는 판권을 신청했습니다. 6월 30일에 책이 완성되었습니다. 번역을 시작하여 마칠 때까지 85일이 채 못걸렸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85일 동안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번역한 날은 60일 내지 65일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 기간 동안 예언자는 하모니에서 페이에트로 이사했고, 물자를 구하기 위해 여러 번 여행했고, 교리와 성약 13편을 받아 기록했고, 아론 및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했고, 몇몇 사람을 개종시켜 침례한 사실 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내용을 연구하기 위해 도서관을 찾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내용을 변경하거나 다듬을 시간도 날짜나 기간 그리고 상세한 내용을 서로 대조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대신 매일 매일 끊임없이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올리버가 받아 적음에 따라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성취입니다! 그 원고는 한번에 받아 적혀졌고 내용을 고친일도 없었으며, 오늘날까지 단지 편집상의 작은 변경만 있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한 젊은이의 머리에서 쏟아져 나온 단순한 책이 아니라 수천년 통치와 영감의 정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번역의 속도뿐만 아니라 요셉 스미스가 훈련도 받지 않은 전혀 생소한 언어로

했고 또한 도움이나 인도를 구하기 위해 찾아갈 사람이 아무도 없이 이 일을 수행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물론경에는 고대 미대륙에 살았던 주민에 대한 거룩한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르치며 그분의 뜻을 따를 것을 특히 강조하고, 나사렛 예수의 신성을 증거하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세주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또다른 증거인 물론경과 이것이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의 사명에 대해 세상에 말해 주고 있는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복음의 빛과 생명을 필요로 하는 친구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까? 훌륭한 모범을 보이십시오. 진실로 위해 주는 뜻있는 관계를 발전시키십시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와 생의 의미와 가족이 존재하는 이유 및 구세주의 사명에 관한 여러분의 친구의 생각이나 느낌이나 경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친구의 말에 귀 기울여 즐겁고 유익한 경험을 가지십시오. 김벌 대관장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느끼는 일에 대해 간증해야 하며, 성신이 우리와 함께 하여 구도자의 가슴에 우리가 전하는 말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생활해야 합니다."(성도의 빛, 1977년 11월호)

이 혼란한 세상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의 복음 안에서 단단히 다져지고 다스려지는 표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준비되어 주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참됨을 우리의 주님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은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참으로 그는 가장 큰 기적이며, 그가 보여준 그의 생애는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러한 모범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반구에서 일년중 우리가 봄이라 부르는 만물이 소생하고 새롭게 되는 자연의 위대한 기적인 이 아름답고 짙이 돌아오는 계절을 즐기고 있습니다. 며칠 추운 날이 남아 있을지라도 봄은 다시 돌아오고 꽃과 나무에는 새싹이 돋고 화려한 녹색잎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 부활절에 모든 기독교계에서 위대한 회복과 부활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그 사건이 온 인류를 위해 담고 있는 모든 기쁨과 영원한 약속을 선포한 것은 얼마나 잘 어울리는 일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나는 하나님이기적의 하나님이며 그의 독생자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요한

11:25)는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 이 절기를 기쁘게 맞아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절기에 우리는 사망의 쏘는 것도 없으며 무덤의 지배력도 없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나는 자연과 같이 우리 개인의 인생 여정도 모든 겨울 기간이 지나면 바로 봄의 기적이 오게 됨을 간증합니다. 이러한 회복과 부활은 언제나 가장 충실하고 굳건한 분인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나는 우리 생애에서 구세주께서 손을 뻗쳐 우리를 구속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강화시키시려는 거룩한 순간들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의 작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내게 귀를 기울이시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여...”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라 민족들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시편 77:1, 10, 14)

참된 교회의 표적과 지상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증거에는 우리가 도저히 설명하거나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이 포함됩니다. 경전에서 이러한 거룩한 행위와 특별한 축복을 기사, 표적 또는 이적 등으로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역에서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고 신기한 일은 그리스도께서 배푸신 많은 기적들은 그의 아버지가 전에 배푸셨고 우리의 온 주변에서 아직도 배풀고 계시는 더욱 위대한 경이로운 일들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으로 구세주께서 그와 같은 거룩한 이적을 겸손하게 배푸신 것은 그가 다음에 하신 말씀에서 매우 특별한 한 가지를 실행하신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내가 스스로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행하느니라”(요한복음 5:19, 8:28)

예를 들면 신약전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술로 만드신 것입니다.(요한복음 2:1-11참조) 그러나 항아리에 술을 만드는 것은 태초에 아름다운 포도나무와 잘 익은 풍성한 포도들을 만드는 것과 비교하면 보잘것 없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혼인 잔치에서의 한 번의 기적을 설명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포도원 자체에서 일어나는 매일 매일의 기적도 설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귀머거리가 다시 듣게 된 것을 목격하는 것은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큰 축복도 우리의 귀가 세상의 아름다운 소리를 듣도록 빼와 살이 놀랍도록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보다 더 놀랍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청각을 잃은 후에 다시 듣게 되었을 때와 같이 듣는 축복에 경이감을 느끼고 그러한 기적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력을 회복했거나 말을 할 수 있게되었거나 심지어는 가장 위대한 기적인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아십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참으로 놀라움이 가득찬 세상입니다. 무엇보다도 생명과 수족과 시력과 언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 눈이 있고 들을 귀만 있다면 항상 많은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것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일단 우리 생활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많은 놀라운 일들과 축복들을 깨닫기 시작하면 장님이 다시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다시 듣는 것과 같이 매일 매일이 새로울 것이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가져다 주는 설명할 수 없는 원리와 과정으로 참으로 당황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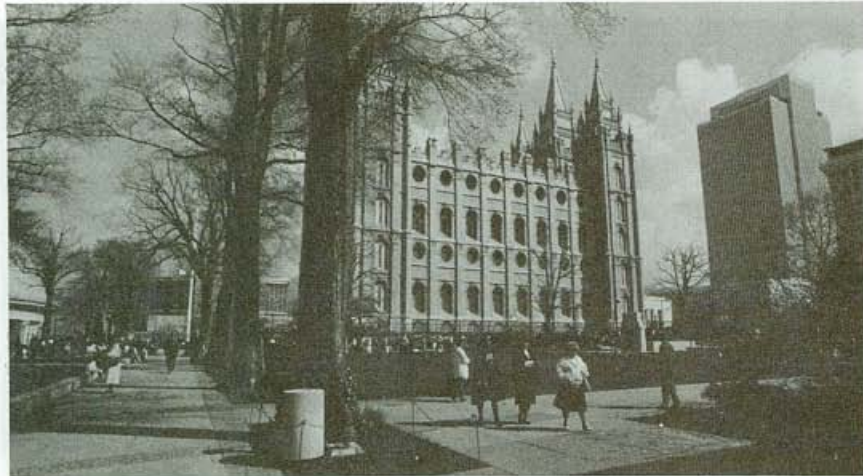
기적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때 “우리는 인간이 이해하는 능력보다 더 큰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과학자이며 주님의 사도로서 특히 그러한 현상을 알아보는데 뛰어난 자질을 갖고 있었던 제임스 이 탈매지 박사는 기록했습니다. 그는 과학과 인간 정신만으로는 이러한 이적들을 분석하거나 설명할만큼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가 단순히 그 기적이 일어난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과와 나타난 것이 허구적이라는 근거로 기적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것은 분명한 교만이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154페이지 참조) 실로 그러한 기적의 혜택을 본 사람들이 무엇보다 가장 설득력있는 증거입니다. 결과에 대해 논란하기는 어렵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업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구세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면서 하신 이 간단하지만 의미깊은 말씀을 상고해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날 때 부터 소경인 자를 축복하시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놀랍고 영감적인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시민 한 사람이 시력을 되찾았다는 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던지”라고 경전에 써여 있습니다.

제사장들 가운데 의견이 분분하자 매우 지혜롭게 그들은 고침을 받은 사람의 의견을 물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들은 묻고 그의 답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말할 때 그 소경이었던 자는 주저없이 직접 그들의 눈을 쳐다보며 (새롭고 귀중한 특권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라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니다. 그 사람의 부모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포함하여 많은 토론을 한 후에 바리새인들은 기적이 참으로 행해졌으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지도 모른다고 인정은 하되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했을지도 모르는 모든 일을 부인하도록 하게 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줄 아노라”

율법이나 규례에 방해받지 않고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이니이다”(요한 9 : 13~25)

이 가장 중요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반론을 제기할 수 없었던 바리새인들은 그를 면전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런 다음 시력과 더 밝은 빛을 얻게 된 이야기의 결론은 다음과 같이 끝납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는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요한 9 : 34~38)

이제 시력이 두 번 주어졌습니다. 한번은 선천적 소경에 대한 회복이며 다른 한 번은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로 승천하시기 전의 왕중 왕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눈과 영적인 눈을 모두 소생시키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빛을 어두운 곳에 비추주시어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그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사람은 빛을 받아들이고 보았습니다.

스펜서 더블류 김블 대관장님은 “용서가 낳는 기적”이라는 제목의 책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물론 기적을 보고나서야 신앙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의 많은

기적들을 통한 우리는 좀 더 겸손하고 감사하고 친절하고 신앙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이적을 개인적으로 보게 될 때 그분에 대한 존경심과 사랑을 키워야 하며 우리의 행동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좀 더 훌륭하게 생활하고 좀 더 많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당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부활은 무엇보다 가장 큰 기적입니다. 참으로 그는 가장 큰 기적이며, 그가 보여 준 그의 생애는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러한 모범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모로나이는 물문경에서 그의 아버지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기적이 그친 것이냐… 기적의 날이 다 한 것이라 하겠느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천사들이 인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일도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시간이 지속되며 땅이 존속하며 땅위에 단 하나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 이 같이 행하시겠느냐?”(모로나아서 7 : 27, 35, 37, 29, 36)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도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베드로와 요한이 앓은뱅이의 오른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자 그가 걸었음을 압니다. (사도행전 3 : 1~11 참조) 나는 이 말일에 복음이 회복되고 우리 경륜의 시대에 많은 기적을 가능케 해 주는 신권 권세가 회복되었음을 간증합니다.

시편 저자가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셨”(시편 77 : 14)다고 말했듯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대해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형제 자매 여러분, 벤슨 대관장님의 위임을 받아 이제 나는 총관리 역원과 교회 본부 역원들의 명단을 발표하여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을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또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으로, 고든 비헝클리 형제를 대관장단 제1보좌로, 토마스 에스 몬슨 형제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형제를 심이사도 평의회 회장으로, 심이사도 평의회 회원으로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조셉 비 위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대관장단 보좌와 심이사도를 예언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교회의 급성장으로 인하여 대관장단과 심이사도 정위원회는 교회의 확장과 관리에 대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시간부터 시행되는 칠십인 제이 정위원회 조직을 발표합니다.

칠십인 제이 정위원회 최초의 회원은 현재 5년 임기로 봉사하고 있는 총관리 역원들이 될 것입니다. 때에 따라 추가로 형제들이 칠십인 제이 정위원회 보충될 것이며, 그들 또한 5년 임기로 칠십인과 총관리 역원으로서 봉사할 것입니다.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는 칠십인 제이 정위원회의 회원들이나 여러 신권 지도자들 중에서 부름을 받은 회원들에 의해 현재와 같은 인원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칠십인 회장으로 딘 엘 라슨, 매리온 디 행스, 윌리엄 그랜트 뱅거터, 로버트 엘 백맨, 휴 더블류 피녹크, 제임즈 엠 패러모어, 제이 리차드 클라크 형제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우리는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 회원으로 디어도어 엠 버튼, 폴 에이치 딘, 하트만 렉터 이세, 로렌 시 딘, 로버트 엘 심슨, 렉스 디 피네가, 제이 토마스 파이안스, 애드니 와이 고마쯔, 진 알 쿡, 찰스 디데이, 윌리엄 알 브래포드, 조지 피리, 칼로스 이 에시, 존 에이치 그로버그, 야곱 디아가, 본 제이 패더스톤, 로이든 지 데릭, 로버트 이 웰스, 에프 엔지오 부쉬, 요시히꼬 기꾸찌, 로날드 이 포울맨, 데릭 에이 커스버트, 렉스 시 리브, 에프 버튼 하워드, 테드 이 브루어튼, 잭 에이치 고스린드, 안헬 아브레아, 존 케이 카막, 빅터 엘 브라운, 에이치 버크 피터슨, 한스 비 링거 형제.

칠십인 제일 정위원회의 추가 회원에 조 제이 크리스틴슨, 더블류 유진 헨슨, 제프리 알 홀랜드, 말린 케이 켄슨 형제.

부름받은 날로부터 5년 동안 봉사하게 될 칠십인 제이 정위원회 회원으로 러셀 시 테일러, 로버트 비 허버슨, 디비어 해리스, 스펜서 에이치 오스본, 필립 티 손태크, 존 소넨버그, 에프 아더 케이, 키드 더블류 윌콕스, 알도 피 콜, 헬리오 알 카마고, 에이치 멜란 앤더슨, 조지 아이 캐넌, 프랜시스 엠 기브슨, 가드너 에이치 러셀, 조지 알 힐 3세, 존 알 래스터, 더글라스 제이 마틴, 알렉산더 비 모리슨, 엘 엘딘 포터, 글렌 엘 러드, 더글라스 에이치 스미스, 린 에이 소렌슨, 로버트 이 색클리, 엘 리오넬 캔드릭, 몬트 제이 브러프, 엘버트 출츠 이세, 로이드 피 조오지, 제럴드 이 멜친 형제.

부름을 받아 이 대회에 소개될 칠십인 제이 정위원회의 추가 회원으로 칼로스 에이치 아마도, 벤자민 비 백크스, 스펜서 제이 콘디, 에프 멜빈 해몬드, 맬콤 에스 켈슨, 리차드 피 린지, 멀린 알 리버트, 호레이쇼 에이 테노리오를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게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외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 역원과 본부 역원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슨 대관장님, 만장 일치로 찬성 지지가 되었습니다.

새로 지지받은 칠십인 회원은 단상에 있는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모임

교회 감사 위원회 보고서

보고자 : 윌포드 지 에드링

교회 감사 위원회 위원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단에게”

교회 및 교회 조직의 일반 기금의 영수와 지출에 대한 합당한 관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1988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1년 동안의 교회의 예산, 회계 및 감사 체제, 이와 관련된 재정 결산 명세서 그리고 기금 영수와 재출 관리 방법을 검토하였습니다.

연간 교회 본부 기금은 대관장단과 십이사도 평의회와 관리 감독단으로 구성되는 십일조 지출 평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지출 위원회는 주례 모임에서 그 예산에 따라 중요한 지출을 집행합니다.

교회의 본부 기금 계정은 교회의 빠른 확장과 다양한 활동에 뒤지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 현대식 회계 기술과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재정 기록부가 맡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모든 부서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감사부는 자격을 갖춘 회계사와 이와 유사한 자격의 감사자로 공인 구성되어 있으며 재정 감사, 운영 감사,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컴퓨터 체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 업무는 교회의 각 부서와 전세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회 운영 조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교부, 학교, 관리 본부 및 각 부서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와드와 스테이크의 지역 기금에 대한 감사는 스테이크 감사자가 실시합니다. 감사 절차는 교회 감사부가 제정한 것이며, 감사 보고서는 교회 감사부에서 검토합니다. 교회 재정 기록부가 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은 교회 소유 및 운영 재단 법인 사업체는 교회 내의 감사자, 독립된 전문 감사 기관이나 정부 감사 기관이 감사합니다.

교회 내의 재정 관리 체제에 대한 우리의 조사에 의거하여 재정 기록부와 감사부 책임자들이 함께 계속해서 토론한 결과 우리는 예산, 회계 및 감사 관리가 교회의 필요 사항과 목적을 위해 합당하게 처리 되었으며 1988년 12월 31일자로 마감된 1년 동안 영수하고 지출한 교회의 본부 기금이 모든 면에서 현재 제정되어 있는 교회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고 회계 처리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진실한 형제,
감사 위원회
윌포드 지 에드링
데이비드 엠 케네디
위렌 이 퓨
매릴 제이 배이트먼
테드 이 데이비스



1988년도 통계보고서

보고자 : 에프 마이클 왓슨

대관장단 서기

대관장단은 교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1988년 12월 31일 현재 교회의 발전과 현황에 관한 다음과 같은 통계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회원 수는 대회 전까지 입수한 1988년도 보고서를 토대로 산출한 것임)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수	1,707
지방부 수	402
선교부 수	222
와드 수	11,196
스테이크 산하 지부 수	2,899
선교부 산하 지부 수	2,463
와드 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주권 국가의 수	100
와드 또는 지부가 조직되어 있는 자치령, 식민지 및 영지의 수	25

(본 통계는 1988년 한 해 동안 41개의 스테이크와 552개의 와드 지부가 증가했음을 보여 줌)

교회 회원

1988년 말 현재 교회 회원 총 수	6,720,000
----------------------	-----------

1988년의 교회 성장

기록상의 자녀 증가 수	93,000
침례받은 기록상의 자녀 수	73,000
침례받은 개종자의 수	256,515

선교사

복음 선교사	36,132
--------	--------

작년 4월 이후 한 해 동안 작고한 유명 회원

매리온 지 린니 부대관장, 전 대관장단 보좌이며 심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오랜 기간 봉사했으며 심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있었음.



합당하게 됨

마빈 제이 에쉬튼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합당하게 되는 데에는 과정이 있으며, 완전함은 영원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권을 누릴 만큼 합당할 수 있습니다.”



수 주일 전에 나는 “합당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깊게 생각해 해 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근 20세 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누며 선교사로 나가는 것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그는 “가고 싶지만 저는 합당하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그런 판단을 했지?” 라고 묻자 “제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경우에 나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젊은 자매에게 성전에 가서 하는 것이 어떤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하고 싶지만 합당하지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 사람이 누구냐는 같은 질문에 그녀도 “제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 주 동안 그녀의 딸이 성전 결혼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회원 어머니에게 성전 결혼 의식에 참여할

것인지를 묻자 “아니오, 나는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치가 않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합당함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판단하여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합당하기를 결정하도록 도와주며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하든지 그것을 이루는 데 합당하게 되는 과정을 시작하도록 도움을 주는 감독님과 스테이크 부장님으로부터 유익과 보다 큰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나는 합당치가 않다.”라고 간단히 말해버리는 것은 발전하는데 벽을 쌓고 우리가 진보하는 것을 막는 방어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의견이 항상 도움이 되며 올바른 것입니다.

합당함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마 수백 또는 수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당하게 되는 데에는 과정이 있으며, 완전함은 영원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더라도 어떤 특권을 누릴 만큼 합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기준이나 판단은 때때로 심하고 부정확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우리는 합당함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추고자 노력할 때 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특히 우리의 결점과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바라는 축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거나

옆에 있는 사람같이 직분 또는 부름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고 느끼기가 쉽습니다.

인생을 통해 우리는 비합리적인 선입견을 갖고 자신의 약점을 통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진리로부터 벗어났거나 자신에게 공정치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릇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나아가고 분명히 생각하기 위해 모든 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적당하게 느껴질 때 능력있고 사랑이 많은 친구들을 통해 우리는 힘과 잠재력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조언할 때 항상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고자 노력합니다. 때로는 집견을 받는 사람이 사실을 말함으로써 불편하게 될까봐 말하는 것을 꺼립니다. 합당하고 오래가는 변화는 진리의 빛에 기초를 두고 행할 때만 올 수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신의 합당치 못한 상태를 스스로 밝힘으로써 편안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따르기 가장 어려운 지침은 우리 스스로 세운 것일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 꿈, 목표, 동기 등을 분석하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실패할 것을 너무 두려워하여 하려고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비난으로 자존심을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다른 많은 사실들은 우리가 참으로 알고자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일요일 모임에 참석하여 서로를 쳐다볼 때 나름대로 판단하며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사람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서로 미소로 맞이합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생활을 통제하며 사소한 약점과 결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경향입니다. 불행히도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가장 큰



제2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왼쪽)과 심이사도 정원희 회원들과 함께 한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가운데)

약점과 다른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을 비교하려 합니다. 예를 들면 복음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느끼는 자매는 복음 교리반을 가르치며 모든 성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자매를 주목합니다. 분명히 이런 비교는 실망을 가져다 주며 다른 사람 만큼 훌륭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 만큼 합당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는 두려움을 심어줄 뿐입니다.

우리는 완전함에 이르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가 이룬 것이나 우리의 행동이 완전치 못했을 때의 실망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버려야 할 그릇된 믿음은 우리가 자신을 완전케 하기 위해 이 지상에 왔으며 완전치 못한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내가 정확히 이해했다면 우리는 완전함이란 목표를 향해 놀라운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지라도 이 생에서 완전하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장로님은 이런 권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은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까지에는 오랜 시일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넘어서도 한없이 진보하여, 모든 것을 극복하는 충실한 자만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이러한 완전의 상태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행에 한 행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모범에 모범을 더하고, 이 생에서 뿐만이 아니라 무덤을 넘어서도 계속 진보할 때 하나님과 같이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의 교리Ⅱ, 16페이지)

나는 또한 우리가 곧고 좁은 길을 따라 가는 속도는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만큼 중요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만일 그 방향이 영원한 목표로 이끌어 주는 것이라면 참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지 큐 캐논 장로님이 하신 말씀 또한 나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겸손한 사람들은 때로는 자신이 너무 합당치 못하고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만큼 합당치 못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거나 위로해 주지 않으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하기 원치 않으시거나 구원할 방법을 마련치 않으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도록 천사를 마련해 주지 않으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이나 다른 사람의 눈에 무의미하거나 하찮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로 그의 천사를 보내주셔서...우리를 돌보게 하십니다. 그 천사들은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를 인도하며 보호해 줍니다.” (복음 진리 1권, 2페이지)

우리가 천사로부터 인도받고 보호받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선 분명히 우리가 돌봄을 받고 도움을 받고 인도되기에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돌봐주심을 알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합당한 회원이 되는 방법을 알도록 교회 지도자를 찾는다면 우리는 인생의 좁은 길을 따라 각자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합당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1978년 9월 30일 교회에서 채택한 공식 선언문 2에서 어떤 특권을 받기 위해서는 합당함이 선행조건임을 알게 해줍니다. 이 공식 선언문에서 “합당한” 또는 “합당함”이란 단어가 여섯 번 사용됩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축복을 받고자 한다면 합당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의 중요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에게 가서 우리의 합당성을 논할 수 있는 것은 훌륭한 힘이 되며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한 접견을 하는 동안 발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합당하게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앤 앨튼 테너 부대관장님은 현명한 충고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모든 악이 만연해 있는 때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접견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주요 목적 임무 및 책임은 영혼을 구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접견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이며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복지와 인생에서 성공하도록 그들을 돕는데 관심이 있음을 알게 합시다.

“감독이나 스테이크 부장이 합당성에 대한 접견을 하는 것은 중요한 책임입니다. 그러나 접견을 받는 사람에게도 같은 책임이 주어집니다. 조심스러운 접견은 항상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행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애에서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을 방법이 있음을 알게 합시다. 깨끗하게 해주는 회개의 큰

권세가 있습니다.

“감독 및 스테이크 부장님들은 성전 추천서 접견을 다음과 같이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님은 성전에 들어갈 추천서를 받기 위해 오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대표하여 형제님을 접견할 책임이 있습니다. 접견을 마칠 때 제가 형제님의 추천서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의 추천서에 제 서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추천서가 유효하도록 형제님이 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교회 회원들에게 접견시 그러한 질문에 답할 권리를 주십니다. 그런 다음 잘못된 일이 있다면 그 회원은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고 신권 승진이나 선교 사업 또는 성전 추천서를 받기에 합당하게 될 수

있습니다.”(보이드 케이 패커 장로, 기록한 성전, 50~51페이지 인용됨)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할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성구가 바로 교리와 성약 136편 31절입니다. “징계를 견디지 못하는 자는 나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느니라.” 때로 우리는 도움과 사랑의 정신으로 징계받고 단련받고 올바르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와 제인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어져야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누군가가 우리 행실이 그래서는 안된다고 제안할 때 받아들이지 않거나 실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고통을 주는 것이 가르침을 준다. 이런 이유로 현명한 사람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을 배운다.”

인생에서 거의 모든 권리에는 요구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즉 교육에서도 요구 조건이 있으며, 사업에는 규정이 있으며, 스포츠나 게임에도 규칙이 있고, 교회에서도 일정한 표준대로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그러한 요구 조건들을 충족시켜주는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근원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규정을 이해하고 우리 자신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러한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합당치 못하다고 판단하여 진보를 막는 것은 현명하거나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우리가 결정을 지니고 생활할 때 우리는 합당치 못하다고 느끼며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계속 발전하도록 노력하는 것과 우리 행동이 항상 완전히 못할 때 좌절감을 느끼지 않는 것 사이에 간격을 매꾸는 것이 다소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어에서 합당치 못한 것을 없애고 소망과 행위로 그것을 대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조용하고 깊고 확실한 지침인 과거와 현재 예언자들과 지도자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런 현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자신이 합당하다고 느끼며 그를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는 동안에는 그를 비참하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합당한”이라는 단어와 합당하게 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휴 비 브라운 장로님의 “합당하게 되길 원하네”라는 시의 일부를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네 나를 “아들”이라 불러 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생각으로 영감을 주셨네
이러한 예언의 관계로 합당하게 되도록 노력하길 원하네
성약의 자녀로 태어남을 감사하네
승고한 부모와 조상이 지금은 아니나 갈 수 있는 그 곳에서 나를 부르네
힘과 노력을 기울여 후손을 키워 내가 합당함을 증명해 보이리

이 영원한 여정에 동반자를 주시며 감사하네
조상과 출생과 목적이 나와 같네
그 꺾이지 않는 신앙과 충성심이

역경과 인생의 거룩한 목적

로널드 이 포울맨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과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격려와 위안을 받습니다.”



예 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이란 우리의 생의 목적이며 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을 추구한다면 행복은 바로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될 것입니다.”(요셉 스미스, *교회사* 5:134~135) 그 길에는 종종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곤경과 시험과 고난이 따릅니다.

역경 혹은 우리가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모든 개인의 생활에 각기 다른 시기에 여러 가지 형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역경은 하나님의 율법을 의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진지하게 배우고 노력하는 의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치러야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많지 않으나, 주님께서 밝혀 주신 몇 가지를 고려해 보도록 합시다.

순종심 있고 충실한 사람들의 삶에서 겪는 역경은 질병, 사고, 무지 혹은 우리를 적대하는 자들의 영향으로부터 올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보존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이 때로 다른 사람들의 사악한 행위의 결과로 고통을 받게 하셨습니다. (니파이일서 18:16 참조)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무죄한 고통에 반항, 분노, 슬픔, 의심 혹은 두려움으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니파이일서 17:20) 거룩한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과 간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신앙과 인내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립보서 4:7)으로 인한 평온한 확신으로 반응을 보입니다.

전세에서 우리에게 제안되고 우리가 수락한 구원의 계획에는 우리가 이생에서 상반되는 것을 경험하고, 선택을 하며 그것에 관한 결과를 배우며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시험의 시기가 포함됩니다. 역경을 겪는 것은 이러한 과정의 필수 요소입니다.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오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니파이일서 2:11~16 참조)

구세주께서는 스스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습니다. (히브리서 5:8) 고금의 예언자와 사도들은 그들의 생애동안 그들의 부름과 관련된 시련은

어둠을 밝히며 나에게 참을 용기를 주네

나에 대한 그 믿음이 내가 합당케

되는 영감이 되게 하소서

순결한 부모되는 권세에 감사하네

자신을 부인하며 희생을 통해 부모와

자녀간에 사랑을 갖게하네

모든 자녀 우리를 믿으니 주님께

감사드리리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 나는

합당해야 함을 아네

들어올려 주는 당신 아들의 복음의

권세에 감사하네

그것은 미와 진리와 합당함이네

약속된 영광을 얻기 위해 끝까지 참기

원하네

그리하여 용서받을 때 사랑이 내가

합당함을 알게 해 주는 열쇠가 되게

하리

(“영원한 친구” 13페이지)

내가 바라고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합당하게 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합당성을

평가받는 데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의

합당성을 알아보는 데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합당성을 평가할 때 더 이상

자신에게 제한을 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개인적으로 크게 발전하는 데

합당하게 해주는 힘과 권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제하고 자신이 합당치 못하다고

판단하길 그치고 새로운 결심과 노력으로

발전하고 진보하길 원하는 사람에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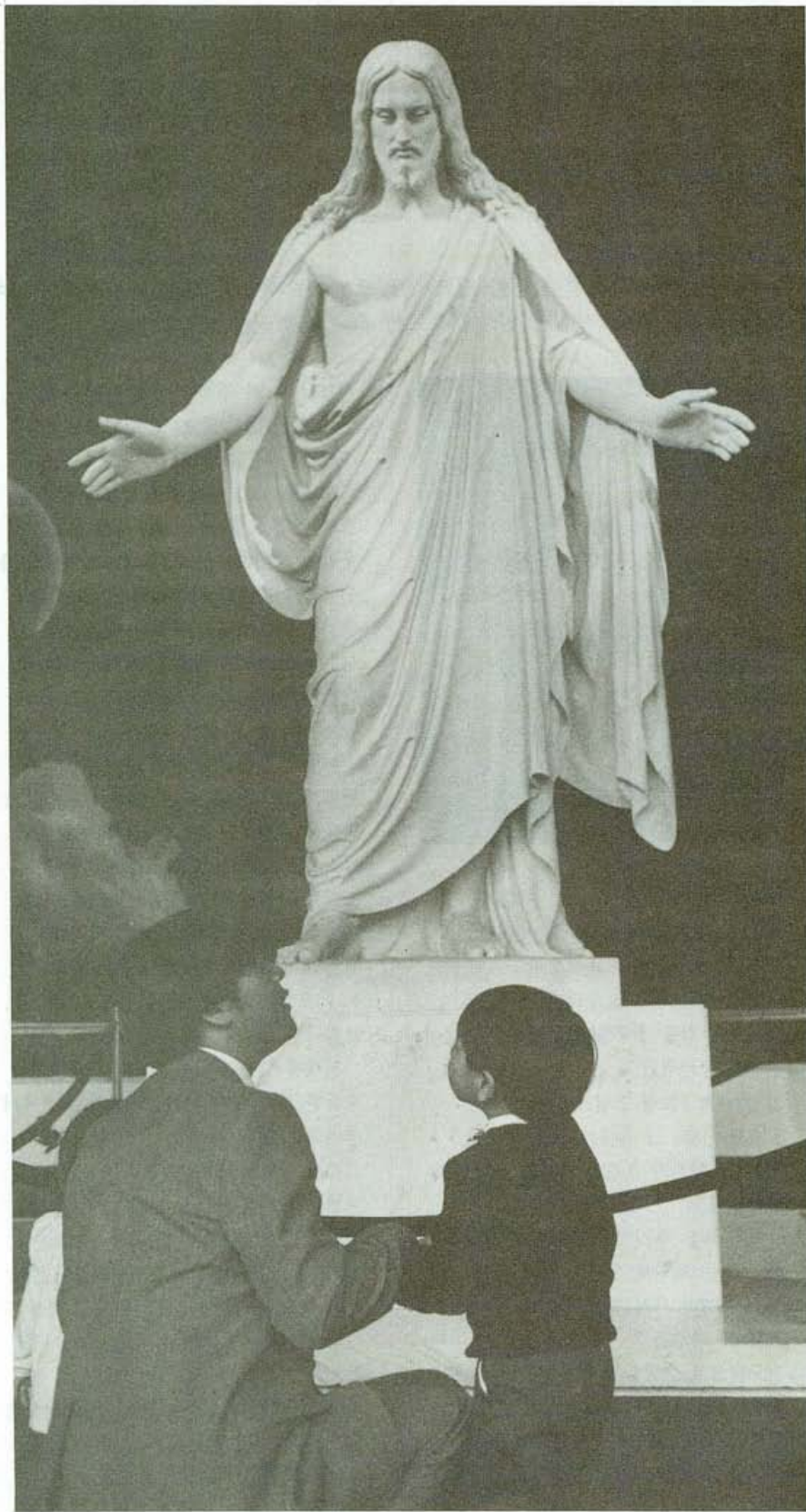
주어지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나의 사랑과 축복

그리고 이러한 진리에 대한 간증을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물론 역경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아무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로마서 8:28)고 가르쳤습니다. 비슷한 말로 예언자 리하이이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같은 말로 확신시켰습니다. “야곱아...네가 어릴 때 [다른 사람들]이 횡포함에 고난과 슬픔을 겪었으나, 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나니, 하나님께서 너의 고난을 성별하사 너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매”(니파이이서 2:1~2)

그렇다면 우리는 생에서 부당하게 받은 역경에 어떻게 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고난과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여 구세주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가까이 가며 승영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 경전에 있는 몇 가지 예와 행동의 표본을 제시하겠습니다.

모사이야의 아들들은 선교 사업을 하던 중에 “많은 고난을 겪었으니, ...심신의 고통이 컸으며, 영적으로도 많은 피로움을”(엘마서 17:5) 받았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하여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으로 복음을 연구한 자들인지라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강하게 뭉쳐졌”으며 “그뿐 아니라 열심으로 금식하고 기도하여 예언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엘마서 17:2~3 참조) 그들은 역경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힐라멘의 아들 니파이의 시대에는 “검소한 백성이 고난을 겪으며 크게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여 “검소한 중에 더욱 강하게 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신앙이 날로 굳건하여져서, 위안과 기쁨으로 가득하여졌”습니다. (힐라멘서 3:34~35 참조)

이들의 예를 통하여 우리는 부당한 역경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몇 가지 길을 배우게 됩니다.

저들이 한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기록하신 도움을 간구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켰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으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14-16 참조)

구세주께서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온갖 시험을 [당하시고]…인간의 질병과 고통을 [대신하셨으며]…그들의 연약함을 [취하심으로]…육신을 입은 인간들의 연약함을 육신을 가지고 구해 내는 길을 아시려” 하셨습니다. (엘마서 7:11-12 참조) 그러므로 우리는 앰블레크의 다음의 권고에 따라야 합니다. “너희의 복리와 너희 이웃의 복리를 위해 끊임없이 주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라” (엘마서 34:27)

다음으로 우리는 매일 경전을 공부할 때 기도를 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경전을 읽음으로써 영생을 이해하게 되며 우리는 우리의 본체와 이 생의 경험의 참 목적 그리고 누가 우리를 이곳에 보냈는지를 상기하게 될 것입니다. 성스러운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거듭 재확인되었습니다. 매일 경전을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맺은 성약을 그분이 약속하신 축복을 계속해서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침례 성약을 이행함에 따라,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하기를 원하며” (모사이야서 18:8) 우리 자신의 짐도 가벼워집니다. 우리는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며” (모사이야서 18:9) 우리도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모사이야서 18:9) 되면 우리는 그분의 대속의 사랑을 느끼며, 영생의 관점에서 현재 우리 상황을 좀더 명확히 바라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림으로써 구세주의 다음의 권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음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28-30)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의 짐을 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때 자신을 잊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인내 또한 우리가 역경에 대처하는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모사이야의 아들 암몬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낙담하여 돌아가려 [포기하려] 하였을 때,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라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고난을 인내로 극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성공을 허가하리라 하셨으니” (엘마서 26:27)

우리 시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 마음에 위로를 얻으라. 참으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기 있게 주를 받들지어다.…”

너희에게 고난을 겪게 한 모든 일은 합동하여 도리어 너희에게 유익이 되고…” (교성 98:1-3)

아무리 부당하게 주어진 역경일지라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얻어지는 유익과 축복에 대하여 거듭 확신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증거와 위대한 일들의 증거는 때때로 신앙을 시험받은 후에 나타납니다. (이더서 12:6; 니파이삼서 26:7-9 참조) 영적인 정화는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실현될 수도 있습니다. (니파이일서 20:10 참조)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도록 준비를 갖추게 됩니다.

현대의 계시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성결케 되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이르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자기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시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보여 주시리라” (교성 88:68)

고대의 예언자들은 우리에게 “제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저를 볼 것임에, 하나님께서 순결하신 것같이 우리가 순결하게 되도록 할지어다” (모로나이서 7:48; 요한일서 3:2)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주님 자신의 방법에는 그분이 그러하시듯이 우리가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정으로…제물을” 바치도록 고난의 용광로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실하며, 이의 약속된 보상은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얻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교성 59:8, 23)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면전으로 돌아가 충만함, 즉 영생을 얻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 역경이 없이 우리는 이 생의 거룩한 목적을 잇고 세상의 일시적인 일에 치중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역경을 겪고 고통받기를 찾아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적절히 이런 역경을 피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역경에서 구제받도록 도움을 청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도움을 청하되 언제나 “나의 원대로 마음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라고 하신 구세주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감당치 못할 시험은 당하지 않으며 우리의 역경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며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자원과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격려와 위안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0:13 참조) 물론경에서도 또 다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아빈아다이의 영적인 가르침은 침례의 기약을 맺고 온전하게 복음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쟁이 없고, 서로 뭉쳐 사랑으로 결속되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며 세상적인 일이나 영적인 일에 서로 도왔습니다. 저들은 근면하고 화목함으로써

변창하였습니다. 참으로 저들은 받을 이유가 없었으나, 더욱더 영적인 성장을 위해 역경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경전에는 계속해서 다음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저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시니라”(모사이사서 23 : 21)

그들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이 충실한 백성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은 아마도 짐을 가볍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주님께 도움을 간구했습니다. 그들의 간구에 응하시어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도움을 주실 것을 확신시켰습니다. (모사이사서 24 : 13~14) 그런 뒤 주님께서는 그들을 강하게 하시어 “쉽게 짐을 지게 하시며 즐거움으로 참을성 있게 주의 뜻에 복종하게”(모사이사서 24 : 15)

하셨습니다. 드디어 저들은 신앙과 인내로 인하여 역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더욱 정화되고 증진된 신앙으로 “(그들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사이사서 24 : 16~22 참조)

니파이 문화의 말기에 예언자 몰몬은 그의 아들 모로나이에게 무고한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던 원인이 된 사악함, 잔인성, 그리고 비행에 관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의 교훈과 위안의 말씀을 첨가하였습니다.

“나의 아들이,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믿으라. 또한 내가 기록한 것으로 인하여 슬퍼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며, 그리스도께서 너를 들어 올리사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자비하심과...그의 영광과 영생의 소망이 영원히 네 마음에 깃들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노라”(모로나이서 9 : 25~26) 이것은 또한 우리 각자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해 드리는 나의 기도입니다. 아멘.

토요일 오후 모임

예언자를 따름

글렌 엘 페이스 장로
관리 감독단 제1보좌

“예언자는 여론의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가를 보기 위해 깃발을 들고 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어느 날 나의 아들 중 한 명이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할 때, 나는 그가 신발끈을 묶는 것을 잊었음을 알았습니다. 순간 나는 일주일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게 될 일을 저지르려고 했지만, 감사하게도 그냥 놔두었습니다. 며칠 후 우리가 학교 행사에 갔을 때, 놀랍게도 나는 학생 모두가 신발끈을 묶지 않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야 나는 아들이 학교의 일시적인 유행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두와 장갑 또는 방한용 귀덮개를 착용하고 학교에 가는 것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린 것이 그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회의 일시적인 유행과 관습의 노예가 됩니다. 어떤 것은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습지만 해롭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우리의 육체나 정신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해의 왕국에 이르는 최단 거리는 직선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그 여행을 가능한 평탄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진리와 인도를 담고 있는 그분의 복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전을 읽고 주님의 살아계신 예언자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불필요하게 우회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지나간 경륜의 시대에 예언자들에 의해 가르쳐지고 현대의 예언자들에 의해 재 확인된 전통적인 가치를 고수하자, 타락해가는 사회의 손가락질이 규칙적으로 우리를 겨냥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난의 말을 듣지 않고 하루를 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나는 세 종류의 비난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가 약한 쪽부터 열거하면 (1)비회원, (2)전 회원, (3)전 회원의 순입니다.

책임감 있는 비회원의 놀림과 비판은 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비회원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그들에게는 우리가 좀 이상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지금 처음으로 몰몬 사회에 들어와 금판과 모로나이라는 이름의 천사와 죽은자를 위한 침례에 관한 말씀을 듣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영원한 가족”이라는 스티커를 붙인 찌그러진 스테이션 왜곤차 안에 아홉 명의 자녀와 이들에 둘러싸여 있는 부모를 처음 보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가는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테이크 건물입니다. 우리는 비회원에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나는 회원들에게 마음을 편히하고 쾌활해지며, 상냥하고, 성을 내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복음이 성스럽고 엄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자신을 조금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유우며 감각, 특히 우리 자신에 대한 유우며 감각을 개발할 가치가 있습니다.

비회원으로부터 받는 다른 비평은 조금 더 고통스럽습니다. 비평은 우리가 그것을 받을 만할 때 우리를 가장 상하게 합니다. 교회 회원 중에는 그들이

가르침을 받은 대로 생활하지 않는 활동 회원들이 약간 있습니다. 그들은 우월감으로 남을 환대하거나 아량이 없다거나 혹은 고립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성은 두번째로 가장 큰 계명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는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들 모두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를 가려서 친구를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근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친구가 첫번째 토론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가에 따라 우정이 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얼마나 자신을 도둑질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비회원이 하는 대부분의 고통스런 비판을 소거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부류의 비판자는 교회와 인연을 끊고 악덕하고 비열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일에 사로잡혀 있는 이전의 회원입니다. 대부분의 회원과 비회원들은 이러한 공격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스럽게 지니고 있는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에게서 어떤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공격에 심경을 어지럽히는 사람은 부지중에 자신의 본성을 들어내는 것이거나 또는 주관에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 회원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공격을 받을 때 소름이 끼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것은 우리가 다른 종파의 성스러운 믿음을 경시하지 않도록

주위를 환기시키며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성스러운 믿음을 공격하는 것에서 나아가 어떤 이전 회원은 형제들에 대한 악담을 합니다. 요셉 스미스는 그 당시에 배교자들로부터 이러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주신 주님의 계시는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걷어차는 자는 모두 저주받을 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또 내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내 보기에 합당한 일과 내가 명한 일은 행하였음에도 죄를 범하였다 부르짖는 자들은 모두 저주 받을 지어다.

죄를 범하였다 부르짖는 자들이 도리어 죄의 종이고, 불순종의 자식들이므로 죄를 범하느니라”(교성 121:16~17)

역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떠날 수는 있지만, 교회를 홀로 둘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기본 원리는 간단합니다. 일단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중립적인 위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악의 속삭임을 듣는 것 만으로 교회에서 떠나게 되는 것으로 사탄의 목표가 달성된 것이 아니고 그가 공공연하게 교회를 배척하도록 할 때 이루어집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마지막 부류의 비판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합니다. 이 비판은 비회원이나 이전 회원으로부터 오는 것보다 더욱 치명적입니다. 회원의 비판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중의 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원이 비판을 하도록 부추기는 것 중의 하나는 부적절한 지성주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고 찾는 것이 모든 말일성도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새로운 미지의 것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데에 더 만족을 얻습니다. 나에게서는 성령의 증거를 받아들이고 그에 의존해서 살려는 대신 모든 신학적 이론을 파헤쳐 보려고 지금까지 그들의 인생을 허비해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지성만으로는 찾아낼 수 없는 아름다운 진리의 보고를 스스로 잃고 있습니다.

파우스트 장로는 이러한 형태의 지식인을 “버스를 타고난 후에도 계속 버스를 쫓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버스가 시야를 벗어난 뒤 유한한 지식으로 무한의 것을 해석하려고 노력하며 영원히 낙오되기 전에 버스에 오르기를 권장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가 어느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라]”(열왕기상 18:21)

때때로 부적절한 지성주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지만 형제들이 좀 벗어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경향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그 존재에 대해 모르는 것으로 혼동하지 마십시오. 이 형제들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살전 5:21) 취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그들은 아 지구를 창조하시고 세상의 시종을 아시는 그분과 계속 접촉을 해야 합니다.

우리 회원 중에는 선택해서 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언자는 우리가 마음대로 골라서 취할 수 있는 진리의 식단을 전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원은 비판적이 되며 예언자에게 식단표를 바꾸도록 제안하기도 합니다. 예언자는 여론의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가를 보기 위해 깃발을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 보다 여론에 굴복하여 회원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 현신하는 타락한 교회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1831년 일부의 개종자들은 그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을 교회로 돌려 오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사회적인 추세와 이 추세에 따르는 조롱과 비난에 매우 약해서 그에

타협하도록 교회의 입장을 바꾸기를 원하는 회원들로 인한 것입니다. 담장 밖의 교리적 잔디는 그들에게 매우 푸르게 보입니다.

1831년에 주님께서 주신 권고는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들은 진리를 알기 원하나 부분적으로요, 전부를 원하지 아니하나니, 저들이 내 앞에 옹기 아니하며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니라”(교성 49:2)

우리는 모든 진리를 모두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신 감주”(에베소서 6:11)를 입고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일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는 이렇게 자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날 때가 찬 경륜의 시대에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헌하는가?”

나는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내가 무척 공감했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해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만일 아담의 시대에 살았다면 가인을 구했을 것이며, 내가 만일 노아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의 모든 개종자를 태우기 위해 더 큰 방주를 만들었을 것이고, 만일 모세의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20년으로 줄였을 것이며, 요셉 스미스와 같이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쯤 잭슨군에 살면서 협동 교단을 실행했을 것이라는 상상이었습니다. 나는 아주 멋진 상상을 했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또 다른 상상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고 있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이 그 상상을 밀쳐냈습니다. “내가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위해 죽었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판장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에 의해 격파당했으며 마음을 새롭게 고쳤습니다.

왜 우리는 옛 예언자를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쉽다고 종종 생각합니까? 그것은 부분적으로는 역사가 그들의 권고를 참된 것으로 증명해 왔기



여러 음성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스러운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학위와 이성이 계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입니다.”

때문입니다. 미래의 세대 역시 현대의 예언자의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관리 감독단으로서 우리는 예언자, 선견자요, 계시자인 분들과 가까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영적, 육체적인 면을 지켜본 입장에서, 나는 그들이 “인간에게 불사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모세서 1:39) 주님의 목적을 지지하는 일 외에는 어떤 욕망과 목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매우 지성적인 분들이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있는 회원들이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문제를 이해하고 사회의 주 관심사나 경향을 등한시하지도 않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은 하나님의 예언자시며 구세주의 특별한 증인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분께서 우리를 관리하시는 이 종들을 한 분 한 분 다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 중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간증에 의존하도록 남겨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가 개인적인 간증을 얻고 그에 따라 이 형제님들을 따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지난 여름 와이오밍주에서 열린 개척자 퍼레이드에서 나는 어린 망아지 한마리가 어미로부터 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길 잃은 어린 새끼는 킁킁거리고 총총 걸어나면서 수많은 소리 중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어미의 걸음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음성을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때에 나는 이동하는 양떼에서 떨어져 길을 잃은 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양떼로부터 수없이 많은 음성이 들려왔지만 각 양들은 자기를 인도해 줄 수 있는 한 음성만을 들읍니다. 구세주께서는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이 예를 선한 목자의 비유로 사용하셨습니다. “양은 그의 음성을 들이니...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요한복음 10:3~5)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듣는 많은 음성 중에서 우리를 하늘의 가정으로 인도하려고 부르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아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 없는 소리는 없나니”(고린도전서 14:10)

어떤 음성은 세상의 것들을 말하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이들 음성에 대해 더 이상의 예는 들지 않겠습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계명, 그리고 그분의 교회의 교리와 의식 및 운영에 대해 이야기하는 음성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갖고 말씀하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할 부름을 받고 거룩한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여러 음성”이라고 부르기로 한 다른 사람들은 부름이나 권능이 없이 이러한 주제에 관해 말을 합니다.

내가 총관리 역원의 부름을 받은 지난 5년 동안, 나는 교회의 지도자와 회원들이 이 여러 음성으로 인해 곤란을 겪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그 중에는 교회의 여러 음성에 대한 관계에 대하여 혼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결과적으로 회원들은 개인적인 선택을 하는데 있어서 잘못



철심인 제일 정원회의 렉스 시 리브 장로, 칼로스 이 에시 장로, 에프버튼 하워드 장로

인도될 수 있고 따라서 주님의 사업이 장애를 겪어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음성 중에는 단순히 그들의 형제와 자매에게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 시온의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자 노력하는 훌륭한 동기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노력은 주님의 종들이 매사에 명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으며, “오로지 훌륭한 대업에 힘써 노력하며 자신의 자유 의사로서 많은 일을 행하며 많은 의를 이룩해야 하느니라”(교성 58 : 27)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에 적합합니다.

어떤 여러 음성은 재물, 자만, 저명해짐, 혹은 권력과 같은 이기적인 관심사를 추구합니다. 어떤 음성은 목자(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 그의 인도함이 없이 길을 찾거나 총총 걸어다니는 길 잃은 영들이 울부짖는 소리입니다. 이들 중 어떤 음성은 다른 사람을 인도하겠다고 외칩니다. 길 잃은 자가 길 잃은 자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여러 음성은 그들의 공공연한 혹은 은밀한 목적이 양떼를 속여 집어 삼키려는 사람들의 것 입니다. 전한 목자는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마태복음 7 : 15; 니파이삼서 14 : 15) 성경과 물몬경에서 구세주께서는 그의 목자들에게 그러한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 : 28~29; 엘마서 5 : 59 참조)

그 목적이나 효과를 속이기 위한 여러 음성이 항상 있어왔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예언자 리하이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범사에서 서로 상대가 되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하니”(니파이이서 2 : 11) 그리고 그 목적과 효과가 이타적이며 유익한 여러 음성도 항상 있어왔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여러 음성들은 교회가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과 같은 전달 방법으로 전해집니다.

교회에는 잡지 및 기타 공식 서적, 신문, 지도자의 서한, 연차 대회 및 단위 조직에서 갖는 정규적인 모임과 대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잡지, 신문, 강의, 심포지움 및 대회에서 여러 음성을 듣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러한 여러 음성으로부터 회원들을 분리시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의 방법은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권고대로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고 회원들이 개인적인 선택에 의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도록 맡겨두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의 음성이고 어떤 것이 아닌지를 지적할 책임을 분명히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여러 음성이 고의적으로 혹은 우연히 교회가 후원하거나 인가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같은 이유로 교회는 전체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교회의 공식 활동에서 출판되거나 사용되기 위한 출판물들을 인가하거나 인가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를들면,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발행되거나 교회 공과에서 지침으로 사용될 자료들이 승인된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다소 느리고 귀찮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잇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회원들이 그들이 듣는 진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자질 관리를 제공합니다. 교회의 음성을 듣는 회원은 그들이 잘못 인도될까봐 경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음성”으로부터 듣는 것에 대해서는 교회의 말씀처럼 그렇게 확신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지역 지도자들은 또한 그들이 교사나 연사로서 부름을 주는 회원들의 영적인 자질은 물론 공과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이나 예배 모임에서 주어지는 내용을 검토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교회의 정설이 아닌 가르침을 승인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또는 자신의 직책이나 명성을 복음 진리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교사들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가끔 어떤 교리, 의식, 혹은 교회 운영에 관한 토론이나 심포지움에 교회의 입장을 설명하도록 초대받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발표는 반대편의 입장과 맞부딪쳐 발생하는 결과가 무엇이건 청중에게 잇점을 줍니다. 사업 조직의 대표, 정치 정당의

대표, 혹은 사회 활동 단체 대표들은 상반되는 관점들의 상충에 의한 결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면서 자기 단체의 입장을 외부인들 앞에서 토론하도록 초대되는 것을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논쟁이나 말다툼을 피하도록 지시를 받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 회원들이 교회의 입장에 대한 정보를 그들에게 가져다 주려는 여러 음성의 후원에 눈을 돌리도록 조장하는 원치않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자유로이 자신이 선택하여 모든 여러 음성에 참여하거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공식적인 참여를 피해야 합니다.

교회의 교리, 의식, 또는 집회 절차를 토론하는 장소에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데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의 입장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지식이 결여됨으로 인해 결정적으로 부정확하거나 불공평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원자가 앞으로 나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교회의 입장으로 발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이러한 지원자들은 교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능력이 있어 균형있는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그렇지 못해 사태를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릇된 공격을 받을 때는 잘못된 논쟁을 하는 것 보다 침묵을 지키는 편이 유리합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지원자는 교회에 이롭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교회 지도자가 교회나 교회의 교리가 토론되는 모임에 참여하지 않아야 하겠다고 느끼는 한, 그 전체적인 발표는 불완전하며 공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 교회가 침묵을 지키는 것이 그 모임에서 주장된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교회의 각 회원도 역시 그러한 모임에 참여했을 때 어려운 질문에 봉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초청된 모임이 단일 주제에 관한 출판물이나 강의에 연관되지

않고 어떤 일단의 기사, 어떤 연간 출판물, 혹은 여러가지 주제를 다루는 대회나 심포지움일 경우에는 질문이 더욱 복잡합니다. 어떤 기사 혹은 어떤 출판물에 관한 논쟁이나 대회의 한 모임은 교훈이 되고 정신을 함양하는 충실한 말일성도가 지지하거나 즐거기를 원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사나 모임은 파괴적이며, 충실한 말일성도는 기꺼이 지지하고 후원하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복잡한 결정의 일부는 선과 악이 혼합된 것입니다. 인간이 원하는 어떤 좋은 것이 동시에 그가 원치않는 나쁜 것을 촉진시킴으로써만 행해질 수 있다면 그는 어느 범위까지 좋은 것의 잇점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까? 이것은 개인이 결정해야 하겠지만, 전체의 상황을 현명하게 검토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간구함으로써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충실한 말일성도가 그어야할 선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견해로는 성전에서 성약을 맺은

사람은 비록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다 할지라도 성전 의식에 대해 발표하거나 토론하는 자료를 지원하거나 조장할 수 있는 영향을 주어서는 안됩니다. 나는 내가 성스럽게 지키기로 성약한 것에 관한 공개 토론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원하던가 내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말일성도들이 여러 다른 음성에 대한 개인적인 관계를 심사 숙고할 때에, 우리가 지식, 특히 성스러운 것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는 과정을 깊이 생각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현대의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연구와 신앙으로써 학문을 구하라"(교성 109:7)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이 축적되어 있는 지혜를 연구하고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분별력을 사용하여 학문을 탐구합니다.

우리는 또한 계시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학문을 구해야 합니다. 나는 과학과 예술의 위대한 발견 및 성취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의해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 홀. 대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참가자들에게 좌석을 마련해 주기 위해 사용되는 많은 건물 중의 하나이다.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땀흘려 댓가를 치른 탐구자는 영감으로 보상받아왔습니다.

게시에 의해 주어지는 지식은 과학과 예술 분야의 연구자에게는 특별 보너스가 되지만, 하나님과 그의 복음 교리를 추구하는 자에게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이 분야의 지식에는 학위나 이성으로서는 불충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구도자는 계시에 의존해야 합니다. 나는 물론경에서 예언자의 다음 말씀을 이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고를 따를진대, 학식을 얻음이 유익할 것이나”(니파이이서 9:29) 구세주의 다음 말씀도 이것을 가르치는 것임이 확실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복음 16:17)

계시로 향한 길은 의로움입니다. 구세주의 가르침에 놀라, 그의 적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할인지 알리라”(요한복음 7:15~17)

물론경을 열심히 구하는 자는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성신의 능력으로...알려질 것이요”(니파이일서 10:19; 고린도전서 2:14~16;

엘마서 18:35; 교성 121:26 참조)라고 가르칩니다. 예언자 야곱은 인간이 영감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선포했습니다. “주께서 계시하여 보이시기 전에는 주의 뜻을 인간들이 알 길이 없는지라. 형제들아 하나님의 계시를 가법게 보지 말지니라.”(야곱서 4:8)

주님께서 설명해주신 성스러운 지식을 얻는 방법은 연구에 의해서만 학문을

습득하는 사람들의 방법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세상적인 학문에서 빈번한 수법은 논쟁 혹은 상반되는 토론이며, 이 방법에는 나도 상당한 개인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고대 및 현대의 경전에서 그의 교리의 여러 가지 점에 대해 분쟁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니파이삼서 11:28~30; 교성 10:63 참조)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은 “성내거나 다투지 말고”(교성 60:14; 디모테후서 2:23~25 참조), “은유하고 겸허”(교성 38:41)하게, “욕하는 자를 욕하지 말고”(교성 19:30) 가르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이점을 찾고 애써 타협안을 찾으려는 가르침은 복음의 지식을 얻는데 효과적이지 못합니다. 복음 진리와 간증은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연구하고 숙고함으로써 성신을 통해 받게됩니다.

경전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을 통해 배우는 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해지고, 신앙을 연마하며, 죄를 회개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이더서 12:17; 교성 1:28, 50:8, 12:8, 63:23, 136:32~33 참조) 물론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참으로 회개하고 신앙으로 생활하며 선행하고 쉬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만 주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알게 하시나니”(엘마서 26:22)

나는 계시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인식하려하지 않고 이성만을 이용하여 복음이나 교회를 이해하려 하거나 혹은 비판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을 보아 왔습니다. 이성이 복음을 판단하는 유일한 또는 더 나아가 제1의 방법으로 채택된다면, 그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받아 들이기 위하여 그분께서 규정하신 방법의 문을 닫고서는 하나님을 찾거나 그분의 교리와 의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진리와 의식이 권능을 소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부인하는 학자들에 의해 해석되고 지원되도록 남겨졌을 때 부패하고 소실된 이유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구세주께서 비판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세주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있는 예언자들은 배척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기념비를 위선적으로 세우는 무리와 대면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47~49 참조) 내가 이해하기로는 그들이 계시를 거부하는 것에 대한 비난으로 구세주께서는 세상적인 학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누가복음 11:52)

회복된 교회의 초기 지도자들도 그와 같은 진리를 배워야 했습니다. 몇번의 계시에서 주님께서는 요셉 스미스와 데이비드 휘트머 등에게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에 두지 않고 “인간의 설득”(교성 3:6, 5:21)에 넘어가거나 “내가 명령하지 않은 사람에게 설득당해 왔도다”(교성 30:1~2)라며 힐책하셨습니다.

성스러운 지식을 받는 데 있어서 연구와 신앙의 올바른 관계는 올리버 카우드리가 고대 기록을 번역하려 할 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지도 아니하고”(교성 9:7) 하나님께 구하기만 했으므로 실패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마음 속으로 깊이 연구”한 후에 그것이 옳은 일인지 간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연후에만 주님께서는 그 번역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를 밝히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후에만 물론경이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지 아니하면 너는 거룩한 것을 기록할 수 없느니라”(교성 9:9)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지식을 얻는 데 있어서 학위와 이성이 계시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며, 목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께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지식 위에 지식을
받아 기쁨을 얻을 것이요, 영생을 가져다
주는 비밀과 평화로운 것을 알 수 있게
되리라"(교성 42 : 61)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날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지식의 폭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를 위한 그의 계획에 대해서는 그와
비교할만한 지식의 폭발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학위나 기술이 아니라
의로움과 계시입니다.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니라"(이사야 11 : 9; 니파이서
21 : 9)고 한 말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영감받은 어조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주님께서 "말일성도의 머리 위에
하늘에서 지식을 쏟아"(교성 121 : 33)
부으신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마음이 지나치게 이 세상 것에 얽매어
있고 인간의 영예를 갈구"(교성
121 : 35)하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의의 원칙"(교성 121 : 36)을
배우고 사용하는 데 실패한 사람은 권능
있는 자들을 걷어차며, "성도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교성 38)
싸우는 자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주님께서서는 충실한 자들에게 다음의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신권의 교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처럼 네 영육을 적시리라.

성신은 변치 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흠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흠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 흘러
들어가리라"(교성 121 : 45~46)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토요일 오후 모임

성신의 은사-확실한 나침반

제임즈 이 파우스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신의 영은 이 불안한 세상에서 내적인 평화를 위한 가장 위대한 보증인이
됩니다. ... 그것은 신경을 안정시켜 주며, 우리의 영혼에 화평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나 는 대회 이 모임에서 취해진
역사적인 행동을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총관리 역원에
속하게 된 새로운 칠십인들을
환영합니다.

헌터 회장이 오늘 아침 말씀하셨듯이
때는 북반구의 봄입니다. 만물이
생동하고 있습니다. 잔디가 자라며,
잎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수
나무에는 꽃봉오리가 맺고 있으며,
양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꽃들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축하했으며 구세주께서 사망의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신 것을 모든 기독교인과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그 오랜 세기 전에 구세주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시간을
위하여 그분이 선택하신 갯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던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앞에
놓여 있는 커다란 고통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이
번민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막 14 : 34)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뇌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마가복음 14 : 38)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한 사도는 기이한 일이 일어날 것을
느끼고는 있었으나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게 될
것을 말씀했고, 사도들은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주께서 어디론가 가실
것을 알았으나 그 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요한복음 14 : 18)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한복음 14 : 26)

내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보혜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날은 어느 때 보다도
우리의 생애에 주님의 인도가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나는 우리의 삶에
행복과 화평을 가져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성신의 권세와 은사로 알 수 있다고

간증드리고 싶습니다.

리그랜드 리차즈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신이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의 인간들의 교통을 돕는 매개체임을 알아야 한다.”(기이한 업적, 98페이지) 모든 인간은 때때로 양심이라고 불리어지는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빛에 의해 가르침을 받습니다. 욥은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욥기 32 : 8)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능은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이 말씀했듯이 “이 영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교화되고 선한 자 뿐만 아니라 악한자, 예지 있는 자와 무지한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등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빛을”(복음교리, 57페이지 : 교성 88 : 3~13 참조) 받아들이는 방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달리, 성신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신의 영향은 성신의 은사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제한됩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성신과 성신의 은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187페이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밖의 많은 사람들도 복음의 참됨을 확신시켜 주는 성신의 계시를 받습니다. 오순절에 참석한 많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고넬료는 침례를 받기 전에 성신을 받았습니. 구도자들이 물론경과 복음 원리에 대한 간증을 얻는 것은 이 권능을 통해서 입니다.

성신의 은사는 회개하여 합당하게 된 이후에 주어집니다. 이것은 침례 후에 권능을 가진 자의 안수에 의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베드로는 성신에 의해 영적으로 감동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사도행전 2 : 38) 성신의 은사를 소유한 자들은 더 큰 빛과 간증을

받게 됩니다. 성신은 진리를 증거하며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를 깊게 심어주어 세상의 어떤 권능과 권세도 그러한 지식으로부터 그를 떨어지지 않게 합니다. (니파이서 31 : 18 참조)

물론경과 성경 및 그의 경전은 현대 예언자의 인도와 더불어 참다운 행동

규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성신의 은사는 신뢰할 수 있는 안내자로서, 양심의 음성으로서 그리고 도덕의 나침반으로서 주어집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이 나침반은 개별적으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실수하지 않으며, 실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행과 자신감의 결여로



대회장에 들어가기 위해 태버나클 앞에 줄을 서 있는 방문자들



끌고갈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그것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성과 명예, 정직과 합당성 그리고 예절을 지탱하는 데 도움을 줬었던 많은 표준과 가치관, 서약 그리고 의무가 조금씩 조금씩 침해되고 버림받아 왔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나침반이 필요합니다. 나는 여러 가치관 가운데서 순결의 표준, 부모 공경, 결혼 서약 및 완전히 파기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약화돼 오고 있는 안식일의 법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관해 말씀드립니다. 사회는 잘못 인도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알 로완은 텔레비전의 표준이 낮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자이며 해설가인 맬콤 머저리지는 산채로 가마솥에서 아무런 저항없이 삶아져서 죽은 어떤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저항하지 않았을까요? 개구리들이 가마솥에 들어갔을 때에는 물이 미지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 온도가 아주 서서히 올라가고, 물은 조금씩 조금씩 데워졌습니다. 온도의 변화가 거의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점진적이었기 때문에 개구리는 너무 늦게 될 때까지

새로운 환경에 동조했습니다. 머저리씨가 지적한 것은 개구리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들과 악이 우리에게 갑자기 밀어닥치는 충격적인 것이 아닌 한 어떻게 우리가 악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부도덕한 것도 그것이 전에 이미 맞아들인 것 보다 더 나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로완, 내셔널 프레스 클럽 포럼)

이 점진적인 과정은 고대 예언자들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니파이의 우리에게 [사탄이] 인간의 자녀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켜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육육의 안식처를 쫓게 하며 이르기를, 시온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 참으로 시온은 번성하며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하리니 이같이 악마가 저들의 영혼을 속여 조심스럽게 저들을 지옥으로 인도해 가느니라”(니파이서 28 : 20~21)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항상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지옥으로 인도되어 가는 것이 흥미롭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알렉산더 포우프는 악을 받아들이는 것에 관하여 비슷한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악이란 무서운 괴물 같아서 처음 볼 때는 미워하지만 보고 또 보면 낮이 익어서 처음엔 참고 그 다음은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엔 포옹을 한다. (“사람에 대한 수필”)

성신의 은사는 우리가 유혹을 받는 순간에 복음의 율법을 상기시킴으로써 그것을 물리치도록 돕습니다. 비 에이치 로버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혹의 순간에 성령을 안내자로 삼을 때 이 복음의 율법은 이룩될 것입니다.”(비 에이치 로버트, 복음 및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191~92페이지)

나는 젊은이들이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는 이 특별하고 초 현실적인 성신의 은사에 유의하기를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이 보혜사는 영적인 존재이며 신회의 일원입니다. 교리와 성약은 왜 성신이 영적인 존재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간이 가진 것과 같이 만져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나니, 아들도 그러하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이 없으시고 다만 영적 존재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느니라.”(교성 130 : 22)

성신의 은사는 “성신의 권세와 진리의 빛”(복음교리, 61페이지)을 갈망하고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성신의 위안의 영은 우리가 일할 때나 놀 때나 쉴 때나 24시간 우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강화시키는 그 영향은 일년 내내 우리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지탱시켜 주는 그 영향은 기쁨 때나 슬픔 때나 함께 있어서 그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습니다.

나는 성신의 영이 이 불안한 세상에서 내적인 평화를 위한 가장 위대한 보증인이 되심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화학 물질이나 지상의 어떤 물질보다

마음을 밝게 해주고 보다 큰 행복감을 갖게 해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을 안정시켜 주며, 우리의 영혼에 화평을 불어 넣을 것입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가 향상되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절박한 위협에 대해 경고해주며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계시의 근원이 될 수 있으며,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보며, 보다 예민하게 들으며,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도록 우리의 오관을 양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복을 최대로 해 줄 방편입니다.

성신의 영은 우리가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것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상처나 부정행위에 대한 기억에 의해 소모되기 보다 더 위대한 것을 찾아 전진해야 할 때가 옵니다. 언제나 과거의 상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자연적으로 성령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화평을 키워주지 못합니다.

성신은 또한 우리가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성신의 영은 하늘의 것을 증거하는 확신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영을 통해 인간의 마음 속에 강한 지식이 스며들며 모든 의심과

의문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로마서 14:17) 다른 곳에서 그는 참된 성도들은 “성령의 전”(고린도전서 6:19)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성신의 인봉과 확증의 권능인 약속의 성령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약속의 성령에 의해 성약을 맺거나 의식을 받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며, 이 약속을 통해 그 축복을 추구하는 자가 참되고 충실하면 그에 따르는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교성 76:50~54 참조)

예를 들면, 최고의 복음 의식인 현세와 영원을 위한 결혼 성약이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될 때, 그것은 문자 그대로 그러한 축복을 구하는 결혼한 부부에게 위대한 축복이 쏟아지도록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즐거움을 통해 그와 같은 결혼은 충만하고 온전해지며 성스럽게 될 것입니다. 결혼 당사자가 각각 별개의 개체를 지킬 수 있으면서도 그들의 성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서로 휘감아 떨어질 수 없게 된 두 그루의 포도나무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은

자신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동반자를 생각합니다.

약속의 성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위대한 축복 가운데 하나는 복음의 의식과 축복을 통하여 우리가 받은 모든 성약, 맹세, 서약 및 행해지는 의식들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성령에 의해 인봉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인봉은 불의에 의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속여서 인봉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축복 집행자의 고결성과 권능에 관계 없이 축복이 인봉되지”(조셉 필딩 스미스, 구원의 교리Ⅱ, 87페이지) 않음을 기억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약속의 성령에 의해 성약이나 의식을 인봉하는 것은 그 약속이 하늘과 땅에서 결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들이 필요한 사람들의 생활에서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듣는 것은 항상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고결하고 충실하지만 아무런 기적도 받지 못하고 바라는 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위안을 받습니까? 그들의 위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세상의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요한복음 14:18)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요한복음 14:26)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 성신의 은사란 그것을 요구하기에 합당한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더욱 위대한 지식과 기쁨을 받기 위한 고양된 영적 힘입니다.

1847년 2월 예언자 요셉이 꿈, 즉 시현으로 브리감 영에게 나타나서 그가 예언자에게 같이 있을 것을 간청하였던 놀라운 경험에서, 브리감 영은 혹시 요셉이 형제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언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충실하며, 주님의 영을 지니도록 하여 영이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시오. 주의를 기울여 조용하고 작은 음성에 귀기울이게 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이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 것인지를 가르칠 것입니다. 그것은 왕국의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그들의 가슴을 신앙 쪽으로 열려 있게 하여 성신이 그들에게 올 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게 하십시오.”

예언자는 브리감 영에게 다음과 같이 부언하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다른 영들로부터 주님의 영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에 화평과 기쁨을 속삭일 것이며, 그들의 가슴으로부터 악의와 증오와 투쟁과 모든 악을 몰아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선을 행하며 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가 되려는 소망으로 가득 할 것입니다. (브리감 영 역사 원고 : 1846~47, 역사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528~31페이지)

우리는 비록 시몬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리아, 마르다 등의 사람들처럼 구세주와 함께 살수 없더라도 성신의 은사가 우리의 보혜사며 확실한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신의 인도 아래 영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존엄성과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가 커지게 됨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또한 모든 사람이 다른 어떤 교제보다도 성신의 영을 동반하게 하고 싶다는 사실을 전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영에 의해 그들을 하나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빛과 진리와 순수한 예지로 인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며, “성신은 변치않는 네 동반자가 되며 네 홀은 의와 진리의 불변하는 홀이 되며 네 다스림은 영원한 다스림이 되어 강제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네게로 흘러 들어가”(교성 121 : 46)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벤슨 대관장에게 스카우트 상이 수여됨

토마스 에스 몬슨 대관장단 제2보좌 : 형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 미국 보이 스카우트 연맹 국제 이사사이며 전 미국 보이 스카우트 연맹 회장인 에드워드 시 줄리언 3세와 미국 보이 스카우트 국제 위원회 의장이시며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원이신 유진 에프 “버드” 라이드씨를 이 단상에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줄리언씨와 라이드씨는 모두 미국 보이 스카우트 전국 집행 위원회의 일원입니다.

또한 업무차 외국에 계신 미국 보이 스카우트 집행관 위원인 벤 에이취 러브씨를 대신하여 국내 공무 국장이신 줄리언 엘 다이크씨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여기에 참석하기 위해 먼 거리를 여행하셨으며, 우리는 그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이 세 분을 단상으로 올라오시도록 초대합니다.

나는 라이드씨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께 매우 중요한 상을 수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게 됨을 매우 큰 특권으로 생각합니다.

라이드씨 : 몬슨씨, 감사합니다.

전세계적으로 150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천 육백만명 이상의 스카우트 단원들이 있습니다. 스카우트 운동이 창설된 이후 80년 동안 약 이억 오천만 명의 스카우트 단원들이 그들의 사회에서 건설적인 몫을 담당하도록 젊은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돕기 위해 계획된 스카우트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아 왔습니다.

미국 보이 스카우트는 거의 사백만 명의 회원에 달하며 단일 조직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스카우트 협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동 늑대상은 세계 스카우트 운동의 창시자인 로버트 베이든

포웰에 의해 제정된 상이며,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에 의해 수여되는 유일한 국제적 상입니다. 이 상은 모국 및 국제적으로 탁월한 봉사를 한 개인에게 수여되도록 제정되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께 앞으로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 늑대 상의 표창장을 읽겠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대관장, 미국 보이 스카우트 고문 평의회 회원.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맨처음 스카우트에 부단장으로서 참여했고 이어서 스카우트 단장으로 봉사했으며 스카우트를 졸업할 때까지 여러 지역 및 국내 위원회와 평의회에서 성인 지도자로서의 여러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는 미국 보이 스카우트의 전국 집행 위원회와 전국 집행 평의회 및 이사회, 그리고 국제 위원회에서 두드러진 봉사를 해 오셨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대관장이신,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스카우트를 강력히 지지하도록 하는 데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오늘날 미국 스카우트의 가장 큰 후원자이며 다른 국가에서도 스카우트와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스카우트 위원회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에게 스카우트 운동에 두드러진 봉사를 한 공로로 동늑대상을 수여합니다.”

벤슨 대관장님, 여기에 증서와 표창장을 드립니다. 스카우트를 위한 대관장님의 지도력과 헌신과 업적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 상은 신중히 고려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음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나는 여러분이 각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압니다. 때로는 문제가 겹겹이 쌓이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혼자서 대하지 마십시오.”



나는 옳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합당하게 살고자 마음속에 생각하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감정을 늘 갖고자 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지상에 내려온 어느 세대보다 가장 훌륭한 세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잘 이해하여 생활에 적용한다면, 근본적으로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킬 진리를 전해 드리고자 하는 불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를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나의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온 마음을 기울여 들어 주시겠습니까?

나무 토막에 불을 지피기 위해서는, 발화되는 온도까지 우선 열을 올려야만 그 자체가 불에 타게 됩니다. 먼저 열을 올리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일단 발화되면, 스스로 타게 되어 유용한 빛과 열을 내 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초년기에는 부모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으로 흔히 보내게 되며 여러분이 좀더 자립할 수 있는 시기를 위해 준비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불을 붙이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하며, 그리하여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발휘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기 바랍니다.

나무가 불타는 것보다 더욱 강한 불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미늄 가루와 금속 산화물 혼합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자체는 차고, 생기가 없는 것이지만, 일단 발화 온도로 열을 가하면, 밝은 빛과 강한 열을 내는 자발적인 열근원이 됩니다.

일단 발화가 되면 그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속이나 보통의 불길이라면 진화될 다른 환경에서도 계속 타 오릅니다. 그것이 불에 타면, 그것은 주변의 지원 물질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발적으로 타 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있어 영적인 불길은 그들 주변의 세상에 의하여 쉽게 불이

꺼집니다. 그러나 주님에게서 힘을 받고 자양분을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뿐 아니라, 꺼질 줄 모르는 영으로 그들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합니다.

영적으로 불길이 타오른 두 명의 선교사가 벽지의 마을에 교회 지부를 세우기 위해 잠시도 쉴 틈없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가장이 들로 나가기 전에 가족을 가르치려 아침 5시 30분에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피를 빨아 먹는 해충을 물리치기 위해 요어도비 벽돌담에 회칠을 애써 했습니다. 주중에 그들은 시멘트 바닥을 깔았으며 샤워 꼭지에 5갤론 들이 통을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위생 설비를 시작했으며 물 정수기에 새로운 자갈과 모래를 깔았습니다. 낮 시간의 일부는 다음에 가르칠 사람을 찾으러 들에 나가 농부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지칠대로 지쳐 어디서든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허술한 나무 문짝을 심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조그만 소녀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힘껏 달려와 숨을 몰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녀가 흐느끼며 마구 해대는 말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종합해 보고자 애썼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어둠 속에서 나귀를 타고 가다가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장로들이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 주지 않는다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당장 그를 선교사들에게 운반해 왔습니다. 소녀는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간청하고 그를 돕기 위해 달려 갔습니다.

상황이 절박했으므로 그들은 어쩔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의사도 의료 시설도 하나 없는 마을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의사 소통의 수단이라고는 강변에 뚫린 거친 길뿐이었고 차도 없었습니다.

계곡의 사람들은 그들을 믿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약을 다룰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심한 머리 부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알지 못했으나,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무릎꿇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들의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은 인도해 주심을 간구했으며, 주님이 도와 주시지 않으면 한 생명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깨끗이 닦아내고, 붕대를 감아주고, 축복을 해 주어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고통을 견디어 내겠습니까? 그가 것처럼 큰 고통을 겪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 상처를 닦아내고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다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약도 없고, 마취제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들이 일어났을 때, 친구들이 부상한 사람을 데리고 도착했습니다. 가물거리는 쫓불 속에서도, 그들은 그가 심하게 부상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크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이 상처를 깨끗이 닦기 시작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잠이 든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걱정스런 마음으로 그들은 깨끗이 닦아내고 상처에 가제를 대고 붕대로 감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들이 손을 그의 머리에 얹고 축복하려 했을 때, 그는 편안히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응답되었으며, 그의 생명은 구원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신임은 증가되었으며, 교회 지부는 차고 넘쳤습니다.

선교사들은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 신앙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대회 방문자

주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믿었으며, 그들의 기도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영의 조용한 속삭임으로 응답이 올 때 그것을 인식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와 같이 생활한다면,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니파이삼서 18:20)

두 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흠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경전을 들고 있었으며, 각자 마음속에는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언덕 마루에서 한 무리의 말타는 기수들이 그들을 가리키며 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큰 위험에 처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힘센 말 위에 탄 거대한 사람이 그들을 향해 언덕 아래로 질주해 달려 오는 것을 보고 각자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무섭게 채찍을 휘두르며 위협적으로 지축을 흔들며 가까이 달려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차가운 미소는 그들을 해치고자 하는 그의 잔인한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갑자기 그는 그의 말의 고삐를 잡아 당겨, 멈추고 한바퀴 솟아오르더니, 계곡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이들 장로들은 주님을 믿고 의롭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달리 피할 도리가 없었던 위험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의롭게 생활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결심은 여러분이 주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각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을 압니다. 때로는 문제가 겹겹이 쌓이고,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볼 능력이 없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혼자서 대하지 마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언 3:5)



여러 면에서 세상은 여러분의 육신에 해를 입히고 그르치며,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파멸시키고, 도의심을 저하시키는 위험이 도사린 정글과 같은 곳입니다. 인생은 여러분이 실패를 겪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극복함으로써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도전할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나 어렵지만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줄줄이 늘어선 유혹과 파괴적인 세력과 위장된 위험 요소 등, 이와 같은 것은 이전의 어느 세대도 겪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재주가 많고, 힘이 세고, 똑똑하다해도, 주님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고서는 중대한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말에 나도 동의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혼자서 세상을 대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중대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주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에 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이 더 나쁜 일입니다. 죄는 몸 안의 암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치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라는 약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점점 더 나빠지게

됩니다. 회개의 기적을 통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완전히 건전하고, 새롭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자신이 하시는 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문제점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도움을 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에서 점점 더 좌절감을 겪게 되는 어두운 터널 속을 혼자 걸어본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무런 돌봄도 받지 못하고, 인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실망스럽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밟은 길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흔히 자기 연민에서 비롯되며, 방종으로 변하고, 내버려두면, 크나큰 이기심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함으로써 극복하지 않으면, 좌절감과 구속의 고리와 더불어 큰 죄악으로 발전합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를 파괴시키기 위해 유혹에 마음을 열도록 사탄이 사용하는 최지레입니다. 그는 좋지 못한 습관으로 심신을 묶어 놓으려 하고, 이기심을 조장시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로부터 우리를 떼어 놓으려 합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좌절감을 느꼈다면, 돌아서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터널의 다른 쪽 끝은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빛은 여러분이 언제든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무 먼 곳에 떨어져 있음을 확신시키려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받을 내딛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로 할 것입니다. 경전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감독 또는 친구가 도움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 빛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더 좋은 느낌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미래에 더 큰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생이 참으로 훌륭한 삶을 다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자신의 삶을 바쳐,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해도,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완전하십시오. 그것은 항상 규칙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위해 역사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이해심, 솔씨, 경험 또는 상대방의 수비를 뚫고 힘들게 농구공을 집어 넣어 득점할 수 있는 자기 확신이 요구됩니다. 인생의 경기에서, 그것은 의로운 성품이라 불립니다. 그러한 성품은 큰 어려움이나 유혹을 받는 순간에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발휘할 때 개발됩니다. 성품은 수많은 가락의 올바른 결정의 실(연습 시간과 같은)로 조용히 짜지는 것입니다. 순종과 합당한 행동으로 강화될 때, 올바른 결정은 참으로 필요할 때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성품을 형성합니다.

의로운 성품은 영적인 힘의 토대가 되어 어려운 문제에 처했을 때, 힘들고, 극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 줍니다.

의로운 결정은 여러분의 인격을 나타내 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있고, 무엇을 배웠으며, 무엇을 성취했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신임받게 합니다. 그것은 큰 어려움과 유혹을 받는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 줍니다.

정직하십시오. 의로운 성품은 성실성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결코 스스로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일시적인 이익은 줄 수 있으나, 오래 갈수록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 미리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거나, 이익을 얻으려 거짓말을 한다거나, 실수한 것을 덮기 위해 거짓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완전히 정직하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도 부정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에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필요할 때에는 주께서 축복해 주심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명을 범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의 시야에서 숨기고자 하는 유혹을 받을 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해칠 것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파괴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 보고, 알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친구들 중에서 이중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생활하려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부모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듯이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비밀스럽게 다른 짓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이 즐거움으로 생각하는 흥분의 순간을 맞볼 때도 있지만, 그것이 평안이나 참 행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내심으로는 스스로 대적하여 싸우며 심신을 파괴시키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있을 때는, 선을 행하고 선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십시오. 여러분이 느끼게 되는 감정, 여러분에게 오게 되는 속삭임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작용하여 선을



행하게 할 것입니다. 그릇된 행동을 하며 계획을 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런 감정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함께 선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것을 생각해볼 때 마음이 편안치 않다면, 그들은 좋은 친구가 아닌 것입니다. 친구를 바꾸어 보십시오.

우리는 각자 인정받고, 사랑받고, 특별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천부적인,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신뢰와 합당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댓가를 치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름 방학 동안에 나는 롱 아일랜드 사운드의 굴 양식선에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우리 네 사람은 트레일러 트럭의 운전석보다 조금 큰 곳에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는 선주의 스파이로, 그 다음에는 남자같이 생활할 용기를 갖지 못한 아이로 따돌림 받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나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나는 내 원칙을 버리지 않으리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은밀하게

한 사람씩,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알고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데 앞장서십시오. 처음에는 오해를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친구를 바로 사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들은 여러분을 존경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불길로 인해 힘을 얻기 위해 은밀하게 많은 사람이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고 주님의 가르침과 조화를 이룬다면, 성신은 필요한 때에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영감을 받아 해야 할 바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하는 일은 주님의 힘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보호받고 혼자서도 불가능한 일을 하도록 강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중에는 주님께서 여러분이 해내기를 원하시는 개인적인 일에 관해 영의 속삭임을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영감을 받아 해야 할 바를 안 적도 있습니다. 그러한 감정은 우리가 함께 하는 시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개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이제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분명히 그것을 따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을 필요로 하십니다. 주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영의 속삭임에 따르기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불길에 밝게 타오르게 하십시오.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생활을 하십시오. 주님의 믿음을 받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주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성찬의 아름다움

존 에이치 그로버그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항상해 나가고 그와 같이 하기 위한 결심과 도움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성찬은 항상 소망을 갖게 합니다.”



우 리와 모든 인류가 이제까지 받은 가장 중요한 초대 말씀은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모로나이사 10:32)되라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아름답고도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성찬 의식을 통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흔히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때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바와 같은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었으나, 다른 의미에서 보면, 많은 사람이 영적으로 취하기 시작한 최초의 만찬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물몬경의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로 떡을 떼어 축복하여 나의 교회에

속한 자 곧 나를 믿어 나의 이름으로 침례받은 자들에게 나누게 하리니,
“내가 …너희에게 준 것 같이 너희는 언제나 이를 행하여,

“너희가 이같이 행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보인 나의 몸을 기억하여 행할지니, 이는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할 것을 아버지께 증거함이라. 또한 너희가 항상 나를 기억할진대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하리라.”(니파이삼서 18:5-7)

이 훌륭한 사건의 감동적인 세심함과 깊은 의미는 오늘날의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했듯이 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교리를 따라야 하는 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며, 교회에서 침례받음으로써 그의 이름을 받들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 생활하는 데서 항상 충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와 같이 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아시므로, 성찬의 의식을 자주 되풀이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오라는 구세주의 이러한 권유의 말씀은 정규적이며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 속에는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포함됩니다. 노인과 젊은이가 다 같이 참여합니다. 스스로 의한 것이 아니면 아무도 금지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너희 중에 하나라도 떠나게 하지 아니하고 모두 나에게로 나아와”(니파이삼서 18:25)

그러나 위선의 무서운 결과를 알고 계신 주님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아무도 합당하지 않게 나의 살과 피를 취하지 못하게 하라.

“나의 살과 피를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저의 영육을 위하여 저주를 먹고 마심이라.”(니파이삼서 18:28-29)

성찬을 합당하게 취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혹은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회개하여 개선하기를 바라고 회원 자격 정지나 파문 등의 신권의 제약을 받고 있지 않다면, 합당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선할 의사가 없고, 영의 인도하심에 따를 의도가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적인 회개와 개선을 위한 촉매제가 되는 성찬의 참 목적을 조롱하고 있거나 않습니까? 우리가 구세주와 그가 우리를 위해 하시고 또 하실 모든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개선하여 그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향상하기를 거부하고, 주님을 기억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성장은 그치게 되고, 영혼에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성찬은 극히 개인적인 체험이므로, 우리가 합당한지 아닌지는 우리 자신만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침례받았을 때의 느낌… 깨끗한 영혼의 그 아름답고 깨끗한 느낌, 용서받고, 구세주의 은혜로 깨끗이 씻기워진 그 느낌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합당하게 취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용서하심이 포함된 성약을 새롭게 하는 것이므로, 정규적으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예배를 하는 동안 구세주를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성찬의 축복을 스스로 거부하려는 사람은 분명히 용서받을 수

있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위안해 주시는 주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기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이상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합당하게 성찬을 취할 때, 우리는 개선해 나가고 그와 같이 하기 위한 결심과 도움을 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성찬은 항상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한 문제는 대부분이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십일조를 내지 않는다면, 바로 다시 낼 것을 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에 따라서는, 감독을 찾아야 할 것도 있으니, 성령이 우리에게 해야 할 바를 알려줄 것입니다.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축복이 오게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몇 년 전에, 편의상 존스라고 부르는 젊은 부부가 아내에게 생긴 문제로 그들의 감독을 방문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영의 지시를 받아, 감독이 내린 몇 가지 결정 사항중에는 존스 자매에게 몇 가지 태도를 바꾸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한 동안 성찬을 취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따스한 사랑과 뒷받침으로, 그녀는 계속해서 가족과 함께 모임에 참석했으며, 성찬을 취하지 않은 주일이 여러 번 지났으나 그러한 사실이나 상황을 알거나 눈치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는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녀는 성찬을 취하기에 합당하게 되기를 점점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전에 회개했다고 생각했으나, 참된 영혼 속 깊이 추구하며,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고자 하는 소망이 증가될수록 그녀의 생활과 행동과 생각에서 진정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어느 성찬식 모임에서, 영이 감독과 존스 형제

자매에게 그녀가 다시 성찬을 취할 시간이 되었음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다음 일요일부터”하고 감독이 말했습니다.

다음 일요일에, 존스 자매는 다시 가족과 함께 앉았으나, 일말의 불안과 흥분과 기대에 휩싸였습니다. “나는 참으로 합당한가? 내가 얼마나 바라던 것인가!” 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성찬 찬송이 전에 없이 의미있게 들렸습니다. 그러한 감정에서 노래부르자니 눈물을 삼키기가 어려웠습니다. 성찬 기도문은 얼마나 뜻깊은 것이겠습니까! 그녀는 너무나 주의깊게 들었으므로 한 마디 한 마디가 그의 영혼 속 깊이 박혔습니다. 그의 이름을 받들어, 항상 그를 기억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항상 그의 영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성 20: 77, 79 참조) “아, 내가 얼마나 바란 것인가.”하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집사들이 통로를 오르 내리기 시작했고, 각 열마다 성찬기가 각 사람의 앞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어린 집사가 그녀의 열이 있는 쪽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그녀의 가슴은 점점 더 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찬기가 바로 그녀의 열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녀의 남편이 아내 앞에 성찬기를 들어 주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에 흘러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상징에 손을 내밀면서, “아!”하는 기쁨의 흐느낌이 나즈막하게 터져 나왔습니다. 회중은 그 흐느낌을 듣지 못했으나, 그들은 감독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알아 했습니다.

삶과 회망과 용서와 영적인 힘은 주고 받는 데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합당할 수 없었습니다. 존스 자매는 주님의 영을 갖기를 참으로 원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이름을 받들기를 원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 하여, 그녀는 그를 기억하여 주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회개하고, 개선하고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일요일마다 수천, 수백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권의 권능하에,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더욱 잘 따르기로 진심으로 결심한다면, 전세계에서, 교회 전체에서, 여러분의 스테이크와 와드와 여러분의 생활에서 어떤 일이 일어 날 수 있으며 또한 일어나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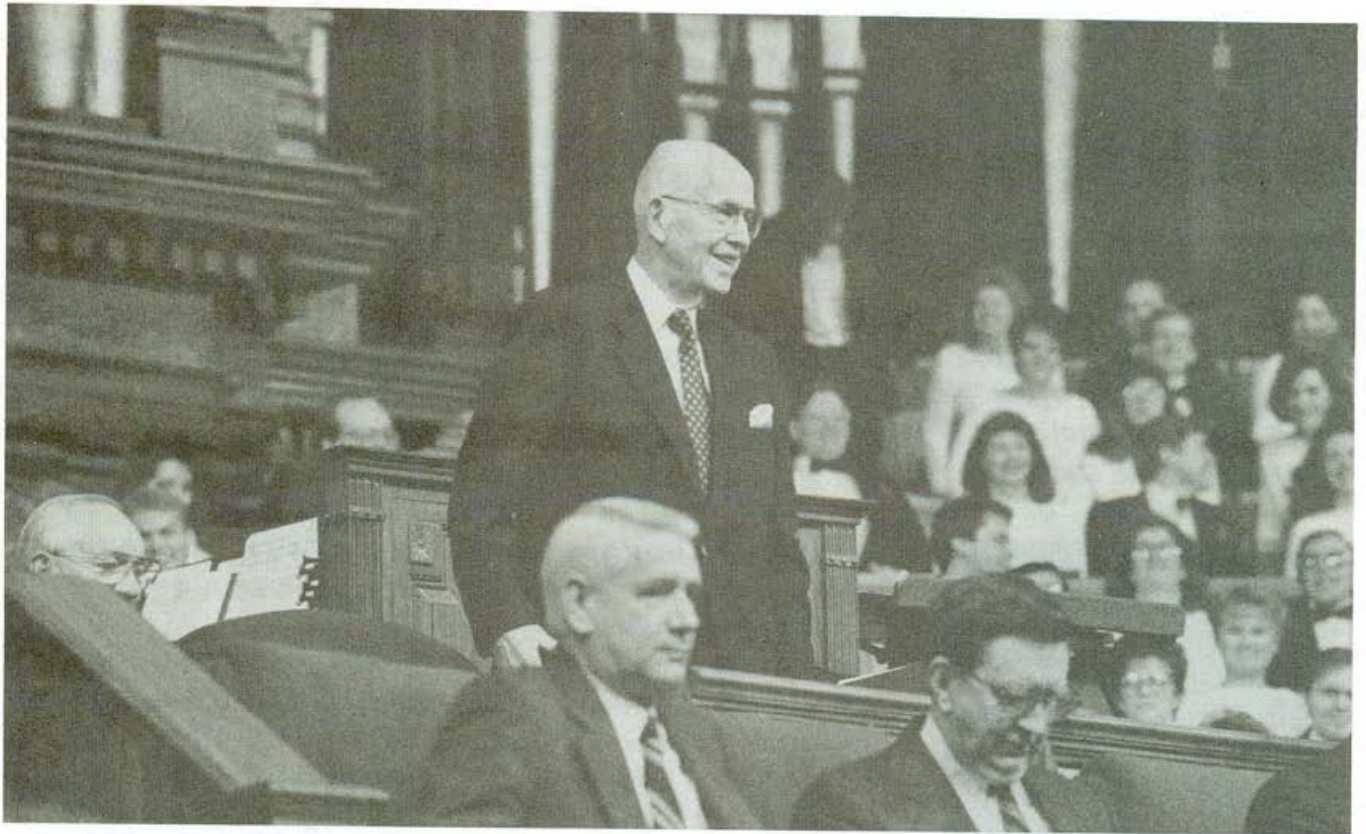
생이 주어지고, 용서함과 영적인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밝혀진 빛은 시온을 밝게 빛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순결한 마음을 준비시키고, 놀랍게 바라 보게 될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시킬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로서 더 많은 사람이 성찬식에 참석하고 더욱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도록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에서 구현된 그리스도의 교리를 좀더 완전하게 더 깊은 느낌과 큰 힘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젊은 형제들은 우리 모두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상징인 떡과 물을 전달하는 특권을 인식하고 그에 합당하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져다 주는 축복...소망과 사랑과 기쁨, 용서, 자유 및 영생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날 수많은 청소년들이 행복을 위장하여 우울증과 실패와 속박과 결국은 사망으로 이끄는 마약과 각종 술잔을 돌리는 것과 얼마나 대조되는 것입니까! 사악한 인간의 교활함을 극복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여!

나는 영혼 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러한 원리가 참됨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 가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오직 그 분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와 영원을 위한 생명과 기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구세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암흑의 장면 위로 넘어다 보셨을 때, 조롱하는 군인들과 잔혹한 모욕자들 이상을 보셨음을 느낍니다. 그분은 울부짖는



대회장에 모인 성도들을 향해 따스한 미소를 보내시는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여인들과 두려움에 떠는 친구들을 넘어다 보셨습니다. 그분은 우물가의 여인들이나 언덕위의 군중들 또는 해변가의 무리들을 기억하시고 그 이상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셨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그분은 시간의 흐름을 통해 보셨습니다. 그의 원대하고, 관대하며, 사랑에 가득한 영혼은 모든 영원을 초월했으며 모든 사람과 모든 시대와 모든 죄악과 모든 용서와 모든 것을 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나를 내려다 보시고 사망과 죄악의 무서운 결과를 모면할 모든 기회를 제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고통당하시면서도, 그분은 지극히 아름다운 간청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누가복음 23 : 34)

우리는 우리가 맡은 일을 하고 온 영혼의 열정을 다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아버지시여, 제가 나를 위해 흘리신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상한 육신의 상징물을 취하오니 그로 인하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그를 통하여 나를 용서하옵소서. 내가 더 잘하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바 모든 생명이 각기 필요한 두 개의 별도의 요소가 합쳐짐으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구세주께서는 주님의 무한하신 속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한 그 필멸의 요소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의 서로 다른 요소를 베풀기를 요구하시나,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상징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성찬을 합당하게 취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가져오는 권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간증드립니다. 나는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분은 용서해 주심을 압니다.

그분은 사랑하심을 압니다. 그분은 호소하시듯 부드럽게 미소지으심을 압니다. 나는 그분은 우리를 돕기 위해 항상 준비하고 계심을 압니다. 나는 말할 수 없이 큰 축복과 말할 수 없는 영생의 보고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압니다. 나는 그분은 우리가 원한다면 영원히 중요한 것에 대한 지식을 주심을 압니다.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는 것은 그분과 우리에게 있어 영원히 중요한 것임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뜻깊은 의미를 지닌 모든 면에서 그분은 생명을 주심을 나는 압니다. 그분의 사랑의 상징이 정규적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하는 음성에 귀 기울이고, “아버지시여, 저를 사하여 주옵소서”하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 곧 영생으로 인도함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의로움의 점수올리기

러셀 시 테일러 장로
철십인 제이 정원희

“청소년 여러분, 다섯 개의 점수를 올리도록 하십시오. 선교 사업을 하십시오. 경전 연구와 기도와 금식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 가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도덕적으로 순결한 생활을 하십시오. 봉사의 생활을 하고 교회 활동을 하십시오.”



이 경륜의 율법의 시대에 철십인 제이 정원희에 지지받은 철십인 제일 정원희의 첫번째 회원으로서, 나는 이 역사적인 조치에 지지와 지원을 보내며,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 일이나 어느 면에서 봉사하든지 그것을 명예롭게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 내가 드리는 메시지는 아른 신권 청소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나는 멋진 미식 축구나 농구 경기를 볼 때면 신이 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네 팀 중에서, 세 팀은 프로팀이고, 한 팀은 대학 팀으로, 재즈, 너짓, 브론크스 및 쿠거스 팀입니다. 그 팀들이 이기는 날이면, 아내는 나를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습니다. 이 팀들 중에서 한 팀이라도 지게 되면, 나는 몹시 통명스럽게 됩니다. (이 팀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금년에 나는 실제로 통명스러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밤만 자고 나면, 나는 그것이 실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압니다. 그러나 젊은이가 인생의 준비 과정에서 실패하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실상 큰 문제가 됩니다. 구기 게임은 인생과 아주 흡사한 것입니다. 누구든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주전 선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규칙에 따라 하여 파울로 퇴장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점수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현실 생활의 규칙은 게임 규칙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규칙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행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고,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봉사의 생활과 교회 활동을 생활할 때 점수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점수를 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기고 있습니까? 농구 게임에서 공을 던져 넣든가 축구 경기에서 공을 차 넣을 때, 크나큰 성취감과 흥분을 맛보게 됩니다. 복음 점수를 올리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하여 좋게

느낍니다. 여러분은 또한 주님께 더 가까이 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음을 알 때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복음 점수를 올리는 다른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의 왕국이라는 경기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아들들 편이며, 주님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하는 일에 의존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는 선의 세력과 악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한 세력으로서 주님을 대표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이 때에 지상에 온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성취할 사명을 마련하셨으니, 평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은 강적을 만나 맞싸워야 하기도 할 것입니다. 때로는 대중 매체나 친구들 또는 다른 세력들이 여러분을 옳은 것에서 끌어 내리려 할 것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십시오. 담대한 예언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십시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여호수아 24 : 15)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 여러분은 다섯 개의 점수를 올려야 합니다. 내가 잠시 여러분의 코치가 되겠습니다. 의로움의 점수를 올리는 게임과 의무에 대하여 말해 봅시다. 첫번째 점수는 선교 사업을 행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선교 사업을 행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그것을 위해 잘 준비하십시오. 예언자께서는 모든 젊은이에게 선교 사업을 행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보통 회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위해 어떤 좋은 것을 포기해야 함을 의미할 때도 많습니다. 학업이나 운동 선수 장학금을 연기시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 사업을 위해 돈을 저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세상의 것을 희생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예언자 모로나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며, 경건하지 아니한 모든 것을 부인하라.”(모로나이서 10:32)

찬송가에 “희생은 하늘 축복 가져오나니”(찬송가, 18장)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희생이 우리의 영을 순결케 하고 우리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준다는 것을 아십니까?

선교 사업은 부름받고 이년 동안 형제 자매와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입니다만,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이 평생동안 행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교 사업은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절적인 면에서 여러분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주님께 봉사함으로써 여러분은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교 사업을 행하고 의의 점수를 올리십시오.

둘째 점수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올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점수를 딸 수 있을까요? 매일 경전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는 합당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여러분의 간증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미나리에 다니는 어떤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경전을 읽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경전은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 스테이크 대회에서 아름다운 여인이 이렇게 간증을 말했습니다. “경전이 지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지루한 것입니다.” 그들은 경전은 그들이 친구들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 당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복음 원리는 구약 시대나 오늘날의 어느 시대에도 적용됩니다.

주님은 경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경전을 통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 가십시오.

아침과 저녁 그리고 그 사이에도 필요에 따라 자주 기도하는 시간을 내도록 하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은사의 하나입니다. 그는 언제 어디서든 기도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을 위해 그곳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목표와 고민을 주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주님의 사업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를 말씀드리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복음 생활을 하는 데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 가십시오.

매달 첫째 일요일과 주님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금식하십시오. 참된 금식이 되도록 하십시오.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금식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십일조의 법이나 지혜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율법입니다.

진실한 금식에서, 우리는 주님의 공개 초청을 받아,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주님의 영광 참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재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경전 연구와 기도와 금식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점수를 올리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은 성장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으나,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점수, 이것은 사방에 수비진이 진을 치고 있으므로, 2점의 가치가 있다 하겠습니까. 지혜의 말씀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여러분을 유혹하는 마약이나 술을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인 안영을 파괴시킵니다. 그러한 것을 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마약을 복용하면 기분은 좋지만, 큰 위험이 따르며, 그럴 때마다 점점 더 큰 좌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지옥의 심연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마약이 여러분의 의식을 흐리게 하여 선과 악을 뚜렷이 구별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리를 때리면 신체적인 감각이 마비될 수 있듯이 죄는 양심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복음의 이상, 솔트레이크시티 : 임프르브먼트 이라, 1953, 146페이지)

지혜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일에 모의를 피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존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악과 음모로 인하여 계시로써 이 지혜의 말씀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를 경고하였고 또 미리 경고 하노니.”(교성 89:4)

음모를 피하는 악한 사람들은 마약, 술, 담배 등을 팔아 돈 벌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받는지 신경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죽음을 파는 상인들을 조심하십시오. 전세계에서 청소년들을 파멸시키는 심신을 망치는 마약품을 결연히 거부하십시오. 슬픔외에는 아무 것도 약속하지 않고 파멸시키는 줄 분명히 알면서 왜 빠져 들겠습니까? 젊음이 여러분, 공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의로움의 중요한 목표로 삼으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네번째 점수, 이것은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3점짜리로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순결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선교 사업의 부름, 일생의 사명과 언제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러분이 순결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 나가느냐에 따라 영향받게 됩니다.

엘마는 그의 아들 시블론에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중요성을 가르쳤습니다. “걱정을 다스려 사랑으로 차고 넘치게 하며”(엘마서 38:12) 흥미있는 역설이나, 참된 사랑은 걱정을 다스리고, 자제심을 발휘할 때 오는 것입니다.

자제심을 잃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복지 같은 것은 생각지 않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피해야 합니다.

애정을 표현하는 것은 긍정적이며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으며 남녀 사이의 유대를 강화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결혼 생활로 인도하는 힘이 됩니다. 그때 발생하는 느낌은 매우 강한 것이 될 수 있으나, 여러분이 그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을 제어할 것입니다.

인생의 사명을 위해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순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신중하게 또는 의도적으로 마음속으로 그리는 상과 가슴속으로 느끼는 느낌을 결정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화나 텔레비전에서는 흔히 혼전 성생활을 남녀 사이의 합당한 애정 표현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혼외 정사는 이기심과 자제심의 부족 및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부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여러분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듯이 젊은 여인의 순결을 보호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신권 소유자에게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생활을 하십시오. 의로움의 득점을 올리십시오.

다섯번째 점수는 봉사의 생활을 하고 교회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내의 활동에 전념하고 봉사로 균형을 취하십시오. 봉사는 항상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창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단지 여러분의 모임에 참석하는 이상의 일을 하십시오. 복음대로 생활하고 즐기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아론 신권 정교회에서 충실하고 큰 힘이 되는 회원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반차를 따른 신권인 멜기세덱 신권을 소유할 날을 위해 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활동에서 가장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느냐, 예언자이신 벤슨 대관장께서 하라신대로 매일 경전을 읽는지, 중요한

영적인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의 부모와 지도자들과 뜻을 같이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지니고 있는지 인생의 게임을 끝마칠 영적인 힘을 지니고 있는지 그 여부를 사실대로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의로움을 위해 다른 면에서 득점할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에게 묻노니, 여러분은 이상 다섯 개의 점수를 딸 수 있습니까? 규칙에 따라 생활하고, 여러분의 용기와 간증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결심이 되어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깨어 나십시오! 여러분은 고상한 세대의 청소년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파울로 퇴장당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을 어기고 업사이드 반칙을 하고, 공보다 먼저 움직이거나 공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공 족, 복음은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약점을 아시고 주님의 팀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감독님에게 말씀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이 돌아 오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필요하고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이제 청소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심판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친구로서 말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서 이 다섯 개의 득점을 하도록 훈련하십시오. 그것을 적어 놓으십시오. 그것을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 놓으십시오. 여러분의 발전 상황을 자주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득점을 하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신권 지도자와 아버지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에서의 코치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어떻게 득점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들과 깊이있게 토론해 보십시오. 이들 청소년들이 득점하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러한 면에서 점수를 올리게 되면 그들을 기쁨과 행복과 승영으로 인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목표 향해 나아 갑시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여러분의 목표를 규명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 다음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지나갔으니 거기서 배우라. 미래는 앞에 있으니 그것을 위해 준비하라. 현재는 여기 있으니 그 안에서 생활하라.’”



형 제 여러분, 우리는 감동적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전 세계의 수많은 교회에서, 여러분과 같은 신권을 소유하신 분들이 이 대회 of 순서를 위성 중계로 시청하고 계심을 생각해 보니 경외감마저 듭니다. 여러분의 국적은 다양하고, 사용하는 언어도 수없이 많습디만, 공통된 하나의 끈이 우리를 함께 묶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권을 지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위임을 받았습디다. 우리는 거룩한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찰스 디킨스는 기다리고 있는 기회에 대한 글을 쓴 일이 있었습디다. 디킨스는 많은 상속 재산이라는 고전 작품에서,

“핍”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필립·피립이라는 소년을 묘사했습니다. 핍은 특별한 환경에서 태어 났습디다. 그는 고아였습디다. 그는 어머니나 아버지를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었습디다. 그는 부모의 사진도 보지 못했습디다. 그러나 그는 소년기에 품는 정상적인 소망을 모두 다 품고 있었습디다. 그는 자신이 학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했습디다. 그는 신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원했습디다. 그는 자신이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했습디다. 그러나 그의 모든 야망과 모든 소망은 실패로 끝나는 듯이 보였습디다. 여러분 청소년들께서는 때때로 그와 같이 생각하십니까? 우리와 같은 노년층의 사람들도 이와 같은 생각에 동조하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재거스라는 런던 변호사가 어린 핍에게 다가와 그에게 어느 기증자가 재산을 물려 주었다는 말을 했습디다. 변호사는 팔로 핍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디다. “자, 자네는 많은 상속 재산을 받은 거네.”

오늘밤, 나는 청소년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보면서, 그 변호사가 핍에게 “자, 자네는 많은 상속 재산을 받은 거네”라고 한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알지 못하는 기증자에서 받은 결과가 아니라, 아는 기증자,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결과이니, 위대한 것을 여러분은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상 생활로 알려진 이 시기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 살았습디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서의 기록을 주셨는데, 당시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 줍디다.

“주께서는 나 아브라함에게 창세 이전에 조직된 예지들을 보여 주셨더라. 이 모든 것 가운데 고귀하며 위대한 자가 많더라...”

“이들 중에 하나님 같으신 분이 서 계시더니, 자기와 함께 한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내려가자. 저곳에 공간이 있음이라. 우리는 이들 재료를 취하여 이들이 살게 될 땅을 만들자. “이로써 우리는 저들을 시험하여 주 저희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행하는지 아니 하는지를 보자.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더욱 더하여 질 것이요, 저들의 첫째 지체를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첫째 지체를 지킨 자들과 같은 왕국에서 영광을 누리지 못하리라. 또 둘째 지체를 지키는 자는 저희 머리위에 영광이 영원토록 더하여 지리라.”(아브라함서 3:22, 24:26)

우리는 지상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뢰에 참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기를 기대하시는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평생의 친구이며, 선교사과의 집행 서기를 역임한 네드 윈더 형제는 자신이 경험한 재미있는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윈더 형제가 두 분의 총관리 역원을 수행하고 계단을 내려 가고 있을 때, 그 계단 맞은 편에 놓인 의자에 어느 어머니와 아들이 앉아 있었습디다. 계단을 내려오는 총관리 역원을 보고 소년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디다. “첫번째 분을 누구예요?”

어머니가 대답했습디다. “그 분은 십이사도 평의회의 마빈 제이 애쉬튼



장로님이시다.”

소년이 말을 계속 했습니다. “그 다음 분은 누구시죠?”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 분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로렌 시 던 장로님이란다.”

그러자 아들이 말을 끝냈었습니다. “다른 분은 누구예요?”

어머니는 좀더 소리를 죽여 말했으나, 윈더 형제의 귀에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아니야.”

기억하십시오.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이며, 막강한 힘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신앙과 용기로 온사를 받고, 기도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디모데인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날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온사...를 조심없이 말며...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디모데전서 4:14, 6:20)

여러분의 목표를 규명하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계획을 세울 때, 다음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는 지나갔으니, 거기서 배우라. 미래는 앞에 있으니, 그것을 위해 준비하라. 현재는 여기 있으니...그 안에서 생활하라.’

때로 우리는 누구든지 성취의 적, 곧 죄가 되기도 하는 자멸감으로 우리의 야망을 꺾고, 꿈을 짓밟고,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며, 우리의 생활을 파괴시킬 때가 있습니다. 적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작다.” “모두 다 보고 있어.” “난 아무 것도 아닌걸.” 이럴 때 우리는 맥스웰 말츠의 권고를 되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실제적인 자아상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힘과 권능의 새롭고 심오한 감각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심으로 이러한 확신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에게 훌륭한 처방이 됩니다. 결국 성인 남자는 나이들어 성장한 소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느 집의 부인은 자기 남편이 새로 산 보트를 훌쩍 반한 듯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보고는 “남자가 커지면, 장난감도 커지는군!”하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결코 호사스러운 것으로 차고 넘치거나, 쉬운 길이나, 성공만으로 가득 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는 게임도 있고, 경주에서 맨 꼴찌가 될 수도 있으며, 결코 승진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우리가 결의를 보이고 실망을 딛고 일어서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며칠 전에 라살르 대학의 레슬링 팀 운동 선수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있었던 총탄 사고로, 그는 다리 하나를 잃었습니다. 그는 불평을 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까요? 그는 경기에서 물러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와는 반대로, 그는 그들중 누구보다도 가장 잘 싸웁니다. 금년의 그의 기록은 열번 이기고 여덟번은 진 것입니다. 팀의 동료가 그에 대하여 “그는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하고 말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같이, 젊은 시절의 좌절과 수치감을 당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소년 시절에, 나는 국민학교와 중고등 학교 시절에 야구팀에서 뛰었습니다. 두 명의 주장이 뽑히면, 그 다음에는 그들이 그들의 팀에서 뛰기를 원하는 선수들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가장 훌륭한 선수가 제일 먼저 뽑힌 다음, 둘째, 셋째가 뽑힙니다. 넷째와 다섯째로만 뽑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일 끝으로 뽑혀 외야에서도 가장 먼 곳에 있는 자리로 밀려 나는 것은 상당히 기분나쁜 일이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그 기분을 잘 압니다.

나는 볼이 내 방향으로 때려지지 않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는 틀림없이 공을 놓칠 것이고, 주자는 점수를 얻게 되어, 팀동료들이 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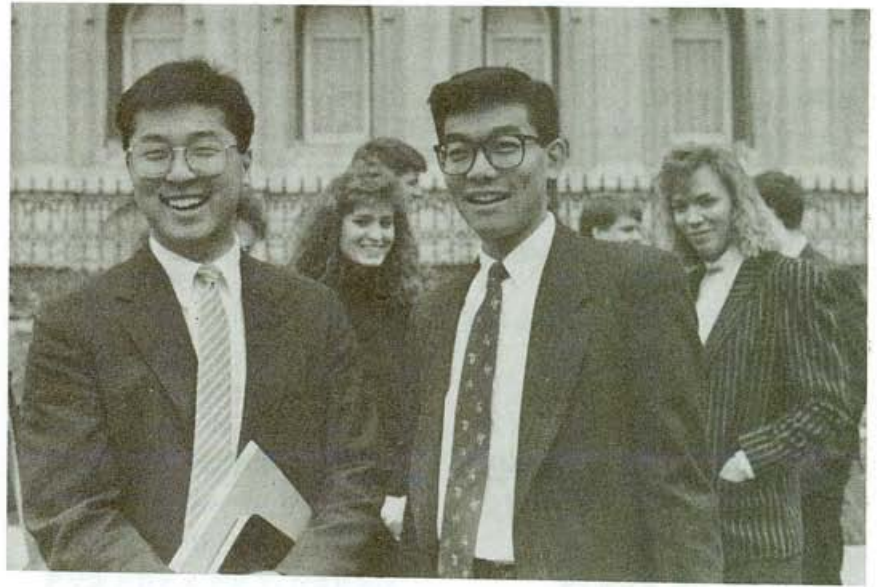
그런 일이 마치 어제 있었던 일이라도 되듯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은 그때의 일이 기억 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맨 끝으로 뽑혔습니다. 나는 축 쳐진 채 오른쪽 필드의 한 구석으로 밀려나, 상대 팀에서 베이스를 주자로 가득 메우는 것을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다음 타자가 강속구를 받아 쳤습니다. 볼이 내가 있는 방향으로 왔습니다. 내가 잡아낼 수 없을 것인가? 나는 숨을 죽인 채 볼이 떨어질 곳으로 생각되는 지점으로 달려 갔습니다. 나 자신도 놀랐습니다. 내가 볼을 잡은 것입니다. 내 팀이 게임에서 이겼습니다.

이 한번의 경험은 내 자신감을 채워 주고, 연습해야겠다는 마음을 심어주었으며, 결국은 맨 끝으로 선택되는 선수가 아니라, 팀의 공로자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의 성취에 대한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마디의 공식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대되는 것은 우리 곁에 항상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은 매일같이 겪는 일이기도 합니다. 조셉 엘 타운센드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의 가사를 썼습니다.

의의 일 선택하여 생활하라
성령이 너 인도하리라.
의안에 너의 마음 떠맡길 때



진리 빛 비쳐 주리라.
(찬송가, 145장)

어느 현명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에게 매일의 상황에서 의를 선택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충고했습니다. “얘야, 네가 있어서는 안될 자리에 있게 된다면, 그 자리에서 빠져 나가거라!” 아들에게 좋은 충고이며, 아버지에게도 역시 좋은 충고였습니다.

누구에게 있어서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유혹이나,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하여 우리는 루시퍼에게 비난을 퍼부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은 그러한 생각을 새로운 면에서 하게 합니다. 고린도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린도전서 10:13)

신권 소유자로서 우리는 “주님께 충성함을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데이비드 케네디가 재무 장관으로 임명되었을 때, 어느 기자가

그에게 궁지에 몰아 넣으려 들었습니다. “케네디씨, 당신은 기도를 믿습니까?” 그 대답은 “그렇습니다.”였습니다.

“이어 현명한 질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케네디씨, 당신은 기도하십니까? 대답은 확고했습니다. “나는 기도를 믿고, 또한 기도합니다!”

바로 지난 달에, 거대한 747제트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던 중에, 옆 부분이 크게 부서져, 아홉 명의 사망자를 내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위협했으나, 가까스로 살아남은 적이 있었습니다. 조종사인 데이비드 크로닌 기장은 비행기를 호놀룰루까지 안전하게 되돌려 놓은 후,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비행기 한쪽이 떨어져 나갔을 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크로닌 기장은 대답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일했습니다.”하고 대답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따라야 할 감동적인 계획입니다. ‘기도한 다음에 일하십시오.’

정신없이 경쟁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체계에 굽히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 인생에 대한 합당한 견해를 그르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때, 자신에 대한 관심을 대치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년단에서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명예가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에게 수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표창은 어떤 단순한 행위나 봉사에 대한 일시적인 헌신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청소년을 위해 변함없이 헌신적인 봉사를 해오신 일평생을 기리고자 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착한 일을 행”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은 주님의 이러한 본보기를 매일 실천하십니다.

소년단 전국 집행 임원회 2월 모임에서, 지난 해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린 청소년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가 있었습니다. 그 영예를 받은 사람들 중에는, 워싱턴주 레이시 출신의 열 다섯살난 아론 신권 소유자인 토마스 티 벨슨이 있었습니다. 톰은 죽음으로 몰아치는 사나운 강물에서 두 명의 소년을 구조해 내었습니다. 나는 그가 표창장을 받고 겸손하지만, 힘있게 한 말에 지금도 기분이 좋습니다. “나는 뛰어 들어 그들을 끌어 냈습니다.”

“선을 행하는 소년단”으로 알려진 캠페인 기간 동안에 수 만명의 소년단원들이 다른 사람들의 생활을 축복해 줌으로써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 캠페인이 이미 공표된 어느 토요일에, 미국의 주부들은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통조림 음식을 기부하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소년단원은 이 목적을 위해 일하게 되었습니다. 수백 톤의 음식물이 수집, 저장되고 분배되었습니다. 준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먹을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목적의 성취를 위해 도운 소년단원들은 다시는 똑같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선을 행하려 나섰습니다.

전세계에서 봉사하는 데서 위대한 선교 사업으로 선을 행하는 큰 힘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진리를 가르치며, 악을 쫓아 냅니다. 그들은 기쁨을 널리 펼치며, 귀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옵니다.

몇 주일 전에, 나는 과테말라의 과테말라시에서 현대의 기적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가 주님의 종에게 임하고, 주님의 백성에게 축복이 된 것입니다.

지역 대회에서, 약 12,000명의 회원들이 그 지역 축구장인 에스타디오 델 에제르시트를 꽉 메웠습니다. 이 대규모 집회에 햇빛이 내려 비쳤으며, 주님의 영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가득 찼습니다. 그 날은 감사의 날로, 첫번 선교사들이 그 땅에 도착한지 42년째 됨을 기념했습니다. 존 프레스 오도널 형제가 많은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1946년에 그 나라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으로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지 앨버트 스미스 대관장을 끈질기게 쫓아, 오도널 형제는 첫번째 선교사들의 입국을 도왔습니다. 그의 아내, 칼렌 갈메즈 드 오도널은 첫 개종자가 되어, 1948년 11월 13일에 침례받았습니다. 대회일에도, 그들이 결혼한 이후 늘 그래왔듯이, 남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도널 부장이 말씀하는 동안, 나의 생각은 이 땅에 온 많은 선교사들과 그들이 겪어온 어려움, 그들이 치른 희생, 그들이 축복받은 생활에 생각이 미쳤습니다. 그 중 한 선교사의 헌신은 모든 것의 헌신을 말해 줍니다. 앞서 이 선교사의 경험에 대하여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으나, 최근에 과테말라를 방문하고 오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랜덜 엘스워스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선교사로서 과테말라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지진 사태에서 살아 났으나, 그의 등쪽으로 대들보가 떨어져, 다리가 마비되고 신장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는 만팔천 여명의 생명을 앗아간, 지진 사태에서 유일하게 부상당한 미국인이었습니다.

응급 치료를 받은 후, 엘스워스 장로는 메릴랜드주, 로크빌에 있는 그의 집 근처에 있는 큰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그가 그곳에 입원해 있을 때, 어느 뉴스 해설가와 인터뷰하는 모습을 나는 텔레비전이라는 신기한 매체를 통해 지켜 보았습니다.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걸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그럴 것입니다.”하는 대답이었습니다.

“당신의 선교 사업을 마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답은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나는 그럴 것입니다.

“교회의 대관장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의 가족과 친구들과 선교사 동반자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나는 걸을 것이며, 과테말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그곳에서 이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으며, 나는 그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치료가 뒤따랐으며, 그 기간은 말없는 그러나 영웅적인 용기로 중단되었습니다. 조금씩, 무감각한 사지에 감각이 되돌아 오기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용기와 기도가 점점 더 열기를 띠었습니다.

드디어 랜덜 엘스워스는 그가 부름받은 선교 지역으로 다시 실어다 줄, 그가 사랑한 사람들에게 다시 안겨줄, 비행기에 걸어 올라 갔습니다. 그는 줄줄이 이은 회의론자들과 의심하는 무리들을 또한 하나님의 권능과 신앙의 기적과 결심의 보상에 놀라움을 표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남겨 두고 떠났습니다.

과테말라에서 랜덜은 자신의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는 지팡이 두 개를 사용하여 걸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리고 신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선교부장 앞에 섰을 때, 랜덜 엘스워스는 거의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기적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의 신앙은 보상을
받았어요. 필요한 확신을 갖는다면,
신앙을 갖고 있고, 참된 용기를 갖고
있다면, 그 두 개의 지팡이를 내 책상
위에 놓고 걸으시오.”

천천히, 랜덜은 선교부장 책상위에
지팡이 하나를, 다시 다른 지팡이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걸었습니다.

오늘날 랜덜 엘스워스는 수련의로
있습니다. 그는 건장한 남편이요, 사랑이
많은 아버지입니다. 그의 선교부장은
다름아닌 존 포레스 오도널 부장으로,
과테말라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돕고, 3월 5일 일요일에, 지역 대회에
모인 청중들에게 말씀한 지도자입니다.

포레스 오도널 부장은 얼마 전에 나의
사무실에 들러, 겸손한 태도로 랜덜
엘스워스와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는 그때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엘스워스 장로에게
지팡이를 내려 놓고 걸어 보라고 제안한
날 내 책상위에 놓았던 두 개의 지팡이
중에 하나는 내가 간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장로님께서 가지셨으면
합니다.” 그는 파스한 미소를 남기며, 내
사무실을 떠나 과테말라에 있는 집으로
되돌아 갔습니다.

이것이 내가 받은 지팡이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우리 생활을 축복해
주시심을 말없이 증거해 줍니다. 그것은
신앙의 상징입니다. 그것은 용기를
상기시켜 줍니다.

신권을 소유하신 형제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등장 인물, 필립 피립과 같이,
우리는 큰 상속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영생의 목표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밤 모인
청소년들이 하는 말로 “목표 향해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함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주님은 적극적으로 힘있게 그리고 일관된 목적으로 하나님 왕국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노인이든, 소년이든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 대회는 위대한 모임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께 많은 분들이 감사와 치하를 드리고 있으며 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그분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일관된 삶을 살아오신 그분께 드리는 위대한 찬사입니다. 일생 동안 소년단의 가장 훌륭한 가르침의 빛나는 귀감이 되어 오신 분을 선정된 소년단에 축하를 드립니다. 그분은 이제 90세로, 그분의 생애를 생각해 보면, 원리를 고수하여 정도를 걸어오신 본보기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은 신앙을 지키고 계명대로 생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함을 설득력있게

권고하셨습니다.

내가 소년단 모임에 참여한 지도 상당히 오랜 세월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그러한 모임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어린 시절에 했던 것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약 67년 전인, 1922년에 소년단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년단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소년단에 등록하려면 열두 살이 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화요일 저녁에 소년단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시끄럽게 떠들어 댔습니다. 소년단 대장인, 찰리 로빈슨씨가 호루라기를 불면 우리는 한 줄로 늘어서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른손을 직각으로 들고 함께 소년단 선서를 하고는 했습니다. “나는 명예를 걸고 하나님과 나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소년단 규칙을 지키며 항상 다른 사람을 돕고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깨어 있으며, 도덕적으로 순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의식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그다지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나, 그 선서의 한마디 한 마디는 우리 마음속에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날까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

소년단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가 오늘 저녁 모인 모임은 소년단 모임은 아닙니다. 신권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목적을 위해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위대한 모임에 함께 하신 모든 형제들에게 또 하나의 서약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나는 내 명예를 걸고 내게 부여된 하나님의 신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흥미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해석해 보면, 크게 하고, 보다 분명하게 하고, 더 가깝게 하고 강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쌍안경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실제로 가치가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감상적인 이유로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내가 보아야 할 물체를 크게 보는 데 유용합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신권을 영화롭게 한 훌륭한 위대한 어떤 사람을 기억하게 해 줍니다. 그것은 1962년에 유럽과 영국 제도에 있는 선교사들과 가진 훌륭한 모임을 마치면서 당시 대관장단 보좌였던 헨리 디 모일 부대관장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그 선물과 그것을 준 사람을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모두 쌍안경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눈에 대고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의 시야에 있는 모든 것이 확대되고 실제 더 가깝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꾸로 돌려 다른 쪽 끝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이 보는 것은 더 작아지고 더 멀리 보이게 됩니다.

신권을 소유한 우리의 행동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높고 거룩한 부르심에 맞게 생활하고, 이웃에 대한 봉사로 하나님에게 사랑을 보이며, 신앙을 쌓고 진리를 전파하는 데 우리의 힘과 재능을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기적으로 생활하고, 죄에 빠지고 하나님의 것보다는 세상의 일에만 눈을 돌릴 때 우리는 우리의 신권을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니파이의 동생 야콥은 그와 그의 동생 요셉이 받은 부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맡겨진 책임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지 아니하였을 때 백성들이 짓는 죄를 대신 떠 맡지 아니하여 주 앞에 우리의 사명을 다 하였으므로..."(야곱서 1:19)

신권 직분을 행사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역원과 교사에게는 그 신권 부름을 영화롭게 할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의 복지와 성장과 발전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려 한다면, 자신만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신앙과 간증으로 가르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에 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고 강화시켜줄 때, 우리는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고, 마지못해 봉사하고, 의무를 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쌍안경을 거꾸로 들여다 볼 때 물체의 상이 축소되고 멀리 보이듯이 우리의 신권을 축소시키는 것이 됩니다.

야곱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로 향하여 내가 짊어진 임무를 진지한 마음으로 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려 하노라."(야곱서 2:2)

모든 선교사는 하나님의 계책을 가르치는 데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모든 역원은 하나님의 반차를 가르치는 데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경륜의 시대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네 직분을 온 힘을 다해 수행하라"(교성 24:3)고 하셨습니다.

또한 "네 부르심에 충실하라 그리하여 네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며"(교성 24:9)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계시에서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 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약하거나 강하거나 묶여 있거나 자유롭거나를 막론하고 스스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내 안에서 영광을 얻으리니

"어느 때에나 어느 곳에서나 밤이나 낮이나 나팔 소리같이 입을 열어 나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라. 그리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힘을 저에게 주리라."(교성 24:11, 12)

올리버는 요셉 스미스와 함께 침례 요한에게서 아론 신권을 받았고, 이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았습니다. 그는 물문경의 목격자로, 예언자의 보좌로, 십이사도를 선정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자로, 교회를 서부 변방으로 넓혀가는 선교사로, 그리고 위대하고 설득력있게 말한 교사요 웅변가로서 그 신권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서서 렌즈의 다른 쪽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점을 찾고 불평했습니다. 그의 부름은 위축되고, 자신의 신권을 감소시켰으며, 교회에서 권능을 지닌 자들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설득력있는 음성도 사라졌고, 그가 한때 지니고 있어 영화롭게 한 하나님의 신권의 권세도 사라졌습니다. 11년 동안 그는 친구도 없이 거의 혼자 지냈으며, 가난과 병고에 시달렸습니다.

그후 1848년 가을에, 그와 그의 가족은 카운슬 블러프스로 가서 그 당시 서부로 이동하고 있던 많은 성도들 중에 다시 속하기로 작정했습니다. 1849년 10월 24일 케인스빌에서 열린 대회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와 형제 여러분”

“제 이름은 올리버 카우드리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나는 평의회에서 봉사했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높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나는 ‘거룩한 통역기’라고 하는 우림과 둠뮌을 통해, 하나님의 권세와 은사로 번역되어 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입에서 나오는 물문경의 말씀을 모두(몇 페이지를 제외하고는) 직접 받아 썼습니다.

“나는 그것이 번역된 금판을 내 눈과 손으로 직접 보고 만져 보았습니다. 그 책은 참된 것입니다. 시드니 리그돈은 쓰지 않았으며, 스펠딩이 쓴 것도 아닙니다.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 자신이 직접 적었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거룩한 천사가 내려와 우리에게 아론 신권을 주고, 그것은 지구가 존재하는 한 지상에 남아 있으리라고 말했을 때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나는 또한 높은 곳에서 내려온 거룩한 천사들이 대신권 또는 멜기세덱 신권을 부여할 때 요셉과 함께 있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수 년 동안 나는 여러분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돌아오고 싶습니다. 겸손하게 돌아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직분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을 뿐입니다. 현재 교회에서 떠나 있지만, 회원이 되고 싶습니다. 문으로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문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권을 요구하려 온 것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와서 교회의 결정에 내 자신을 맡기려 합니다. 그러한 결정은 옳은 것임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올리버 카우드리, 제임즈 알 건, 203~204페이지)

그는 받아들여져 다시 침례받았습니다. 그는 산의 계곡에서 성도들과 함께 모이기를 원했으나, 그 꿈을 실현하지



못한 채 1850년 3월 3일에 죽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 위대한 사업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애처로운 이야기입니다. 그가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한 그는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그 부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는 잊혀지고 가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돌아왔지만, 이전의 상태를 다시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충실함에 따라 영광을 얻게 되고 “사람들이 모르는 힘을 저에게 주리라”(교성 24:12)는 주께서 주신 비할 바 없는 약속을 다시는 얻지 못했습니다.

신권 소유자로서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형제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영화롭고 감동적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은 “성령으로 거룩히 되어 몸이 새롭게 되리라.

“저들은 모세와 아론의 자손이 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리니 교회와 왕국과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리라.”(교성 84:33~34)

또한,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저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약속은 없습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았고 알고 있습니다. 나는 세인트 조지 성전에 있었던 어느 날 그런 사람 몇 명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 형제들을 여러 해 동안 알아 오고 지켜 보아 왔습니다. 그들의 머리는 이제 희어졌고 이전과 같이 활기차게 걷지도 못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사람들은 결코 부유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지혜와 돈독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신권을 지니고 있었으며, 빛 가운데 걸었으며,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집을 떠나 선교사로서 그리고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개인적인 회생을 했습니다. 그들은 감독으로 그리고 스테이크 부장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들은 직업적인 부름이든 교회의 부름을 받아 가든지, 그들의 신앙의 불꽃으로 불을 붙여 어두웠던 곳에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좋은 때나 나쁜 때나, 해가 비치든지 폭풍우가 치든지, 승리할 때나 패배할 때나, 그들은 자신의 눈을 렌즈의 바른 곳에 대고 그들의 부름을 영화롭게

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영원한 것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부여받은 신권의 권세를 크게 합니까? 참되고 건전한 교리를 가르칠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노니, 왕국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라”(교성 88 : 77)

경전에 나와 있지 않은 것 또는 주님의 예언자가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을 생각하거나 지지하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그러한 부름을 위축시키고 그 사명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오히려 현대 계시에도 나와 있듯이, 그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율법을 묶으며, 간증을 인봉하며, 장차 성도에게 임할 심판의 때를 대비할 수 있게 할지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 곧 이 세상에서 악인을 기다리고 있는 가증한 멸망을 피할 수 있게 하라.”(교성 88 : 84~85)

우리가 합당한 권능으로 부름받은 그러한 책임에 대하여 부지런히 열의를 갖고 봉사할 때 우리의 신권을 영화롭게 하고 부름을 크게 하게 됩니다. 나는 “부지런함과 열의”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이 사업은 이를 위해 일해 준 사람들이 무관심했다면 현재의 상태에 도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적극적으로 힘있게 그리고 일관된 목적으로 하나님 왕국의 깃발을 들고 나아갈 노인이든 소년이든 모든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다.

“누가 주의 편이나?”

지금 보일 때라
두렵없이 묻노니
누가 주의 편이나
(찬송가, 51장)

우리가 실의에 빠진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비틀거리는 사람에게 힘이 되어 줄 때 우리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고 신권의 능력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신권의 권능을 입은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충실하라, 내가 네게 임명한 직분을 감당하라, 연약한 자는 복돋아 주며, 처진 팔을 높이 들며 힘없는 무릎을 강건케 하라.”(교성 81 : 5)

세상에는 실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외로움에 울부짖으며, 귀 기울여 들어주고 이해해 줄 사람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애쓰는 홀로 된 아버지나 어머니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힘도 없고 장비도 없어 페인트 칠도 못하고 마당 청소도 하지 못하는 집도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든든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이 모임에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 주고 그러한 봉사를 통해 스스로 축복받을 수 있는 아른 신권 청소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나갈 때 우리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도를 벗어난 행동을 하고 이기적이 되며, 다른 사람의 관심사나 복지에도 아랑곳도 없이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가져갈 수도 없는 것을 쌓아 놓는 일에 시간을 모두 다 써 버리는 것은 부름을 위축시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덕과 충실함으로 생활해 나가는 것은 신권을 존중하며 그 영향력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부도덕과 불충실은 하나님의 신권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마약을 거절할 힘이 있는 청소년, 맥주나 어떤 종류의 술을 거절할 힘이 있는 젊은이, 부도덕한 일에 대하여 한 마디로 거절할 힘을 지닌 청소년은 집사와 교사와 제사로서의 그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수 있는 노인들이나, 결혼한 배우자에게 온전히 참되고 변함없이 대하는 남편, 성적인 면에서나 다른 어떤 면에서도 자녀를 학대하지 않는 아버지,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권세로 성임받은 신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와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권세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임받았다 해도,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려 하거나, 우리의 교만과 헛된 야망을 채우며 조금이라도 불의하게 인간의 자녀를 지배하며 통어하며 강압하려 하면 보라, 여러 하늘은 스스로 물러가며 주의 영은 슬퍼하시나니, 주의 영이 물러가면 그 사람의 신권 곧 권위는 아멘이나라.

“보라, 저는 깨닫기 전에 홀로 있게 되어 가시를 걷어차며 성도들을 박해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도다.”(교성 121 : 37~38)

강력한 말씀입니다만, 아침에 해가 떠오르듯 참된 말씀입니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족하여 오늘 날까지 좌절해 있으며, 중요성에 가득 찬 마음으로 비참과 악의 수렁에 빠져 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님은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항상 보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처럼 신성한 권능을 지닌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반면에 잘못된 렌즈를 통해 보는 것은 우리의 권세를 약화시키며 우리의 헌신을 축소시킵니다. 그와는 반대의 관점 즉, 참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일할 때,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크게 하고, 들어 올려 주며 힘차고 행복하게 성장해 나가며, 현재와 영원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의 생을 축복하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나의 간증과 증언을 전합니다. 우리가 지닌 이 성스런 권세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며 그가 사랑하시는 아들의 이름으로 행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총관리 직원

대관장단



고든 비 윙클러 부대관장



에즈라 트라프트 본슨 대관장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십이사도 정위원회



하워드 더블류터



보이드 케이 배커



마빈 제이 에유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스 이 퍼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리절 캄벨슨



덴진 제이치 콕스



저리얼 헬라드



조셉 비 웨인



리처드 제스 코프트

칠십인 회장단





안철 아브라함



에프 엔지오 부쉬



로이든 지 대릭



최 예이제 고을핀드



요시히코 기구찌



하트만 베틀리 예



칼로스 이 예시



존 케이 카머



폴스 디테이



존 예이제 그로버그



에드나 와이 고라쥬



렉스 시 리프



윌리엄 알 브래드포드



조 제이 크리스틴슨



로렌시던



더블류 유진 벨튼



조지 페리



헨스 비 링거



테드 이 브루어른



진 앙글락



폴 예이제 던



제프리 앙 폴린드



예이제 버크 피터슨



로버트 엘 심슨



비터 셀 브라운



테릭 예이 커스버트



본 제이 퍼디스트운



에프 버논 하워드



맥스 디 피테가



로버트 이 텔스



다이도어 켈 버븐



아랍 디아가



켈리 토마스 파이안스



말린 케이 켈튼



로널드 이 포용맨



칼로스 예이제 아마다



조지 아이 커닌



로버트 비 하버슨



존 알라스티



스펜서 예이제 오스본



존 소넬버그



예이제 발란 엔더슨



앨버트 톨드 이세



디버이 해리스



리처드 퍼 윈저



앨윈 포터



필립 터 손데그



앤저민 비 켈크스



스펜서 제이 라나디



조지 알 윌 3세



앨런 헉스 라버트



글렌 셀 러드



린 예이 소펜슨



몬트 케이 브러크



로이드 피 조오저



멜롬 셋 켈슨



디글러스 제이 마블



기드너 예이치 러셀



러셀 시 테일러



할도 피 볼



프랜시스 영 기렌드



에프 아더 케이



제럴드 이 웰친



로버트 이 세를리



호레이오 예이 터노리오



헬리오 알 카다코



에프 웰민 하운드



앨리오셀 펜드릭



임백신더 피 모리슨



다글라스 예이치 스미스



키드 더블류 윌콕스

관리 감독단



헬리 비 아이어링



로버트 디 해일즈



글렌 셀 페이스

총관리 명예 회원



조셉 윌더슨



버나드 피 프록벤크



스타일링 더블류 실



헨리드저 스미스



존 예이제 만델버그

하나님께 감사함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나는 독일 민주 공화국에서의 교회에 관한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보살핌이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랜 준비 기간이 끝났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펼쳐졌습니다.”



교리와 성약 1편에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들으라 오 너희 내 교회의 백성들이 높은 데 거하는...이의 음성이 말하노라...너희 먼 곳에 있는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라...”

진실로 주의 음성은 만민에게 미치며 단 한 사람이라도 피할 자가 없나니, 보지 아니할 눈도 없으며 듣지 아니할 귀도 없으며 꿰뚫리지 아니할 마음도 없느니라...

말일에 내가 택한 제자의 입으로 경고의 음성이 온 백성에게 미치리라. 저들이 나아갈 것일때 막을 자는 한 사람도 없으리라 이는 나 주가 저들에게 명하였음이니라.”

정확히 50년 전인 1939년에 유럽 수녀들이 엄숙하게 그들의 공식 입장을

밝힌 문서를 가죽 가방에 다시 집어넣고 대회장을 떠나 각자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평화가 깨졌습니다. 거대한 군대가 국경을 넘어갔습니다 전투기가 공중을 나르고 큰 탱크가 진격해 나갔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유럽에서 철수되어 세계 도처에 재배치되었습니다. 이제 선교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 교회 회원들은 용감하게 나아갔습니다. 살상, 고통 그리고 죽음이 유럽 전역을 덮었습니다.

끔찍한 6년이 지난 후 총소리는 멈추고 거대한 재 건설의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이 몇몇 나라로 다시 돌아갔고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새로운 정치적인 경계들이 생겨나고 국경은 군사 장비로 가득 차고 선교사들은 입국을 거절당했습니다. 그 곳에 있는 우리 회원들은 인내하고 기다리며 열심히 기도하고 충실히 생활하면서 그 기간을 견디었습니다.

1988년 10월 내가 탄 비행기가 베를린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을 때 이들 나라에 대한 생각과 그 백성들 특히 담대하게 자신의 짐을 지고 침묵을 지키며 고생했던 우리 회원들에 대한 염려를 했습니다. 나는 독일 민주 공화국과의 오래된 임무를 생각하며 상념에 잠겼습니다. 20년 동안 이것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습니다. 내 마음은 추억으로 가득 찼습니다. 나의 가슴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차고 넘쳤습니다. 나는 내가 가고 있던 나라에서의 교회 역사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있기 전 지금 우리가 독일 민주 공화국으로 알고 있고 약간 잘못된 용어로는 동독이란 나라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선교 사업의 성공에 관한 한 가장 생산적인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칼 막스 스타트인 캠프트시는 여섯 개의 큰 지부를 이룰 만큼의 회원이 있었으며 북미 이외에서 가장 말일성도들이 많이 집중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때 끔찍한 세계 제2차 대전의 파괴가 있었습니다. 폭격이 그치고 폭탄 소리가 멎었을 때 폐허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오는 두더지와 같이 더럽고 굶주리고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 속에서 “엄마 어디 있어요? 아빠 어디 가셨어요?”라는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폭탄을 맞아 달 표면처럼 뚫린 구멍들 무너진 빌딩들 큰 구멍들 그리고 돌더미 뿐이었습니다. 황량함과 파괴만이 남겨졌습니다.

그때쯤 주님의 예언자는 에스라 테프트 벤슨이라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사명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벤슨 장로는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아내와 아직 어린이들이었던 귀중한 자녀들을 남겨두고 집을 떠나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갔습니다. 그는 독일어를 사용하는 유럽 지역을 동서로 가로질러 갔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축복했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의 봉사에 대한 기록은 뒤따른 발전에 대한 기초가 되었습니다.

독일어를 사용하는 또 한 사람의 위대한 공헌자는 발터 스트로버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나누었으며 아낌 없이 자신의 재산을 내 주었습니다.

1968년 처음으로 내가 독일 민주 공화국에 갔을 때에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믿음과 이해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외교 관계도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어느 날 나는 독일 민주 공화국 깊숙히 폴란드와 체코 국경 근처에 위치한 쾰리프시로 여행을 했습니다. 성도들과의 첫번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는 조그맣고 오래된 건물에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시온의 찬송가를 불렀을 때 문자 그대로 그들의 신앙과 헌신으로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원들이 축복사도 없고 와드나 스테이크도 없고 단지 지부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성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었고 엔다우먼트 또는 인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랫동안 교회 본부로부터 공식적인 방문자가 없었습니다. 회원들은 자신의 나라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 마음을 다 해 주님을 신뢰했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복받치는 감정을

누르며 연단에 서서 그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명에 참되고 충실하다면 다른 나라에서 교회 회원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것입니다.” 그 후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날 저녁 나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이 교회는 아버지의 교회입니다. 저는 제 말씀이 아니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했습니다. 이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첫번째 독일 민주 공화국 방문을 마쳤습니다.

주님의 약속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사가 성임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지역 대표로 페르시 케이 페처 형제가 임명되었습니다. 그런 뒤 그 나라 사람인 발터 크라우제 형제가 축복사에 성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989명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주었으며 그의 아내는 그 모든 것을 타자로 쳐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나는 다시 그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나는 신권 지도자들의 이름이 불러질 때 정원회 운영 방법과

지부의 기능을 다하는 방법에 관한 인쇄된 지침을 얻기 위해 앞으로 뛰어나오던 그 지도자 모임이 기억납니다.

아나베르그 시에서 대회로 가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서 아름답고 나이가 든 한 자매가 앞으로 나와 “당신은 사도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예”라고 대답하자 그녀는 지갑에서 십이사도 정원회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들 중 누구지요?”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에서 제일 나이 어린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이 존 에이 윌트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꽤 오랫동안 십이사도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곧 선교부가 조직되고 첫번째 대제사가 성임되고 지방부 평의회가 조직되었습니다. 프라이베르그에 시온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으며 그 후 또 다른 스테이크가 라이프치히에 조직되었습니다. 이제 독일 민주 공화국에 있는 모든 교회 회원은 교회의 스테이크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접견한 한 지부장은 21년동안 그 직책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는 42세밖에 안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반을 그는 지부장으로 봉사했지만 그는 기꺼이 어떤 임무든지 수행하고자 했습니다. 회원들은 열심히 그들의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일들이 있을 후 땅에 대한 특별한 헌납이 있었습니다.

1975년 4월 27일 일요일 아침에 나는 드레스덴과 엘베강 위 마이슨 시 사이에 있는 우뚝 솟은 돌 위에 올라 그 땅과 그 백성들에 대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에는 회원들의 신앙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축복을 얻기 위한 벅찬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많은 사람들의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간구가 표현되어 있고 거룩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이것이 이 땅에 있는

당신 교회의 회원들에게 새날의 시작이 되게 하소서.”

갑자기 멀리 계곡 아래 교회 탑에 있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고 날카로운 수탉의 울음 소리가 아침의 정적을 깼습니다. 모두 새로운 날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태양 광선의 따스함이 나의 얼굴과 손과 팔에 비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비가 아침 내내 내렸습니다.

기도를 마치면서 나는 하늘을 쳐다 보았습니다. 나는 큰 구름 사이로 뻗어 내려오는 태양 광선을 보았는데 그것은 우리 소수의 사람들이 서있는 곳을 비추 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가까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일은 진전되었습니다. 필요한 가장 큰 축복은 우리 합당한 회원들이 그들의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는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일을 알아보았습니다. 평생 한번 스위스에 있는 성전으로 가는 것? 이것은 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을 남겨두고 스위스에 갈 수는 있었을 겁니다. 옳은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연단에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면 어떻게 자녀들을 부모에게 인봉하겠습니까? 그것은 비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 많은 회원들의 금식과 기도를 통해 가장 자연스런 방법을 정부 지도자들이 제안했습니다. “교회 회원들을 성전 방문을 위해 스위스로 가게 하기 보다 이곳 독일 민주 공화국에 성전을 세우는게 어떻겠소?” 그 제안이 받아들여졌고 프라이베르그에 귀중한 자산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한 땅이 파졌습니다.

헌납식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고든 비 헝클리 부대관장이 헌납 기도를 했습니다. 그 날 하늘은 가까이 있었습니다.

크기에 비해 이 성전은 교회에서 가장

바쁜 성전 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엔다우먼트 세선에 참석하기 위해 약속을 해야 하는 유일한 성전입니다. 그것은 내가 알기로 “모든 사람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가정 복음 교육이 다소 떨어지는 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스테이크 부장이 말하는 유일한 성전입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건 나쁜 것이 아니야. 전혀 나쁜 것이 아니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적중의 기적이 일어 났습니다. 필요한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습니까? 교회 회원은 나이들어 가는 데 어떻게 회원 수를 늘릴 수 있었습니까? 아름다운 새 건물들이 그 나라를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라이프치히와 드레스덴에 있는 스테이크 센터, 프라이베르그와 츠비카우에 있는 예배당들과 플라우엔시에 건축중인 예배당과 같은 건물들입니다. 플라우엔으로부터 한 충실한 형제님이 이러한 통절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 부모님과 조부모님들이 전에 이 지부에서 봉사하셨지만 결코 우리의 집회소를 갖는다는 것이 가능한 일 같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오랜 간절한 염원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 감동적인 내용을 읽은 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집회소를 채울 충분한 회원들이 없다면 그 건물을 무엇에 쓰겠는가?”

그것이 10월 오후 비행기가 베를린에 착륙했을 때 나의 마음에 맨 먼저 떠오른 딜레마였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임무를 띠고 독일 민주 공화국의 지도자들을 방문하기 위해 갔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승인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러셀 엠 넬슨 장로님, 한스 비 링거 장로님 그리고 우리 지역 독일 민주 공화국 지도자들이 헨리 브르크하르트 부장, 프랑크 아펠 부장, 만프레드 슈체 부장의 영접을 받고 곧 중무담당 쿠르트 뢰플러 장관을 만났는데 그들은 우리를 위해

훌륭한 오찬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회원들을 20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들이 되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압니다.

정부 지도자들이 부인과 함께 드레스덴에 있는 스테이크 센터와 츠비카우에 있는 예배당 헌납식에 참석했습니다. 성도들이 “우리 다시 만나 불 동안”을 불렀으며 우리는 평양의 왕이시며 갈보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분을 기억했습니다. 나는 고통의 길, 눈물의 길 그러나 의의 길을 걸었던 우리 주 구세주를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음을 파고드는 그의 다음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한복음 14:27)

그런 다음 국가 수반인 에리히 호네커 의장과 중요한 모임을 갖기 위해 베를린으로 갔습니다.

그 특별한 아침에 햇빛이 베를린 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지만 이제는 활짝 개었습니다. 우리는 정부 수석 대표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정교하게 세워진 건물 입구에서 호네커 의장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자녀가 아버지에게로 첫번째 발을 내딛도록 돕는 어머니를 묘사한 “첫 걸음”이라는 조그만 조각상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 선물을 받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개인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큰 둥근 테이블에 우리는 앉았습니다. 테이블 다른 쪽에는 호네커 의장과 정부 대표들이 앉았습니다.

호네커 의장은 이렇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교회 회원들이 일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알고 있으며 여러분은 그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족에 대한 믿음이 있음도 압니다.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고향이라고 부르는 어느 곳에 있는지 훌륭한 시민임을 알고 있으며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발언권을 드립니다.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네커 의장님 프라이베르그에 있는 성전 헌납식과 개관식에 89,890명의 귀국 시민이 4시간씩이나 어떤 때는 비를 맞으면서도 줄을 서서 하나님의 집을 보고자 했습니다. 라이프치히시에 있었던 스테이크 센터 헌납식에는 12,000명이 건물 개관식에 참석했습니다. 드레스덴시에는 29,000명이 방문했고 츠비카우시에는 5,300명이 참석했습니다. 프라이베르그시에 있는 성전에는 매주 1,500~1,800명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국가의 법을 존중하고 순종하며 지지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강한 가족 유대를 이루려는 우리의 소망을 설명해 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많은 우리 믿음중에 두가지일 뿐입니다. 우리는 질문에 답할 수 없고 우리의 느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같은 선교사 제도가 이 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귀국에 선교사로 보내려는 젊은 남녀들은 귀국과 귀국의 백성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귀국 백성들에게 품위를 높여 주는 영향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 교회 회원인 귀국 젊은 남녀들이 다른 여러 나라 즉 미국, 캐나다, 기타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들은 귀국에서 책임있는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갖추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 다음 호네커 의장은 약 30분 동안 그의 목적과 관점을 이야기하고 국가에서 행해지는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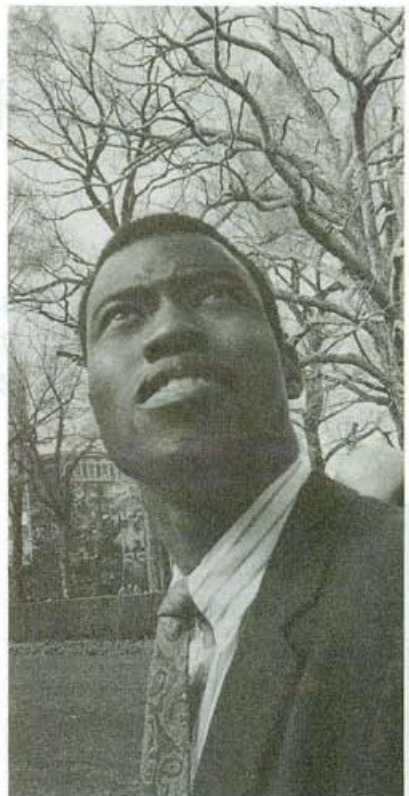
주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미소를 지으며 나와 일행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경험했습니다. 선교사 요청을 승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는 정신이 나간 것 같았습니다. 모임은 끝났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정부 공관을 떠날 때 러셀 벨슨 장로님이 나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햇빛이 이 홀을 비쳐주고 있음을 보십시오. 그것은 마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는 기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깜깜한 밤의 어두움이 끝났습니다. 낮의 밝은 빛이 떠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그 나라에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교회에 관한 그들의 질문은 답을 얻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왕국은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주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떠한 일로도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지 못하되 다만 만사가 하나님의 주관아래 있음을 고백하며”(교성 59:21) 나는 독일 민주 공화국에서의 교회에 관한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 하나님의 보살핌이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나라에 있는 우리 회원들의 신앙과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기타 총관리 역원과 지역 대표 및 선교부장들의 헌신적인 봉사도 말할 수 없는 만큼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부 지도자들의 너그러운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독일 민주 공화국에 온 최초의 10명의 선교사들에게 해외에서 봉사하도록 임무가 지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3월 전 3월 30일 목요일에 첫번째의 복음 선교사가 꼭 50년 만에 독일 민주 공화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선교부장이 그 곳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오랜 준비 기간이 끝났습니다. 교회의 미래는 펼쳐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늘로 부터 우리는 다시 주님의 선언을 듣습니다.

“들으라.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거기사는 주민들아, 기뻐하라. 주는 하나님이지요, 주 외에는 구세주가 계시지 아니함이라.

“그의 지혜는 위대하시며 그의 길은 놀라우시니, 그가 하시는 일의 한계는 아무도 알아내지 못하도다.

“그의 목적은 실패하는 때가 없고 그의 손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나니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교성 76:1~3, 5~6)

이것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청녀 청남에게

보이드 케이 팩커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여러분은 일생 동안 여러분의 용기를 시험하고 신앙을 고취시킬 사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빛을 향해 서면 낙담과 죄와 과오의 그림자는 여러분의 뒤로 드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문은 부대관장님은 이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나는 언젠가 인도의 어떤 신문에서 오려낸 기사를 받았는데 그것은 내가 이 연단에서 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지금 듣거나 혹은 후에 읽은 사람 중에는 이 놀랍고도 격정스러운 십대의 시절을 열심히 헤쳐 나가고 있는 청남 청녀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약 70개국에서 십대들을 만났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살기 위해 막대기로 세운 정글의 작은 집에서부터 도시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머물러 보았습니다. 나는 인생의 여정에서 여러분보다 약

50년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추억은 꽤나 아름답고 여러분의 나이에서 느끼는 그러한 것을 조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와 손자들이 십대의 느낌에 대한 나의 추억을 새롭게 해줍니다.

몇 년 전에 우리는 어느 조그만 식당에 들렀습니다. 식사를 날라다 주는 젊은 아가씨는 예의 바르기는 했으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나에게 계산서를 건넬 때, 나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도시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 주겠어요?” 갑자기 그 아가씨는 눈물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 도시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몇 번이고 구석에 있는 탁자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 아가씨를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십대의 소원

십대들, 심지어 청남까지도 때때로 눈물을 터뜨리며 “선생님, 저는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조차도 모릅니다.”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구이며 왜 여기에 왔으며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궁금해 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때때로 인생이란 불공평하며 왜 남들이 갖는 것을 여러분은 갖지 못하는가 하고 생각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심지어 왜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여러분의 육체를 보다 아름답고, 더 미인으로 보이는 사람 또는 더 재능이 있거나 명석하거나 힘이 세거나 날씬한 사람과 바꿀 수가 없으며 또는 여러분보다 부끄러움이나 실수나 겁이 없는 성격과 바꿀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왜 부모님들을 보다 훌륭한 부모와 바꿀 수 없을까 생각할 것입니다. 사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도 때때로 여러분들 같이 살기에 좀 더 편한 사람과 바꾸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은 그와 같은 느낌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우리의 좌절의 일부를 극복해 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가 여러분의 나이였을 때 보였던 것처럼 중대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십대와 같습니다. 언젠가는 곧 여러분도 우리의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른 세계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보다는 여러분을 위해 더 안전하고 쉬워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십대였을 때에는 없었던 각종 유혹이 여러분을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AIDS는 없었으며 약은 의사가 처방한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탐정 소설을 통해 아편에 대해 알았으며, 스테로이드, 마약, 코카인 등은 미래의 상상에 속한 것들이었습니다.

정숙은 경멸되지 않았으며, 도덕과 예절은 오늘 날 그 반대되는 것들이 소중히 여겨지는 것 만큼이나 책이나 영화에서 소중히 여겨졌습니다. 성적 도박은 입에 담지도 않았으며 생활 양식으로 인정되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과거에 외설로 피하던 것을 여러분은 이제 초저녁에 텔레비전에서 봅니다.

여러분의 당면 문제는 우리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우리 세대중에서 여러분과 입장을 바꾸려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여러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안심입니다. 우리 중 그것을 견딜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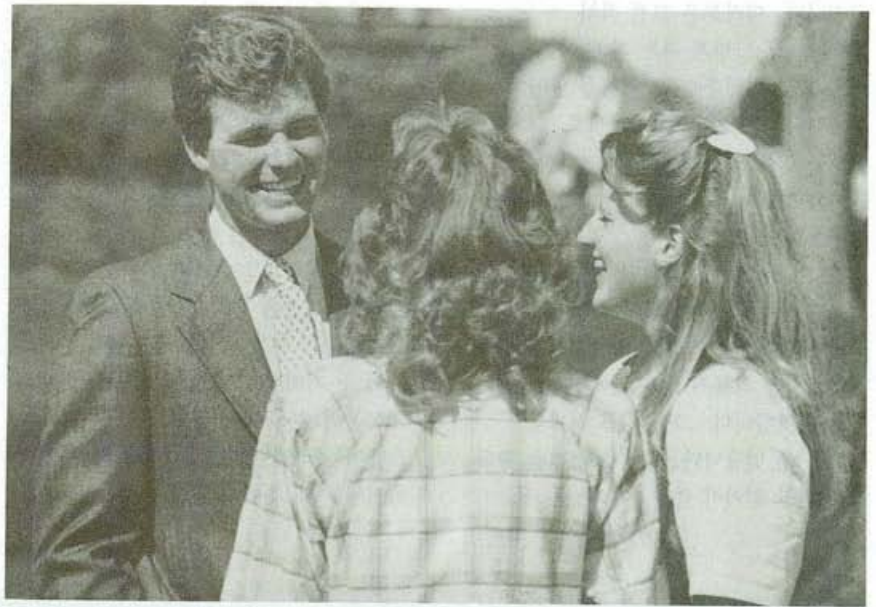
그러나 젊음은 얼마나 훌륭한 시기입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소유해야 할 필요 이상의 많은 것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세대보다 더 낮고 강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여러분 청년 청년들이 세상의 문제와 도전에 맞서서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흑기사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은 왕자이며 아더왕의 원작의 기사인 가렛과 그의 원정에 대해 말했습니다. 리오노스의 아름다운 처녀는 무서운 흑기사에게 납치되어 그의 성 안에 갇혔습니다. 많은 젊은 기사들이 그녀를 구출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힘을 가진 흑기사에게 패하고 그의 이야기에 겁을 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가렛에게 가지 말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가렛은 도개교와 탑이 있는 성으로 가 리오노스 처녀가 "손을 꼭 잡고 울고 있는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검은 말 위에 높이 앉아 죽음의 흰 흉골과 메마른 늑골이 새겨진 검은 갑옷을 입고", 웃고 있는 두개골이 새겨진 투구를 쓰고 희미한 불빛을 반쯤 받으며 그 괴물이 다가왔습니다." 가렛이 들었던 것보다 더 무섭고 끔찍했습니다. ("가렛과 리네트", 알프레드 로드 테니슨 시 전집, 311~333페이지, 영문)

흑기사는 그의 창을 밀로 향해 들고 번개같이 달려왔습니다. 마상 시험에서 한번 이상을 패했던 가렛은 참혹한 운명을 느꼈습니다. 모든 논리와 감정은 "살기 위해 피신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렛은 창 끝을 내려 들고 돌격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렛은 흑기사를 쳐서 말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헬멧을 벗겼습니다. 뼈가 그려진 검은 갑옷을 입은 기사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울음을 터트리며 자비를 구했습니다.

청년 청년 여러분, 생활하면서 수많은 경기장에서 졌을지라도, 여러분의 도전자가 얼마나 무섭게 보일지라도, 몇 가지 단순한 교훈을 배운다면 그것이 흑기사의 성 앞 다리 위에 있는 가렛과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왕의 가문

가렛은 왕자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은 왕의 가문 즉 하늘 왕의 자손입니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겨 굳게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가계에 얼마나 많은 세대가 쓰여 있든, 어떤 민족을 여러분이 대표하든, 여러분의 영의 가계는 하나의 계통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필멸의 육신을 입은 영으로

되어 있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마음의 도구이며 성격의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을 해하거나 그 기능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취하지 마십시오. 중독성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몸 속에는 생명을 날게 하는 힘, 즉 창조에 한 몫을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의 유일한 합법적 사용은 결혼 성약 내에서 뿐입니다. 그것의 합당한 사용은 여러분의 행복의 열쇠가 됩니다. 그 힘을 때가 이르기 전에는 그 누구와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그것이 빈번해졌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작용하지만, 지식을 연마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성만으로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될 수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신앙에 의해 성숙된 이성이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면

한 가지 경고할 것은 영적인 것에도 어두운 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간의 유혹이나 무분별한 허세 때문에 십대들은 사탄을 숭배하는 도구가 되도록 유혹받아

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와 어울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위험을 알지 못합니다. 그것에서 떠나십시오. 그 어두운 면에 속하는 것까지 어리석은 놀이와 활동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떠나십시오.

가렛이 흑기사를 대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보다 더 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렇게 함으로써 조롱을 당하겠지만 의롭지 않은 일에서 도망쳐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용기는 지혜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그 지혜를 얻어야 하며, 여러분은 지금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은 육체와 영에는 경보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몸 안의 그것은 고통이며, 영 안의 것은 죄책감, 즉 영적인 고통입니다. 고통이나 죄책감은 즐거운 것이 아니며, 그러한 것이 지나치면 파괴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그것을 다시는 하지 말라”는 경종을 울려 주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주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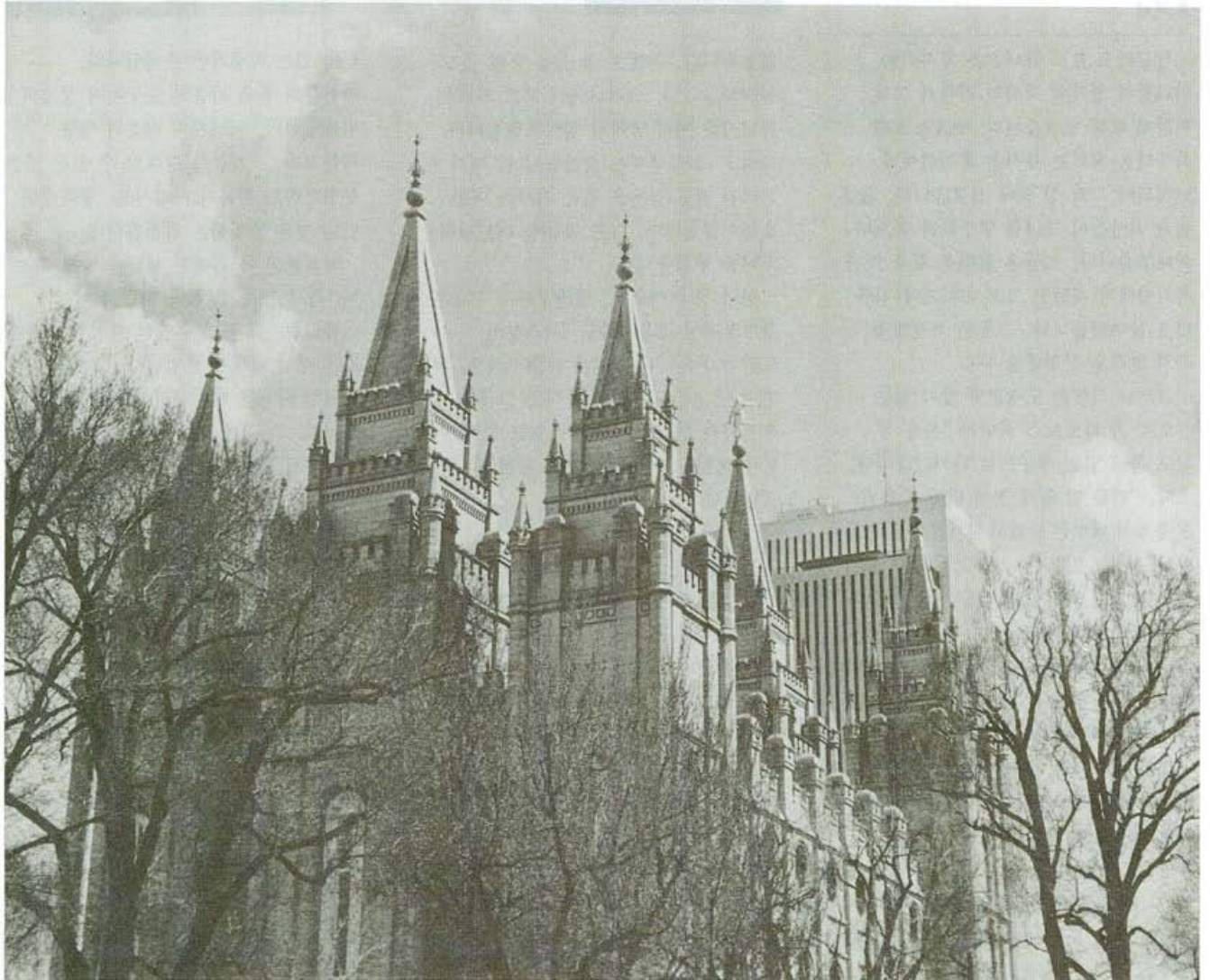
이 두 가지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손 끝의 신경이 변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손을 불 속이나 기계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칠

것입니다. 여러분 심대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니파이이서 2:5) 여러분 안에 있는 영적인 경고의 음성에 유의하십시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잘못을 전혀 범하지 않고 청소년 시기를 지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용서

어떤 심각한 잘못을 범한 자들은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잘못은 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코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유혹은 우리가



여러분의 시기였을 때 받았던 것 보다 크지만, 그것은 주님의 심판대에서 고려될 것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자녀의 상태에 알맞게 주께서 자비를 베푸실 것임이라”(교성 46 : 15)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 만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한 위대한 공헌의 하나는 죄를 지우기 위해 공의와 자비와 회개와 용서가 어떻게 서로 협력하는가에 대해 물론경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한번 또는 일련의 죄를 범하게 되면 이것은 영원히 너무 늦은 것이라는 절망적인 생각은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잊으시고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이사야 43 : 25; 히브리서 8 : 12, 10 : 17; 교성 58 : 42; 앨마서 36 : 19 참조)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비누와 같아서 죄를 씻어 낼 수 있습니다. 죄가 너무 많을 경우 때를 빼기 위해 강력한 교훈의 세제가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그 때는 빠질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

십대들은 종종 “무슨 소용이야? 세상이 곧 산산이 터져 버리든가 종말이 올텐데”하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느낌은 신앙에서 온 것이 아니고 두려움에서 온 것입니다. 아무도 그 시작과 날을 모릅니다. (교성 49 : 7) 그러나 주님의 모든 목적이 성취되기까지는 종말은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계시와 체험으로부터 배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조심스럽게 긴 생애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도 십대의 자녀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 때 여러분은 댓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후에 여러분의 손자를 망치면, 그들은 차례로 그들의 손자를 망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찍 죽는다면,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아무리 제약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귀중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중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잘 생긴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시험이 따릅니다. 그것이 필멸의 삶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자만심이 적으나 부유하게 태어난 사람은 교만에 물들 수가 있습니다. 교만은 치명적인 영적 바이러스입니다. 영원한 계획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씀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만일 사람이 내 앞에 이를진대 내가 저들의 연약함을 보이리라. 내가 사람을 연약하게 하였음은 저들로 겸손해지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은 내 앞에 겸손하게 임하는 자 모두에게는 흡족할지니, 저들이 내 앞에 겸손하여 나를 믿는 신앙을 가질진대 내가 연약한 것들을 강하게 되게 하리이다.”(이더서 12 : 27)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소유한 것 혹은 소유하지 않은 것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 보다 더 큰 의로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젊음은 얼마나 훌륭한 시기입니까! 여러분은 일생 동안 여러분의 용기를 시험하고 신앙을 고취시킬 사건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빛을 향해서면 낙담과 죄와 과오의 그림자는 여러분의 뒤로 드리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결코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생활하면 무서운 힘을 가진 검은 갑옷을 입은 기사는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런고로 기운을 내어 기뻐하라. 네 허리 띠를 동여 매며 나의 온전한 갑옷을 입어 악한 날에 견딜 수 있게 하고 모든 일을 수행하여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라. “그러므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동여 매며 가슴에는 의의 가슴판을 달며 내가 너희에게 보낸 나의 천사가 맡긴 평화로운 복음의 준비로 신을 신고 일어서라.

“왼 손에는 악한 자의 불 화살을 날날이 끌 수 있는 신앙의 방패를 가지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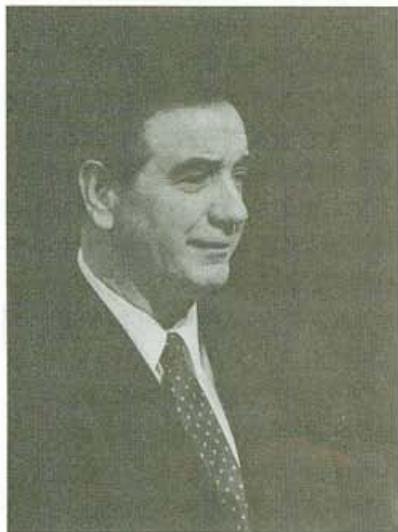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오른 손에는 내가 너희에게 부어줄 성령의 검을 들고 입에는 너희에게 계시할 말씀을 가지라. 또 너희가 내게 간구한 것은 무엇이든 주는 대로 다 만족하며 내가 올 때까지 충실하라. 그리하면 너희도 이끌려 올라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되리라.”(교성 27 : 15~18)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해 염려스러운 십대를 헤쳐 나가는 청녀 청남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도 자신이 누구이며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결코 희망을 잃지 않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세주와 구속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며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그분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대가족

제이 리차드 클라크 장로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우리가 지상의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배울 때, 우리 마음은 자연스럽게 영의 세계에 있는 친척들에게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10월부터 교회 가족 역사과의 연관을 맺게 된 것은 나에게서는 축복입니다. 교회 가족 역사과의 목적은 우리가 성전 성약과 의식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게 할 때 오는 기쁨을 각자 경험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유명한 뿌리의 저자인 알레스 헤일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유산을 알고자 하는, 즉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를 알고자 하는 원초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마음을 채워주는 이 지식이 없이는 공허와 동경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생에서 무엇을 얻든지 여전히 공허함과 더할 나위 없는 불안함이 남습니다.

가족 역사를 통해 우리는 창조의 숲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인 우리

가족의 계보를 발견합니다. 그 뿌리는 역사를 거슬러 태초까지 가며, 그 가지는 영원으로 뻗어갑니다. 가족 역사는 영원한 사랑의 광대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비 이기적인 것에서 비롯됩니다. 그것은 가족의 단합을 영원히 굳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해줍니다.

모로나이는 어린 요셉 스미스에게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세상에서 없어진 거룩한 신권의 목적과 권세와 축복을 다시 밝혀주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회복해 줄 열쇠를 통해 고대에 우리 선조에게 했던 약속들이 말일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을 선조에게 돌릴 수 있고, 이 영감적인 약속을 통하여 지상 생활에서의 거룩한 관계가 영원히 넓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상의 가족이 하늘 나라의 가족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톡홀름의 루터 교회 감독인 크리스터 스팅달 박사는 스웨덴에 있는 우리 성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뜻 깊은 소감을 표했습니다. “훌륭하지 않습니까?” 오직 물물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축복을 무덤 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넓히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맞습니다. 속죄의 축복이 무덤 너머까지 넓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조상의 가족을 보호하고 하나로 만들기 위해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성경 초기의 문화에서, 가족은 부모와 자녀 단위 이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혈연과 결혼으로 맺어진 모든 사람이 포함되었습니다. 오히려 친족이라고

부르기가 더 나은 이 가족은 자발적인 애정과 족장의 신권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연장자는 그의 경험과 지혜로 인해 존경받았습니다. 많은 수가 함께 있음으로 강하고 안전했으며, 사랑과 협조로 가족들은 단합과 일관성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날 세계의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상황들은 그러한 친족 체계에 위배되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 세대에 거쳐 악의 힘은 가정을 위협해 왔습니다. 왜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는 데 그토록 열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가정은 그가 가장 원하지만 가질 수 없는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남편이나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는 현재나 영원토록 자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끌어 낸 자들조차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영원한 왕국이나 유산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여전히 사회의 가장 강하고 가장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가정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는 가정의 관심사에 부속되어 왔습니다. 희생이 이기심을 앞섰습니다. 성에 대한 존경과 충성, 서로의 성취에 대한 금지, 그리고 함께 나누는 값진 시간이 압도해 왔습니다.

나는 운 좋게도 그런 가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친척들이 가족 활동, 선교사 환송, 또는 결혼식을 돕기 위해 장거리 여행을 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 나이 많으신 아주머님은 아직도 브리감 영 대학에 다니고 있는 4대 자손들을 가정의 밤을 갖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대를 통해 그 자녀들은 복음의 성약을 지키는 데 서로를 강화시켜 주고 있습니다.

말일 대가족 체도가 제대로 작용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은 도움이 필요한 때에 있는 모든 가족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자원들로 가족이 자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늙으신 부모를 돌보는 일이 짐이 아니라 축복이라고 여길 것입니다.

나는 수년 동안 부모로부터 떨어져 다른 주에 살고 있던 딸과 어쩔 수 없이 함께 생활하게 된 어떤 홀아비를 알고 있습니다. 그 딸은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것에 대한 사랑을 이제야 보일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을 자기 본위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했던 지난 소중한 기간이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나에게 얘기했습니다.

신권은 대가족 가정을 강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권능입니다. 신권의 가장 거룩한 특권 중의 하나는 자신의 자녀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 나는 태버내클에서 스티어링 실장로가 자신의 회원 기록 카드에 열거된 중요한 신권 의식들을 집행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내 기록 카드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내가 성장할 때 교회에 활동적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충실한 대제사가 되셨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나는 이것을 곰곰히 생각하면서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제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싶어요." 그는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글쎄, 다음에 네가 렉스버그에 올 때 보자꾸나."

나는 계속 즐겼습니다. 내가 알기로 아버지는 이전에 한 번도 가장의 축복을 준 적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격정되었던 것입니다. 84세가 되는 아버지께서 떨리는 손을 나의 머리 위에 얹으셨을



대회 방문자

때, 이 아들은 자랑스런 아버지께서 그의 감동적인 말씀 때문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로부터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기록하고 결코 비할 수 없는 것으로 간직될 가슴에서 쏟아내는 축복의 말씀을 듣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이런 특별한 경험을 거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가정을 관리하고 그들을 축복할 신권 소유자가 없는 편모 슬하의 가정의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것을 꺼려하며 그들의 가정 상태에 대해 무심히 한 말에 의해 자주 감정을 상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때때로 물론 가정 생활의 주류로부터 떨어져 나간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특히

합당한 신권 소유자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정원회 형제애와 상호부조회 자매애에 대한 본보기를 찾을 수 있는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대가족 가정의 일원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와드 내의 각 가정은 손을 뻗어 사랑의 관심을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계획 안에서는 아무도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입니다.

우리가 지상의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배울 때, 우리 마음은 자연히 영의 세계에 있는 우리 친척들에게 돌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 장막 저편에서 생활하는 동안 그들의 가족인 우리가 신권 의식의 축복을 나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가족에 속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최근 개종자로서 갑자기 가족 역사를 작성하는 일에 몰두해 있는 자신을 발견한 워싱턴 디시 지역에 살고 있는 한 독신 성인의 간증에 의해 감명을 받았습니다. 몇 사람의 친척을 위한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첫번째의 거룩한 경험을 한 후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이 느낌을 표현했습니다. “이제 나는 우리 가족중에서 유일한 회원은 아닙니다!”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의식은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줍니다. 가족 역사 기록부를 완성하는 과정은 경비가 많이 들거나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을지는 모르나,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아리조나 주 플래그스태프에 사는 린다 시몬 자매의 양해를 얻어 나는 그녀가 보낸 훌륭한 편지의 일부를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젊은 부부입니다. 남편과 나는 33세이고, 세 명의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생활에서 바쁜 때입니다. 수 개월 동안 우리 와드 계보 담당자인 다이아나 자매가 정규적으로 전화를 걸어 우리가 가족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 그녀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우리는 물론 그녀가 전화해 주는 것에 감사했지만 리오나 아주머니, 넬리 조카, 그리고 베르다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때에 나는 연사인에 실린 가족 역사를 위한 8½ x 11인치되는 새로운 양식에 호기심이 생겨 이것을 다이아나 자매에게 얘기했더니 일주일 후에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것을 열람 보고 그 양식에 우리 자신의 이름을 적어 놓으면 얼마나 멋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많고 적극적인 가족 역사 담당자와의 간단한 경험으로 우리는 가족 역사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모두 여러 세대에 걸친 물론 가정 출신입니다. 우리는 조상을 위한 의식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가족 기록서를 수집하지 불과 몇 개월도 안되어 우리는 이 사업에서 주님의 손길을 확신시켜 준 너무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44명이 침례를 받고, 45명이 엔다우먼트를 받고, 29명이 부모에게 인봉되었으며, 16명이 결혼 인봉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됐다”고 생각하던 기록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을 위한 의식을

집행하면서 성전에서 느꼈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떨어져 살았던 가족 관계가 치유되었습니다. 우리의 먼 친척도 참가했습니다. 우리는 성명들을 다섯 군데의 성전으로 보내 성전 사업을 완수하는 것을 돕는 데 있어 우리가 하나로 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는 조상을 위한 단 한번의 성전 경험을 하더라도 이 사업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 흥미로운 사업에는 나이를 막론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진지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선조와 자손 사이에...굳게 연결하는 줄이 없을 때에는 이 세상은 저주를 받는다 함이니...이는 죽은 자 없이 우리가 완전해 질 수 없고 우리 없이 죽은 자들이 완전해 질 수 없음이니라”(교성 128:18)

태초 이전 천국 회의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인간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일을 돕기로 굳게 성약을 맺었습니다. 존 에이 윌소 장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우리 중 가장 적은, 가장 겸손한 자가 영원한 구원의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전능하신 분과 동반자가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무이며, 기쁨과 즐거움이며, 그의 사업이며, 궁극적으로 그의 영광입니다. 그러한 교리에 의해 우리는 주님을 선두로 한 시온산의 구세주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사업이 참됨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신권 성약으로부터 오는 성약을 통해 친척들과 영광스런 재회를 기대할 수 있음을 간증합니다. 나는 우리가 예언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업을 행함으로써 오는 가장 큰 기쁨을 상속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상밖의 결과에 대처함

닐 에이 맥스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인생의 수많은 예상밖의 결과를 당하며 우리는 하나님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부당함을 아시지 못하셨을까? 아셨다면, 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일까? ...만사가 그러하듯이 예상밖의 결과에 대처하는 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읽는 구절은 참으로 섬찳한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주의 백성을 징계하시고 저들의 인내와 신앙을 시험하시리라.”(모사이야서 23 : 21)

이 엄숙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역경에 대해 영적으로 깨어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상밖의 결과란 “불운이라는 빵”의 껍질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인내심을 함께 시험할 수 있습니다. 예상밖의 결과는 특히 혹독한 정벌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기대했던것과는 전혀 다른 혼잡한 부조화와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훌륭하게 생각해 낸 계획도 허사가 되고 맙니다.

어떤 사람이 절박한 시기에 한 동안 널리 쓸 것을 기대하고 어떤 중요한 역할을 눈에 띄이게 꾸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은 짧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략적인 승리는 아주 가까운 듯이 보이다가 물러가고 결국에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온유하지 않고는 그와 같은 예상밖의 상황은 대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무심히 내뱉는 한 마디가 결국은 대화나 화해로 푸는 것보다 더 비중이 큰 어떤 상태로까지 몰고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참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머리속에 든 생각을 고집스럽게 버리지 않으며, 우리의 생각이 잘못 되었음을 인정하라는 현명한 충고를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지는 것이 실제로는 이기는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무릎꿇고 드리는 고뇌의 기도에서 발전을 이루게 되기도 합니다.

예상했던 결과가 뒤집혀져, 예상밖의 결과로 개인이 상처를 받게 되는 원인이 흔히 발생합니다. 자만심이 더 크고 다스려지지 않을수록 식초나 쓸개를 맛보는 듯한 시련을 겪을 때는, 더욱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하필 지금 일어날까?”하는 말을 곧잘 하게 됩니다. 이러한 말은 영적인 통제를 잃게 합니다. 그러한 말은 위안을 냉혹하리만큼 거부하며, 놀라우리만큼 실망과 냉혹함의

거리를 좁힙니다.

인생의 수많은 예상밖의 결과를 당하며, 우리는 “하나님은 이처럼 고통스러운 부당함을 아시지 못하셨을까?” “아셨다면, 왜 그것을 허락하신 것일까?” “나는 자격이 없는 것인가?”하는 의문을 떠 올리는 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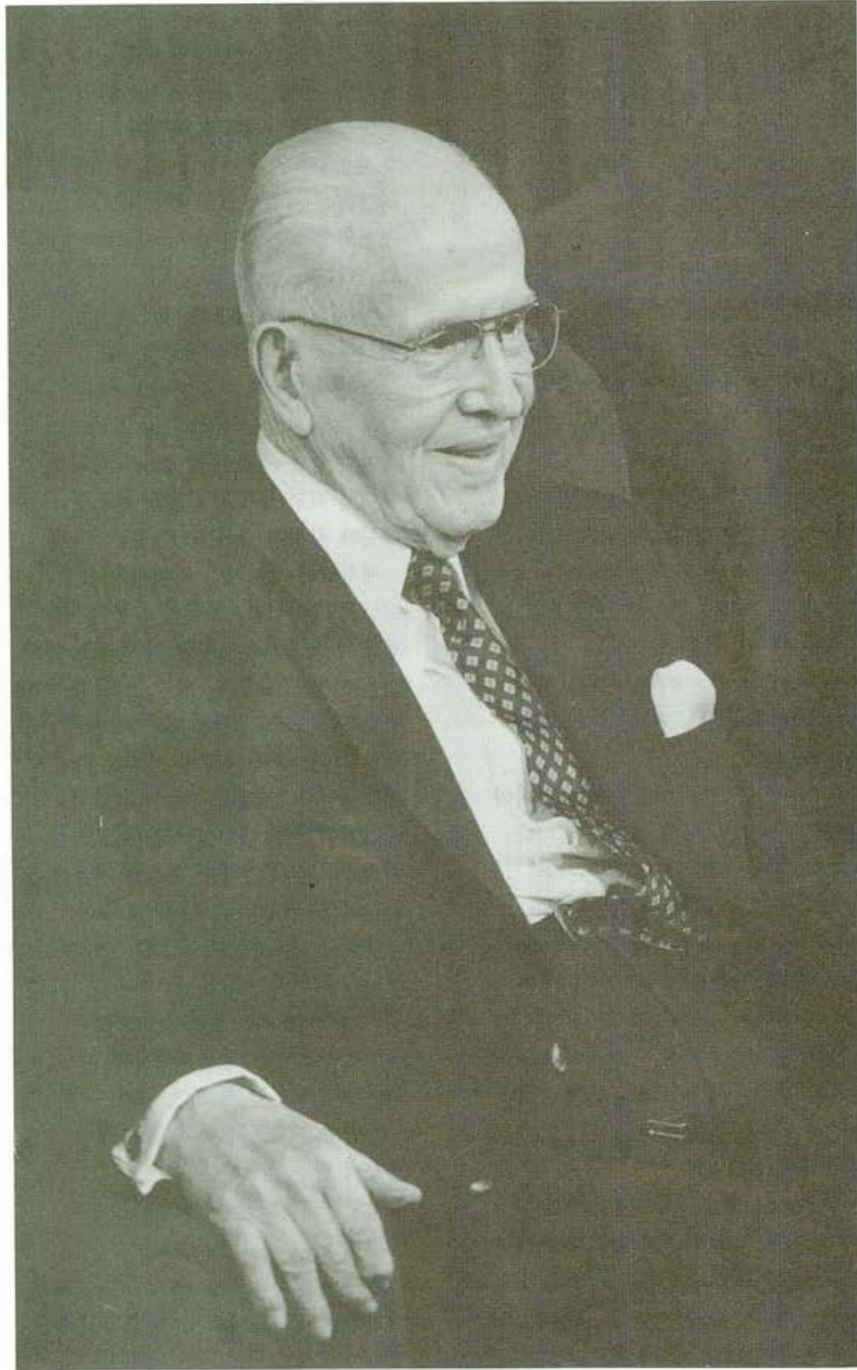
계획 그 자체에는 우리의 운명이 우리 손안에 놓여 있음을 예상합니다. 그러다가 방해자가 끼어들고, 일단 밀어 제껴지게 되면 기대했던 것 그리고 그나마 얻은 것조차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이나 일 때문에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예상밖의 결과에는 기대하지 못한 고난뿐만 아니라, 부당한 고통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훌륭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훨씬 더 못한 것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계획, 훨씬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었던 것인가요? 한 때는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했던 의사가 지금은 자신의 병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동안 부지런히 구하는 주님의 예언자는 “게으른 증인”이었습니다. (물몬서 3 : 16) 좌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봉사할 수 없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한 문제들이 이와 같이 쌓여 바울이 말한 대로 “사람이 감당할”(고린도전서 10 : 13) 고통과 유혹에 더해 집니다.

만사가 그러하듯이, 예상밖의 결과에 대처하는 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범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극적인 예상밖 행위는 예수님의 신성을 거의 끊임없이 공격해 왔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 예상밖의 결과는 출생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참으로 그분은 “태초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행했습니다. (니파이삼서 11 : 11) 이 지구 전체가 발동상이(사도행전 7 : 49) 되었으나, 베들레헬에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고 “누울 자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7)

끝에 가서는 온유 겸손하신 예수님은 가장 쓴 잔을 마셨습니다. (니파이삼서 11:11; 교성 19:18, 19) 가장 죄없으신 분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의 백성들 중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대로”(교성 49:6) 주님께 하기도 했으나, 만왕의 왕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참아내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서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시험이 부당함을

잇습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지상의 유일한 이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12; 니파이서 25:30; 아브라함서 3:27 참조) 그러나 육신을 입으신 메시야는 기꺼이 “자기를 비어” 겸허하게 사셨다고 바울은 기록했습니다. (빌립보서 2:7)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과 비교적인 상태에 대하여 우리가 취하는 조치는 얼마나 대조적인 것입니까. 청중의 수와 반응을 보고 그 가치에 대한 유일한 증거로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 방법상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연하는 무대에 청중들은 오지 않습니다. 특히 모든 사람이 어느 곳에선가 무릎을 꿇고 있을 심판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조그만 갈릴리 지방에서는 단지 “목수의 아들”로 알려졌을 뿐입니다. (마태복음 13:55) 사실상, 주님은 고향인 나사렛 마을에서는 환대를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의 이웃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라기는 했지만 “예수를 배척”했습니다. 온유하신 예수님은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마가복음 6:1-6)

여호와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육신의 메시야로 이 지상에 오셨을 때,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었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5:8-16)

우리는 남을 돕고 나서도 오히려 비난을 받게 되는 아이러니를 받아 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우리는 바람에 날리는 새털을 보듯이 그런 거짓이 퍼지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먼 옛날 창조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물과 무한한 대기를 포함한 모든 생활 여건을 이

지상에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세서 1:33; 교성 76:24) 십자가 상에서 갈증에 목이 닳을 때, 저들은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마태복음 27:34; 시편 69:21) 그러나 그리스도는 화내시지 않고 오히려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24)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아이러니한 현상이 닥치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누가복음 9:58) 배반한 유다에게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누가복음 22:48) 그리고 영혼속 깊이 탄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나.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37) 그러나 배반의 의식은 예수님께 몇 번이고 거듭해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나, 모멸이나 경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더 자세히 말해서 예수께서 하신 대로, 배반한 것을 아는 것과, 예수께서는 하지 않으셨으나, 배반한 것을 알고 화를 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는 “수없는 세상을” 지으셨으나, 그분은 땅에 침을 뱉어 손가락으로 진흙을 이겨 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6) 지존자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베푸셨습니다. (마태복음 25:40)

우리가 행하는 봉사의 의미는 그 크기에 달려 있지 않음을 아십니까?

얼마 안되는 시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를 구조할 수도 있었으나, 그분은 조종당한 군중들이 “바라바”를 외쳐, 생명을 주신 예수가 아니라 생명을 빼앗은 살인자를 구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5:10)

우리는 불의 속에서 참되게 지낼 수 있습니까? 군중의 외침을 거스려가며 우리의 의무를 행할 수 있습니까?

위대한 교사이신 그리스도는 제자들의 영적인 준비에 맞추어 자신의 가르침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도 우리는 아이러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아 감사드리기 위해 찾아온 문둥병자에게 예수께서는 살피고 보시고 이렇게 간단히 물으셨습니다. “다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7:17) 두 아들들을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하나씩 앉히기를 원하는 한 사도의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짖으셨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0:20-24) 답이 세 번 울었던 기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슬퍼하면서도 눈에 띄게 성숙해가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이렇게 명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한 “어떠한 죽음으로”란 위대한 사도가 순교당하리라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8:25-27, 21:15-19) 문둥병자보다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것이 요구되었습니까?

만일 갑작스런 빛이 비쳐 우리 존재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존재 사이의 간격을 밝혀 준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그 빛으로 레이저 광선 치료와 같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당히 장점으로 여겨오던 어떤 것에 의구심이 생기게 될 때 그것을 견디어낼 인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고통스러운 위기는 우리의 덕성에서 썩어가는 자만심을 벗겨내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려온 겸손하고 독실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다.” (요한복음 4:26) 그러나 두려움을 느낀 빌라도는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요한복음 19:8, 9)

침묵이 웅변이지만, 우리에게 불리할 때도 여전히 침묵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불평을 늘어 놓아, 우리가 본 그런 아이러니를 하나님께 알려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슬픈 아이러니가 있음에도,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명에는 훌륭하고도 기쁨에 찬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분 자신은 십자가에 “달리”시어, “사람들을 [그에게] 인도”할 수 있으므로, “저들이 아버지로 인하여 달림을” 받아야 했으므로 그것을 명확하게 아셨습니다. (니파이삼서 27:14)

신앙은 건디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조지 맥도널드는 말했습니다만, 신앙은...주님의 뜻을 알고, 나아가 행하는 것, 또는 알지 못해서, 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 신앙을 가장 고귀하게 행하는 것은, 의무 그 자체가 확실할 때, 결과를 알지 못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널드 무언의 설교(시리즈 1), 런던: 알렉산더 스트래한, 1867년, 1487페이지)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아이러니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 자신이 강화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좀더 예수님과 같이 되고, 좀더 사랑함으로써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저들의 죄로 인하여 주를 값없이 여기어 주를 채찍질 할 것임에, 주께서는 이를 참으실 것이요, 주를 매로 칠 것임에 이를 또한 참으시리라. 참으로 사람들이 주께 침을 뱉었으나 주께서는 이를 참으실 것이니, 오로지 인간들을 향하신 사랑의 진실과 오래 참으심으로 견디시리라.” (니파이일서 19:9)

대처해 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23)

현명한 자기 부인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합니다.



역시 중요한 열쇠가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들에게 베푸신 자비와
 축복을 날로 감사드리기
 원하노라”(엘마서 34 : 38)

인생에서 비교적 얼마 안되는 고통은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 상당히
 상쇄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축복을
 모두 헤아릴 수 없으나, 지난 번에
 헤아려 본 것로부터 얼마나 더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대처해 나가는 다른 중요한
 방법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분은 온갖
 시험을 받으셨으나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교성 20 : 22; 엘마서
 7 : 11) 우리들과는 달리, 그분은 시험을
 열광하거나, 재고하거나, 재연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더
 강하고 시험은 약한듯이 보이지만,

그것에 연연하게 되면 상황은 뒤바뀌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의 지극히 온유하심은 어떠한
 “쓴 뿌리”도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히브리서 12 : 15) 구세주께서
 대속을 이루신 후 그에 관해 하신 귀한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식초나 하늘의
 응징이나 채찍질에 대한 것은 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침뱀을 당한 것에 대한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게 “육체와
 영혼이 다 괴로움을 당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교성 19 : 15, 18)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이며 가장
 혹독한 아이러니에 접하게 됩니다.
 갈보리에서의 수난의 정점에서 그는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영이 확실히 그를 떠났을 때, 인간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의 외침이
 터졌습니다.(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613페이지) 이와 같은
 상실감은 그리스도께서는 이전에 전혀
 겪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예수는 거기서 완전히
 이해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었으며 또한
 완전한 구세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엘마서 7 : 11~12) 더우기
 그 암흑의 시간에 버림받은 느낌중에도,
 예수님은 자신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겟세마네와 갈보리에서의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몰려 서려고까지”
 하였다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신의 준비를 모두 끝
 마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은 심오하고 거룩한 결심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홀로 포도즙을 밟고 난
 뒤, 기막힌 개인적인 승리와 가장 큰
 승리로 끝난 후에도, 위엄있으신
 예수님은 온유하게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교성
 76 : 102, 19 : 19)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전세에서 예수님은 겸손하게
 구세주가 되기를 자원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옵소서”(모세서 4 : 2)
 그는 자신의 말씀에 충실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나는 겸손히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다시 없는 아들로
 인한 것입니다. 둘째는 특별하신
 아들에게 우리 모두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희생당하게 허락하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심판일에, 우리들
 중에서 누구든 아버지께 달려가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았을 때 고통당한 것을 고하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아이러니와 역경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엘마서
 7 : 11, 12 참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여러분 생의 복극성이 되게 하십시오

고든 비 힝클리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변화하는 세상에서 사랑은 불변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것은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그것은 사회 생활의 안정 장치이며, 고통스런 세상에서 희망의 횃불이 됩니다.”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훌륭한 아침입니다. 나는 이러한 영이 계속되기를 간구합니다.

어떤 유명한 개신교 목사가 어느 날 우리를 방문했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는 “당신들을 세상 사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합니까?”하고 질문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매우 낙관적으로 봅니다. 세상에는 유익하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전쟁도 있고 분쟁도 있고 반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스런 나라도 많습니다. 매우 의미깊은 어떤 일이 소련과 중공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론과 활동의 자유가 커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방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 지상의 여러 나라에서 임재하심을 느낍니다.

“물론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마약이라는 재앙에 대해 슬퍼합니다. 우리는 의של물이라는 심각한 전염병을 개탄합니다. 우리는 부도덕과 낙태라는 사악한 흉수를 슬퍼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혼과 가정을 파괴시키는 만연하는 결혼 생활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행위를 우려합니다. 우리는 이 지상의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아와 집없는 자에 대해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는 역사상 어느 때 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곤경에 빠진 자들을 돕고 있다고 믿습니다. 현대 과학과 의학은 인간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경이로운 일을 합니다. 수백만인이 생활에 더 큰 성취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일, 즉 이 교회의 일에 관해서 나는 보다 더 낙관적입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더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도 증가되고 헌신도 증가되고 충실성도 커졌습니다.”

나는 2~3주 전에 어떤 지역에 갔는데 그곳에서 일요일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회원은 70~75퍼센트였다고 나에게 말해주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나는 그 와드는 조금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와드는 평범하면서도 충실한 말일성도가 참석하는 와드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말을 마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세상에 퍼져있는 악으로 인해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낙관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본 것을 토대로 하면 선은 증가되고 있으며 주님의 사업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나는 내가 한 말을 곰곰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1월에 레이건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개별연설을 할 때의 경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임 기간인 8년간의 치적에 관해 말씀했습니다. 그가 말씀하고 있을 때 나는 그 8년간 교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교회 기록 보관자에게 몇 가지 통계를 부탁했습니다. 여러분도 몇 가지 주요 사건에 흥미를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도 이 똑같은 팔 년동안 대관장단 보좌로 봉사해왔으므로 전세계적으로 교회의 전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랑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거나 점수를 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 대관장단 비서인 마이클 왓슨 형제가 교회의 연례 통계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비교를 하면서 잠시 그것을 살펴 보겠습니다.

1981년 초에 교회의 회원은 4백 6십만 명이었습니다. 1988년 말의 회원은 6백 7십 2만 명이었습니다. 1981년 1월 1일부터 1981년 1월 1일까지 2백만명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스테이크의 숫자도 그 기간 동안 1,218개에서 1,707개로 증가하여 약 500개가



늘어났습니다. 집회를 갖고 있는 단위 조직의 수는 1만 2천 5백 9십 1에서 1만 6천 5백 5십 8로 약 4,000개가 증가되었습니다. 선교부의 수도 188개에서 222개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나 영토만 하더라도 83개국에서 125개국으로 증가되었고, 성전의 수는 19개에서 41개로 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통계이지만 그 뒤에는 남자와 여자, 소년과 소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에 더 위대한 지식을 가져오고 그들의 마음이 영원한 일들을 믿는 신앙이 커진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헌신과 헌납이 엄청나게 증가되었습니다.

1988년 말에 선교사로 나가있거나 부름을 받은 선교사의 수는 3만 6천 132명이었으며, 또한 무보수로 여러 교회 사무실에서 가족 역사 프로그램에 봉사하고 있거나 세미나리에서 가르치고 있는 자원자 수도 수천 명에 달합니다. 그들이 바치는 시간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불이 될 것입니다.

교회는 점점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가 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구세주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가정안에서의 사랑의 정신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에 있어서 항상 따르는 것은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사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요한복음 3:16)

우리를 악과 반목과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높이 들어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변함없는 그 사랑에 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소년이었을 때 우리는 여름에는 농장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은 밤이 되면 세상이 온통 캄캄해지는 시골에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가로등이나 다른 비슷한 것도 없었습니다. 나의 동생과 나는 야외에서 잤습니다. 청명한 밤이면, 대부분의 밤이 청명했고 공기가 맑았는데, 우리는 반듯이 누워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백과사전에 설명되어 있는 대로 몇 개의 별자리와 다른 별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 저녁 북극성을 찾기 위해 손잡이 달린 컵 모양의 복두칠성을 추적했습니다.

우리는 북극성은 언제나 한 자리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지구가 돌고 있으므로 다른 별들은 밤을 따라 움직이지만 북극성은 지구의 지축에 그 위치를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북극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 세기 동안 선원들은 그들이 항해할 때 이 별을 안내자로 삼아왔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항상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고 표시 하나 없는 망망 대해를 건널 때 제 자리를 빙빙 돌거나 길을 잃는 것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년 시절로 인해 북극성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별이 변화가운데에서 불변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항상 의지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으며 움직이고 있는 하늘의 달의 역할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북극성과 같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그것은 불변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것은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그것은 사회 생활의 안전장치이며, 고통스런 세상에서 희망의 햇불이 됩니다.

1984년에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모임을 가지면서 많은 말씀과 음악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 있었고 어떤 노래가 불리워졌는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은 개회 모임에서 행해진 기도 내용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시여 당신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따르기만 하면 그분의 왕국의 승영에 이를 수 있는 영원한 계획을 주셨으며, 또한 그분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으며, 독생자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사랑으로 인해 우리 모두를 위한 희생 제물로 자신을 바치셨습니다. 그분의 그 희생은 그분을 배척했던 세상에 주어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북극성이 되게 하여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사랑하는 아들 덕분에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며 영원한 승영의 기회가 확실하다는 절대적인 확신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거룩한 사랑이 우리의 생활에서 흘러 넘쳐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에게도 전달되도록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두루 살피를 때 가난과 기아에 허덕이는 많은 무리와 질병과 불행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들은 그들을 돕는데 인색하지 맙시다. 우리는 과거 1985년에 두 번이나 특별 금식일을 가져 뜻깊은 일을 해냈습니다. 이 위대한 사랑의 발로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이들 동안 1천 5십만불 이상의 돈을 헌금했으며 그것으로 생과 사의 사이를 방황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도왔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우리가 세계 각처에서 불행에 처해 있는 우리의 신앙에 속하지 않은 자들을 사랑에 찬 마음으로 돕기 위해 헌금하도록 기아 기금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위한 사랑을 발휘하여 금식의 법을 지켜 음식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댓가에 해당되는 액수를 헌금하여 궁핍한 상태에 있는 자들을 도웁시다.

사랑이 우리 생활의 북극성이 되게 합시다. 확실히 우리는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땅의 훌륭한 것과 하늘의 귀중한 것으로 축복받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신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 권세는 사망의 장막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집에서 그들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친 것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대리 의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그들에게도 불멸과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집에서 행해지는 이 사랑의 사업은 위대합니다. 이기심을 모두 버리고 밤낮으로 이 성스러운 일에 봉사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생의 북극성이 되게 하여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웁시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고통중에 홀로 누워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로도 도움이 되지만, 친절한 말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극복할 수 없는 두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도 많습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훌륭한 감독과 상호부조회 역원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는 선을 행함에 부지런하였다”고 구세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이사야



35 : 3~4)

미가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미가 6 : 8)

그리고 거룩한 계시의 음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네 모든 대화로, 네 모든 기도, 네 모든 훈계로, 네 모든 행위로, 네 형제를 격려해 주라”(교성 108 : 7)

이러한 말씀들은 주님의 생애와 사업에서 잘 보여진 그러한 사랑으로 근경에 처해있는 자들을 도우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증오로 그들의 삶이 파괴된 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포함해서 하나씩 하나씩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악의에 찬 거짓말을 만들어 진리의 빛이 비추이지 않는 곳으로

퍼뜨립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세대를 포함해서 모든 세대에 그런 병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주님의 다음 말씀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꺾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마태복음 5 : 11)

우리는 현대 계시에 있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도 생각해봅시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나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노라”(교성 64 : 10)

우리는 직장에서 쫓겨났던 한 유명한 인사가 한 말을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을 미워하는 자는 여러분이 그를 미워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파괴하지 않는 한 그는 승리할 수 없다.”

사랑의 복극성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의 많은 사람의 능력밖의 훈련을 요구합니다. 나는 이것이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어렵고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훈련과 그 정화시키는 영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감미롭고 모든 것을 포용하시는 사랑을 맛보게 해 줍니다.

분쟁이 많은 가정에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나는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 복극성이 되게 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 중 어떤 사람의 가정에는 너무 많은 고통소리와 너무 많은 비난과 너무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사랑이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결혼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은 양육되고 강화될 수도 있고 굶어죽고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 힘은 우리 자신 가운데 있습니다. 남편들이여 여러분의 기질을 통제하십시오. 아내들이여 허를 조심하십시오. 결혼의 계단으로 여러분을 인도했던 그 놀라운 느낌을 소생시키십시오.

사랑은 가정 생활의 핵심이 됩니다. 왜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종종 우리의 거칠은 말의 표적이 됩니까? 왜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들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독설을 퍼붓습니까? “나의 집에 사랑이 차고 넘”칠 때에만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종종 바울의 말씀 가운데 자비 대신에 씌어집니다. 그 구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랑은 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린도전서 13 : 8, 13 참조)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신앙, 희망, 자비, 사랑의 덕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자는 그 일을 수행할 자격이 있나니”(교성 4 : 5 참조)

우리들 가운데 더 이상 복극성을 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도시 중심에 살고 있으므로 도시의 불빛이 우리위에 있는 이 경이로운 밤하늘을 보는 데 장애를 줍니다. 그러나 그 별은 수세기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안내자와 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이와 같이 단호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모로나이가 선언한 바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은) 영원히 참을 것이요,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사랑을 지닌 것으로 인정을 받는 자에게 모든 것이 잘 되리다.”(모로나이사서 7 : 47)

나는 여러분에게 나의 축복과 사랑을 남기며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화평이 깃들기를, 모든 인류를 위해 그의 생명을 주신 지고한 사랑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분쟁의 해독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희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질병을 두려워하듯이, 영을 좀먹어 들어가는 독소인 분쟁을 조심해야 합니다.”



몇 개월 전에 나는 존경하는 동료인 칼로스 이 애시 장로와 함께 그 옛날 모세가 서 있었던 느보산 꼭대기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오른편의 저 멀리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었습니다. 왼편에는 요단 강이 사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그 옛날 여호수아가 충실한 이스라엘인들을 이끌고 들어간 약속의 땅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후에 우리는 모세가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요르단의 하심 왕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서부 변방에 이르기까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와 우리 동료들은 알렌비 다리까지 걸어 갔습니다. 국경 양쪽에 무장 군인들이 경비를 서고 있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안전하게 이러한 경험을 마친 후에, 나는 이 모든 현상의 모순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평강의 왕에 의해 거룩하게 된 이 땅에서, 그 때로부터 지금까지 분쟁이 거의 끊임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구세주께서 특별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요한복음 14 : 27)

그의 평안은 반드시 정치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의 평안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적인 평화의 영은 분쟁에 의해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분쟁이란 보통 국가 사이의 싸움으로 시작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흔히, 그것은 개인간에 시작되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를 놓고 우리 자신들간에 다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분쟁으로 중기가 퍼져 나가듯이 이웃과 국가가 감염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해치는 질병을 두려워하듯이, 영을 좀먹어 들어가는 독소인 분쟁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는 아브라함 링컨의 권고에 감명을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말다툼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최선을 다 하고자 결심한 사람은 개인간의 분쟁에 시간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개에게 물리기 보다는 길을 비켜 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제이 엠

컷츠에게 주는 편지, 1863년 10월 26일, 링컨의 사상과 어록 [랄프 비 윈 편지; 뉴욕 철학 도서관, 소유권, 1959], 107페이지)

어제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은 말씀중에서 분쟁을 “교만의 다른 모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염려되는 것은 분쟁이 삶의 한 방식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 매체, 학교 및 직장에서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분쟁에 어느 정도는 다 감염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요성의 문제에 분쟁의 습관은 극히 쉽게 스며드는 것이나,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그 까닭은 분쟁은 주님의 계명에 따르면 그릇된 것입니다.

“또한 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하사 살인하지 말며, 거짓말하지 말며, 도적질하지 말며, 주 저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며, 시기하지 말며, 원한을 품지 말며, 서로 다투지 말며,”(니파이이서 26 : 32)

분쟁의 아버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분쟁의 참 근원을 알아야 합니다. 물몬경의 예언자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전부터 이 중요한 지식을 밝혀 주었습니다.

“사탄이 이들을 끊임없이 책동하였음이라. 참으로 저들은 온 땅을 두루 다니며 헛된 소문을 퍼뜨리며 분쟁을 일삼았으니, 사람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 장차 이를 선한 모든 일을 거역하게 하려 함이었던라.”(히라맨서 16 : 22)

그리스도께서 니파이 백성에게 오셨을 때, 그는 그 예언을 확인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서로 다투는 정신을 가진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요, 악마에게 속한 자니 악마가 분쟁의 아버가 됨이라. 저가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여 서로 성내게 하며 다투게 하는도다.



“보라, 사람의 마음을 책동하고 분노를
둔구어 서로서로 다투게 함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요, 이러한 일을 금하게
함은 나의 가르침이라. (니파이삼서
11 : 29~30)

분쟁의 근원

분쟁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창조와 지상에서의 육신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처음으로
발표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기뻐 소리쳤습니다. 그 계획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 후의 하나님의 면전에서
의 타락,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구세주의
자비로우신 섭리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경전에는 루시퍼가 인간의 자유의지를
없애 그 계획을 바꾸려고 몹시 애를
썼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의 교활한
동기는 그의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보소서 내가 있어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겠사오며 내가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아니하리니, 반드시 이를
행하리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영예를

내게 주소서.”(모세서 4 : 1)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려는 사탄의
이기적인 노력은 하늘에서의 큰 분쟁을
초래했습니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어떤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악마의 말처럼 그가
모든 자를 구원하겠다는 것의 다름으로,
천국 회의에 이 계획이 제의되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악마가 하나님께 대항을 했고
그에게 머리를 들렸던 모든 자들과 함께
던지움을 받았던 것입니다.”(예언자 요셉
스미스의 가르침, 341페이지)

하늘에서의 이 전쟁은 유혈전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분쟁의
시작으로, 생각의 차이에서 나온
전쟁이었습니다.

경전에서는 분쟁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반대함을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사탄의 방법은 전염성이
강한 분쟁이라는 독소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동기는 하나님보다 그
자신이 더 개인적인 영광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악마의 표적

악마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장전된 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라는 세균이 들어있는 총알이
거룩한 사업에, 필수적이며 전략적인
표적에 조준되어 발포됩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표적에는 개인외에도 가족, 교회
지도자 및 거룩한 교리가 포함됩니다.

가족

사탄이 처음으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이래 가족은 계속해서 공격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3장 : 모세서 4장
참조) 그와 같이 오늘날, 모든 가정은
가족간의 분쟁의 위협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체로 순수하게
시작됩니다. 오래 전에 우리 딸들이 아직
어려 치녀가 되기만을 원했던 시절에,
당시의 유행은 한껏 부풀린 페티코트를
입는 것이었습니다. 딸 아이들이 얼마
안되어 먼저 옷을 입는 사람이 옷을 가장
잘 입는 것임을 알게 되자 조그만 분쟁이
끼어 들게 되었습니다.

남자 아이가 많은 가정에서는 팔
길이가 가장 긴 아이가 가장 잘 먹기
마련입니다. 분명한 싸움을 막기 위해서
그들은 한 가지 규칙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식사 시간에 적어도 한쪽 발은
바닥에 붙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은 배움과 사랑에 대한 위대한
실험실입니다. 여기서 부모는 자녀들이
이기적이 되려는 자연적인 경향을
극복하도록 도와 줍니다. 우리 가족을
양육하면서, 넬슨 자매와 나는 물론경에
나오는 이 권고의 말씀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녀를 헐벗고 굶주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어 서로 싸우거나 다투지 아니하고...

“너희는 다만 저들에게 진리를 지켜
신중하게 살기를 가르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움기를
가르치며”(모사이야서 4 : 14~15)

인내로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를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부모는 서로 아끼고 보호해 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하며, 악마가 노리는 것은 가족의 품위를 파괴시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교회 지도자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공격의 목표가 됩니다. 이는 지도자가 책임있는 자리에 부름받지 않았을 때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총관리 직원들은 각자 평생의 직업으로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베드로나 바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모두 “예언과 권능있는 자의 안수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니다. (신앙개조 제5조)

그러한 목표는 주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욕되게 하지 않으려 하며, 또한 고대나 살아있는 예언자들이 선포한 가르침에 대하여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구세주의 다른 합당한 종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충실한 추종자들은 분쟁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것이 종교적인 것과 연관이 없는 것이라 해도, 조금이라도 원인 조장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쟁은 주님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충실한 회원이라면 “형제 사이를 이간시키는”(잠언 6:14, 19 참조) 사람들의 특성을 이루는 정기 간행물, 프로그램 또는 토론회에 자신의 이름을 팔지는 않습니다.

불행히도 이와같이 분쟁하는 자들은 오래 전에 예언된 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시편 2:2)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기름부음 받은 자들은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에 관하여 예언된 슬픈 운명을 알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세계에서,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과

주님의 기름부음받은 지도자들을 따릅니다. 성도들은 불화의 길은 위협으로 이끌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경에 이와같은 경고가 실려 있습니다.

“이 갈라져 나온 니파이인들은…똑같은 인내와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갈라져 나온 다음으로는 이상스럽게도…강박하며 회개할 줄 모르게 되었고, 더 거칠며 더 음흉하고 더 난폭해 졌느니라. 또한 저들은 게을러지고 온갖 음란한 악을 행하였으며 주 저희 하나님을 완전히 잊었느니라.”(앨마서 47:36)

불화는 분열을 초래합니다. 조그마한 행위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위나 상황에 처해 있든지, 아무도 분쟁의 무서운 결과에 대하여 안전하게 면역이 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한때 십이사도의 한 분이었던, 토마스 비 마쉬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와 다른 여인이 조그만 크림을 놓고 말다툼을 한 일로 해서 그는 영적으로 배도의 길로 미끄러져 간 것입니다. 거의 19년간 교회를 떠나 있다가, 그는 교회로 다시 돌아 왔습니다. 그후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배도하여 내가 한대로 할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미리 체직질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내 충고를 받아 들인다면, 여러분은 총관리 직원들 곁에서 있을 것입니다. (설교집, 5:206;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 앤사인, 1984년 5월호, 81~83페이지)

물론 교회의 직원들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사업에 대한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종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대한 책임을 지우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 백성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내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내가 임명한 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들은 결단코 저의 처소에서 옮겨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저들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내가 임명한 자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면 저들은…축복을 받을 수 없느니라.”(교성 124:45~46)

거룩한 교리

교회의 거룩한 교리는 영적인 분쟁의 주된 공격 목표가 됩니다. 나는 교회의 공과 시간에 늘 분쟁의 씨앗을 뿌리고는 하던 어떤 친구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는 항상 “내가 악마의 지지자 역할을 하겠음.”라는 말을 하며 공격을 하고는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젠가 그는 심판대에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과연, 그 친구는 그 말을 다시 되풀이할 수 있을지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분쟁의 정신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와 같이 경고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훼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면…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름이 일어나느니라.”(디모데전서 6:1, 3~5)

스스로 관심을 끌기 위해 논쟁적으로 교리를 분석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교리의 참된 원리, 참으로 내 안에 있는 유일한 교리를 밝히리라.

“나는 나의 복음을 확립시켜 많은 분쟁이 없도록 하기 위해 이를 행하노라. 참으로 사탄은 백성의 마음을 선동하여



나의 교리의 여러 가지 점에 분쟁을 일으키나니, 저들은 경전의 말씀을 의곡시키며, 이해하지 못함으로 이 일에 많은 잘못을 저지르느니라.”(교성 10 : 62-63)

분쟁은 불화를 낳습니다. 물문경은 더 좋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엘마는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아...서로 다투지 말며 오직 한 신앙과 한 침례로써 마음을 하나로 뭉쳐 단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대하면서 전심을 다 하여 앞을 바라보게 하라 명하는 등”(모사이야서 18 : 18, 21, 23 : 15 참조)

분쟁을 물리치는 단계

우리는 이러한 분쟁의 파괴적인 힘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각각 평안의 영으로 분쟁의 영을 대처하기

위해 취해야 할 단계는 무엇일까요?

먼저, 다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보여 주십시오. 말이나 글 워드 프로세서 등 컴퓨터를 잘 다스리십시오. 다투고자 하는 유혹을 느낄 때는 이러한 격언을 기억하십시오.

“지혜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잠언 11 : 12 또한 17 : 28 참조)

개인적인 이익이나 영광을 누리기 위해 논쟁적으로 말하거나 글을 쓰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빌립보서 2 : 3)

이와 같이 상호 존중함으로써 우리는 기분 상하지 않고서도 서로 의견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단계는 표현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평안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경전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의 마음에 깃들어 온 땅에 불화가 일지 아니하였더라.”(니파이사서 1 : 15 또한 1 : 2 참조)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첫번째 계명 곧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키울 때, 가족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자연히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게 될 것입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쳐 주셨고, 위안해 주셨으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 : 9; 니파이삼서 12 : 9 참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분쟁이라는 무서운 독소로 인한 고통은 영혼으로부터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치유는 “지상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그것이 체계서 시작되게 하소서”(밀러와 잭슨)하는 개인적인 맹세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결심은 가족과 친구에게 확산되어 이웃과 온 나라에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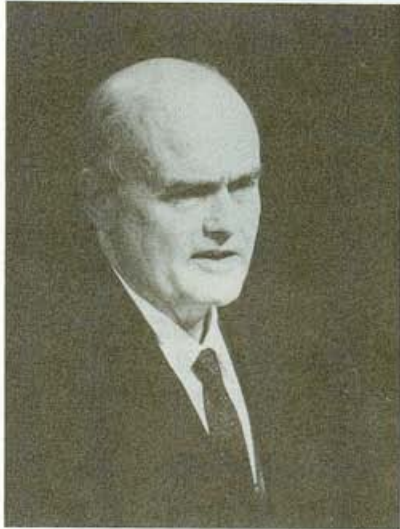
분쟁을 피하고, 경건을 추구하십시오. 영원한 진리로 깨우침을 받으십시오. 사랑 안에서 주님과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으로 주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빌립보서 4 : 7)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 여러분과 앞으로 올 세대인 여러분의 후손을 축복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영생을 위한 대학교

에프 엔지오 부쉬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성전은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현세에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평가해 보기를 원하시는 장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생은 시험의 때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알기를 바라십니다.”



가르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치 장막이 우리의 영적인 마음에서 견혀져 똑같은 복음을 좀더 명백하고 더욱 상세하게 더욱 큰 이해력을 지니고 보게 된 듯 합니다.

지금 성전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주님의 집에서 조용히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받았던 몇 가지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서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은 후에는 시간을 바쳐 우리 조상의 구원을 위해 주님의 집에 다시 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며 알게된 사실은, 주님께서 그의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그들 자신의 구원과 그들 조상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의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다른 이유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가기를 재촉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인간이 영적으로 졸업하여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유일한 “대학교”라고 확신합니다. 성전은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현세에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평가해 보기를 원하시는 장소입니다. 주님은 물론경의 출현으로 우리가 알게된 바와 같이 이 생은 시험의 때라는 사실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기를 바라십니다. 예를 들면 엘마서 12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곧 육체의 죽음을 맞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느니라. 그리하여 이 현세의 생활은 시험의 생활이 되었으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준비를 하는 시간이 되었...느니라.”

이 성구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 또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물론경 엘마서 41장 10절과 11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죄란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닌 것이니라...”

“모든 사람들이 되는대로의 상태, 즉 육욕의 상태에 있어 죄에 매이며 감당하기 어려움 속에 있고,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았으며 행복하지 못한 것이니라.”

우리는 때때로 행복의 본질과는 반대되는 상태에 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상태에 처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죄악을 끝까지 좇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시험을 받는 상태에 있는 한 사탄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솔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즉 우리의 첫번째 책임이 되는 사람들로써 우리의 배우자, 우리 자녀 또는 우리 부모 등과의 관계를 등한시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아주 작은 나쁜 버릇이나 마음가짐이 우리 생활에 스며들도록 허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정확하게 성약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어느 정도 결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위험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만일 우리가 억지로 미소를 띄어야 한다면, 만일 우리가 거의 절망적인 상황에

말 일성도들이 모인 이 훌륭한 연차 대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며 마음 속으로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아내와 내가 주님의 성전에서 이년 제 봉사하면서 받게 되는 느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성전의 그 신성함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 영감을 받게 됩니다.

우리 부부가 삼십 년 전에 성전을 처음 방문한 이후 우리는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서, 배움과 봉사의 장소로서 언제나 경배하고 소중하게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 년 동안 우리의 온 마음을 오직 주님의 집의 목적 및 거룩함에 전념한 후부터 우리의 영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첫번째 깨달음은 믿음, 회개 및 침례에 대한 이해를 밝혀 주는 성령의

처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이러한 상황을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성약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듯한 사람도 있을 것이며, 거짓된 행복의 모습 뒤에 몸을 겨우 숨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 자신을 속이거나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구원의 계획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이 조금이라도 우리를 떠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율법(물론 의로움의 율법입니다.) 중 어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경전에 따르면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어느 정도 우리를 떠나게 됩니다. (교성 84:46; 요한복음 1:9; 교성 93:2 참조) 어둠의 그림자가 그 영에 드리워질 것이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깨닫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입니다.

충만한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이 처한 상태에 대해 깨달을 수 있도록 기쁨부음 받은 주님의 종들에 의해 전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임하신 종들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결심하는 자세로 경전을 읽고 공부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시련과 고통 끝에 배우게 된 교훈이나 경험을 보고 배우고 느낌으로써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우리는 예언자 엘마가 이천 년 전에 다음과 같이 가르친 것을 귀로 듣는 것과도 같이 물문경에서 그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며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마음을 강박하게 먹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인즉 처지가 처참하리니,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실 것임이라.



“우리의 말이 우리를 정죄할 것이요, 우리의 행위가 또한 우리를 정죄하리라. 우리는 흠없이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를 정죄하리니, 이토록 무서운 지경에서 하나님을 우리러 보지 못할 것이요, 내려 덮쳐 하나님의 면전에서 숨게 해 달라고 바위나 산을 호령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할 것이냐고 간절히 생각하리라.

“그러나 그렇게 될 수는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영광, 능력, 권능, 위엄, 권세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이 공의로우심을 알고 끝없는 부끄러움을 깨달아야 하리니, 하나님은 만사에 공의로우시며 그의 자녀들에게 자비로우시고, 그의 이름을 믿고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한 모든 사람을 구원할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엘마서 12:13~15)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지막 심판의 날에만 우리의 하찮고도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모사이야서 4:11; 엘마서 26:12; 힐라맨서 12:7; 모세서 1:10 참조)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심판관이 될 수 있도록 매일 우리 삶 가운데 이해력을 넓히며 회개의 과정을 계속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엘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마지막 날까지 의로움을 좇기 바란다고 말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주의 구속을 받는 자요... 보라... 사람은 저마다 저들의 심판관이니라.”(엘마서 41:7)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 11장 31절 있는 다음 말씀과 같이 그것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리니와”

우리가 문자 그대로 우리 자신의 심판관이 되는 것을 배우는 길이야말로 계속적인 회개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를 진실로 아는 존재는 우리 자신과 주님 뿐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로써 자신에 대한 정직의 길인 외롭고도 힘든 길을 걸을 때만이 우리는 스스로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쳐야 하는 희생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한 차원의 정직에

이르지 못한다면 진리의 원리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진리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자유로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변명으로 뒤덮힌 습관이나 편견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찾음으로써 우리는 자유로와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8:32 참조) 걸림돌을 먼저 보기 전에는 그것을 치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않고서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정직의 원리를 이해하며 성장하는데 주님의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심판관이 되기를 배우는데 주님의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생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므로 큰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사실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 있으며 따라서 우리의 시험 기간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주님의 집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를 깨우치고 가르침으로써 우리가 가야만 할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도구로써 쓰이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성전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인간의 보잘 것 없음과 계속적인 회개의 필요성 및 그리스도의 속죄에 바탕을 둔 성전 서약의 필요성에 관해 더욱 깊은 이해를 갖게 됨에 따라 더욱 겸손해짐을 느꼈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의 교회이며 그가 이 사업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영적인 교육 및 이에 따른 즐거운 삶을 위해 성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회원들이 계속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커다란 기쁨입니다.

여러분의 형제요 여러분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았나이까?”

조이 에프 이반스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1보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동정심을 갖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길 바라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오실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시리라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으며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31-34 참조)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배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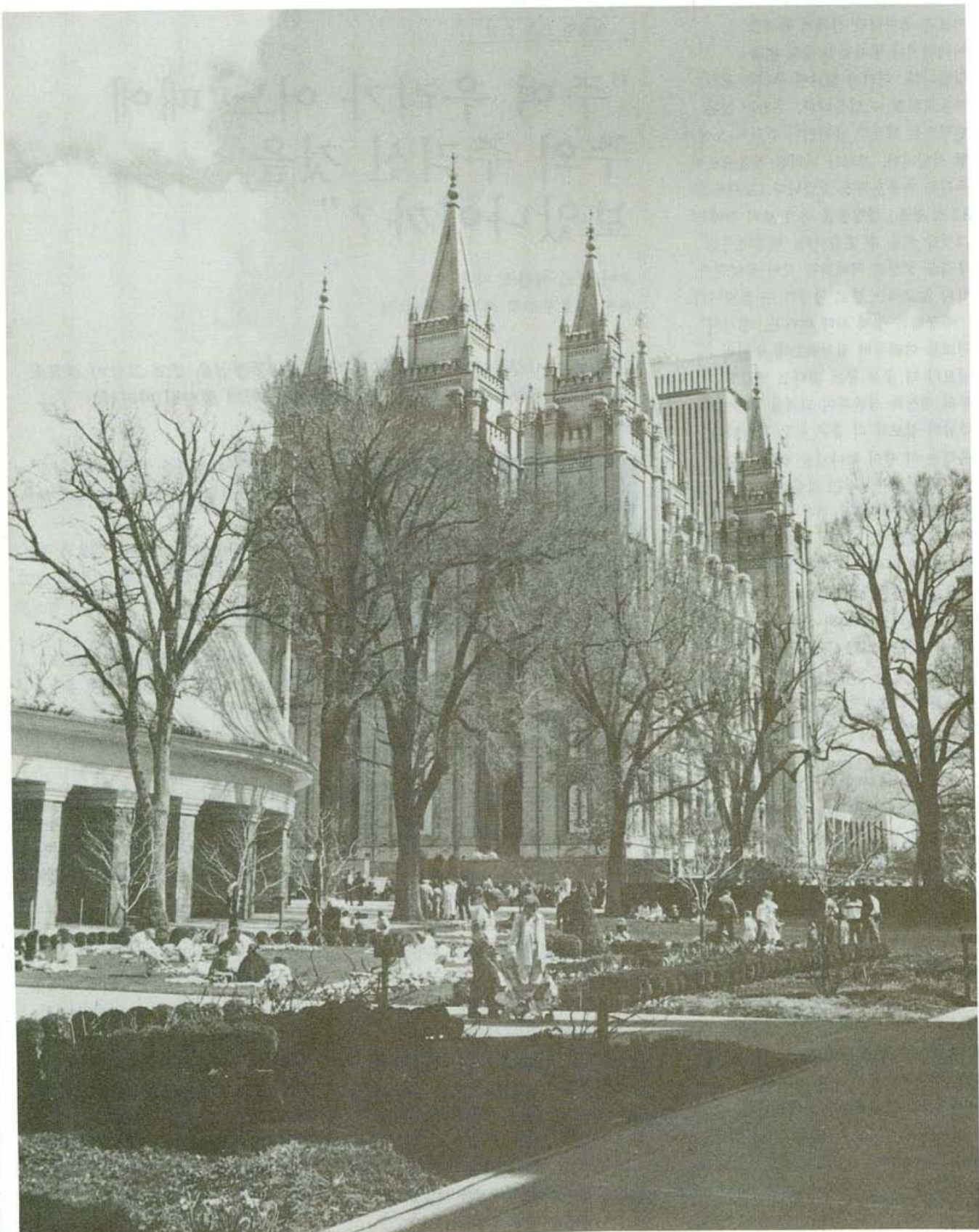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속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35-40)

구세주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배고픈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병든 자를 방문하고 남의 짐을 나누어 가볍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매일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러한 봉사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 남편 또는 아내, 우리의 부모,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합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나 친구에게 행하기도 하며 낯선 사람에게 행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론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템플 스퀘어에서 바라본 솔트레이크 성전. 오른쪽의 우뚝 솟은 건물이 교회 본부 건물이다.

마음에서 우리나라오는 동정심을 갖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행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길 바라시는 일입니다.

상호부조회가 조직될 당시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자매들에게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슴 속에 심어 놓으신 동정심에 따라 행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정사 4:605 참조)

오늘날 수많은 교회 자매들은 지금도 상호부조회의 중심이 되는 방편 교육 및 자선 봉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 주며 낙담하거나 고향을 그리워 하는 자매들 또는 충격을 받았거나 좌절감에 빠진 자매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그들은 예언자께서 주신 다음과 같은 권고의 말씀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고를 주시며, 주의를 기울여 관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왕국에서 우리들 서로가 봉사해야 함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스펜서 더블류 킴볼, 성도의 빛, 1976년 12월호, 1페이지)

잠언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잠언 3:27)

우리가 서로 행해야 하는 사랑과 보살핌에 관한 한 가지 예로서 다음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나의 남편과 나는 열 명의 훌륭한 자녀를 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일곱 명은 살아 있지만 나머지 세 명은 죽었습니다. 나는 임신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으며 유산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야 한다는 걱정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여러 주 동안 나의 방문 교사들은 나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거나 우리 가족에게 저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어린

아이들을 돌보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내가 읽을 수 있도록 보내 주었습니다. 쌍둥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두 아기를 갖게 되어 매우 놀랐습니다. 한 번 임신만으로 두 아기를 갖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경이로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오래 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들은 이틀 살았으며 딸은 사흘 살았습니다.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듀엣(한 쌍)”이라 불리는 아름다운 장미 꽃송이를 들고 다시 방문해 주었습니다. 그 꽃송이들은 우리가 쌍둥이 자녀와 함께 했던 따뜻한 시간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 아름다운 꽃송이들은 우리가 어린 자녀와 친구들을 기억하고 복음 및 교회에 대한 감사를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유혹과 싸우는, 외롭거나 불행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펼쳐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다른 곳에서 친구를 찾거나 위안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여 그들이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는다면 우리의 잘못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당신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제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필요했을 때 그곳에 우리가 없어서 도움을 못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병든 사람들을 돌보거나 특히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 및 그 가족을 돕는 일은 상호부조회 초창기부터 맡게 된 사랑의 노고가 되어 왔습니다. 일찍이 나무에서 살던 이래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그 당시 자매들은 많은 시간을 내어 병든 사람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간호했으며 상복과 수의를 만들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정성껏 돌보고 살아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인생은 우리 세대에 있어 그리 힘든 것만은 아니며 우리 대부분의 수명은 늘어났고 더욱

안락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만성병이거나 불치의 병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으며 때로는 젊은이에게도 있고 때로는 노인에게도 있습니다. 죽음은 항상 우리의 면전에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서로 짐을 져 주어야 하며(갈라디아서 6:2 참조) “애통하는 자와 더불어 애통하고 고난당한 자를 위로”(모사이아서 18:9)하여야 합니다.

자선 봉사는 병든 자와 그 가족이 고통받을 때 그들에게 힘을 주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마태복음 25:36)

대개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은 단지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 일도 안하고 그냥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거나 잘못된 말을 할까봐 두려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죽어가는 환자나 그 가족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노, 슬픔 또는 혼란 등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은 그녀가 가깝게 지내던 다른 주에 사는 가족 다섯 명이 자동차 사고로 불타 죽는 비극이 발생했을 때 경험하게 된 일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소식을 실감할 수 없었으나 다음 날 장례식에 가기 위해 몇 명 안되는 가족의 짐을 싸려고 하였습니다. 이웃에 사는 한 친구가 문 앞에 와서 그녀 가족의 신을 닦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구두 닦는 것을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마루에 앉아 비눗물과 스폰지와 구두약 및 구두솔로 평상시 신은 신발과 일요일에 신는 구두를 깨끗하게 광을 내었습니다. 그는 구두 밑창까지 닦은 뒤 구두를 쌀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조용히 그 곳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본부 청년 회장단

“이제부터 나는 이웃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하고 희미하게 제안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특정한 일, 가령 그 가족의 차를 닦는 일, 그 집 개를 돌봐 주는 일, 또는 장례식때 집을 지켜 주는 일 등을 찾아 행할 것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지 어떻게 알았습니까?’하고 묻는다면 나는 어떤 사람도 내 구두를 닦아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하고 대답할 것입니다.”(매지 하라, “그는 우리의 구두를 닦아준 사람”, *리더스 다이제스트*, 1983년 12월호, 21~24페이지)

심각한 만성병이나 불치의 병을 지닌 환자를 정성껏 돌보는 일은 단기간에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 그 일은 깊은 정서적, 육체적 경험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나 그 가족은 정서적이며 영적인 도움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만성병자나 불치병자를 돌보는 사람은 휴식을 취함으로써 다시 힘을 얻고 효과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환자를 돌보아 주는 기간은 각자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르며 한 두 시간 일지라도 힘겨운 환자 가족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풍에 걸리신 할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어린 딸과 함께 필요한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어머니, 잠시 환자를 떠나 자기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가족, 어린 자녀들을 잘 돌보기에는 너무 지쳐 있는 부모, 신체장애가 있는 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 하여 나머지 자녀들은 부모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한 어머니... 이러한 모든 사람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덜어 줄 사랑의 손길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시간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 주려면 이해심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슬픈 일에 각기 다르게 반응합니다. 모든 환자가 같은 시간에 완쾌하거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거나 낙담하거나 말을 안하거나 침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정과 친절로 그들을 대한다면 그들은 다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부활하신 분이라는 간증은 고난의 시기에

도움과 위안을 주는 지식이 됩니다. 이러한 확신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 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구주 살아 계시다. 큰 은혜 주는 이 말씀”(찬송가, 68장)

그러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도우면 매일 귀중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찾을 수 있으며, 신앙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슬픔과 고투와 끝까지 견디는 일은 이 생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된 사랑은 고난과 역경의 불 속에서 시험받으며 입증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 또는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나타내 보여야 하겠습니까? 유산, 사산 또는 조산했거나 신체적 장애를 지닌 자녀가 있는 자매, 사랑하는 남편이 죽은 자매, 결혼했으나 가족이 그 자리에 참석치 않은 사랑스런 자매, 침례받았다고 가족에게 배척당한 새로운 개종자인 자매 등과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관심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는 “도와드리겠습니다.” 등과 같이 말하고 행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마음은 마음으로 전해지며 무거운 짐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다했으므로 남을 도와줄 책임은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나는 닥 하마술드가 유엔 사무총장 재임시 행했던 다음과 같은 말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공헌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이 행한 일은 충분하지 않으며 결코 충분했다고 할 수 없다.”(리처드 엘 이반스 이세, *리처드 엘 이반스, 그 인물 및 그 말씀*, 솔트레이크시티 : 북크래프트, 1973년, 256페이지)

여러분 가운데 연령 또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우리가 언급한 그러한

봉사를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누군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음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자신의 책임을 모두 완벽하게 완수하는 해성같은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하늘의 별처럼 그들의 밝고 성실함에서 나오는 평온한 빛을 조용히 우리에게 비취줌으로써 우리가 우러러보고 커다란 평온과 용기를 얻게 해준다.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이웃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없을 때일지라도 그들에게는 뭔가 의미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이다. 또한 가장 보잘 것없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선행으로 세상을 개선함으로써 선하고도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일도 좋은 일이다.”

모든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극복하기 힘든 문제로 인해 더욱 큰 신앙을 갖고자 원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하고 초조해하며 의심에 싸이지만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사이에 있는 다음과 같은 훌륭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게 해 주셨음은 나에게 위안이 됩니다.

한 근심에 싸인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구세주께로 데려가 간질로 생각되는 병을 치유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23~24절)

우리는 믿음이 부족할 때에도 서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약화되는 사람들을 강화시키고 발전시키며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엘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너희가 믿겠다는 의욕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믿겠다는 의욕이... 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게 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씨앗을 심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고귀한 은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은 인생을 “눈부신 은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 및 부드러움은 부러지기 쉬우며,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하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용서해야 하며,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행할 수는 없으나 거듭 되풀이 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행한다면 주님께서 영광중에 오실 때 그의 오른편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주리신 것을 보고 공경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었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뵈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37~4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완전에 이르는 길

로이든 지 데릭 장로
칠십인 제일 정원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의 팔복에 간결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18 33년 10월 예언자 요셉 스미스는 주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계시를 받았습니

다. “이는 나를 의롭게 섬기고자 하는 순결한 백성을 일으켜 내게로 세우려 함이라”(교성 100 : 16)

이 말씀은 주님께서 개척자이신 우리의 선조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함축된 책임과 관련하여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적용되는 완전에 이르는 길에 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주일 전에 나는 남 아시아 히말라야 산맥의 높은 곳에 위치한 어느 작은 나라에서 성장했던 한 교회 회원으로부터 흥미있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왕족의 헌두고 사제 집안에서 자라왔습니다. 저는 일을 하되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바라지 말라는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만일 내가 일을 하고도 보상 또는 종교상의 구원이 없다면 왜 옳지 않은 그 길을 따라야 하는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신교나 범신교의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참된 진리와 올바른 길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는 참된 진리와 올바른 길을 어떻게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물몬 선교사들을 통해 찾게 되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강한 간증을 읽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 그가 한 말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활 및 불사불멸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상이 아닙니다. 웨스터 사전에 의하면 보상이란 “어떤 봉사나 달성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육과 영의 재결합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들이 원하는 원하지 않은 결국은 모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부활하게 되면, 부활한 상태로 영원히 살 수 있는 불사불멸의 몸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현세에서 그들이 한 행위에 관계없이 불사불멸의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과 불사불멸은 같은 의미를 지닌 말입니다. 이것은 보상이 아니며 은사입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를 했거나

달성한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는 구세주의 속죄의 희생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그 밖에 다른 약속이 있음을 가르칩니다. 즉 봉사를 함으로써 그리고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받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는 것입니다. 승영이란 해의 왕국에 있는 세 가지 등급의 영광 중 가장 높은 영광을 말합니다. 해의 왕국은 불사불멸의 영역에 속하는 세 왕국 가운데 가장 높은 왕국입니다. 승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받아들이고 그의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산상수훈의 팔복에 간결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마태복음 5 : 3) 예수께서는 고대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산상수훈의 말씀을 되풀이 하셨으나 다음과 같이 다르게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여 내게 이르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니파이삼서 12 : 3) “내게 이르는 자”라는 말이 첨가된 것은 그 말씀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하게 해 줍니다. 주님께서 지상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유는 “(저들이)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 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교성 1 : 16)

산상수훈의 팔복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위해서 취해야 할 단계입니다. 첫번째 단계. 그리스도께 나아오기 위해서 해야 할 첫번째 단계는 상한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와 불의한 교만을 극복하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단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 : 4)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발전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경건한 애통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번째 단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임이라”(마태복음 5:5) 온유함이란 “상처를 인내로써 참으로 노하지 않는 것”이라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온유함은 해의 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로서 키워야 할 매우 중요한 미덕입니다. 지구가 해의 왕국으로 변할 때 하나님의 왕국이 지상에 세워질 것입니다.

네번째 단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마태복음 5:6) 고대 미대륙에서 나온 물문경에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것”이라는 말씀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니파이삼서

12:6)

어떤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교사가 되어 그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 청년을 해변으로 데려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청년의 머리를 물 속에 오랫동안 집어 넣었습니다. 이 청년은 허우적거리다가 숨을 헐떡이며 나왔으며 왜 그와 같은 무모한 것을 했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스승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물 속에서 숨을 쉬고 싶어했을 정도로 배우기를 원할 때에만 네가 알고 싶어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우려는 강한 의욕과 공부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다섯번째 단계. “궁홀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궁홀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7) 궁홀이란 상대방에 대한 동정 또는 관용을 뜻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복음 생활의 부산물입니다.

여섯번째 단계. 다른 사람에게 궁홀을 베풀 때에는 청결한 마음을 도야하게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8) 본다는 말은 이해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게 가꿀 때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늘어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구세주께서는 아버지께 이르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요한복음 17:3)라고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 홀



말씀했습니다.

일곱번째 단계. 사람이 마음의 정결함을 얻게 되면 마음 속에 평화를 얻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태복음 5:9) 내적 평화를 얻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신 감주를 입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6:11 참조) 이제 우리는 박해를 더욱 쉽게 견딜 수 있습니다.

여덟번째 단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마태복음 5:10~12)

구세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고 격려하시며 산상수훈의 결론을 맺으셨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행해지는 가운데 이러한 덕성에 비추어 우리 자신이 완전해 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도 더욱 발전할 수 있게 노력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전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므로 우리 대열에 참여한 어느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암석이 많은 해안을 항해하는 배처럼 어렵고 험난한 이 삶 속에서 서로 도와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하므로 종종 죄를 짓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다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완전치 못함을 인정하며, 다른 길로 빛나간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합당하게 보상하고, 그 죄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정기적으로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한 후 성찬을 취할 때, 우리가 맺은 침례 성약은 새로워지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실로 우리로하여금 성장하고 발전하게 해주는 경이롭고도 자비로운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하면서 성찬 기도문대로 따라 생활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기도문중에는 성찬을 취하는 사람마다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세주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 오너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19; 마가복음 1:17 참조) 베드로는 삼 년 동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가신 곳을 갔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행하라고 가르치신 바대로 행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한복음 14:2~3)

그후 예수께서는 어디로 가셨습니까? 그는 그의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의 아버지께 가기 전에 다른 곳에 가셨습니다. 그는 갓세마네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갓세마네를 경험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 갓세마네에서의 고통을 기꺼이 받아들일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갓세마네를 경험해야 하며 끝까지 충실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은 모든 일에 시련을 겪어야 하나니, 이로써 내가 나의 백성을 위하여 저들이

영광 곧 시온의 영광을 받을 준비를 갖추게 하려는 것이니, 징계를 견디지 못하는 자는 나의 왕국에 합당하지 못하느니라.”(교성 136:31)

성스러운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 그러나 구세주께서 고대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산상수훈을 반복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거니와, 나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니파이사서 12:48)

예수께서 이스라엘 성지에 사는 백성들에게 산상수훈을 가르쳤을 때와 고대 미대륙의 백성들에게 가르쳤을 때 사이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기간 사이에 그는 갓세마네에서 그 쓴잔을 마셨고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교성 19:18 참조) 우리 역시 온전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문제와 슬픔을 견디고 끝까지 충실해야 하며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히말라야의 나의 친구는 그의 조국에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메시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주요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분이시며 승영에 이르는 바른 길을 인도하신다는 메시지 및 보상이 있으며 그 보상은 노력하여 얻어야 하며 그 보상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에게 시련과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그 청년은 주님께 “그 메시지가 참된 것입니까?”하고 간구했을 때 성령은 그에게 그것이 참된 것이라고 증거했으므로 보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으로서 나는 이 회복된 진리는 진실로 참된 진리이며 올바른 길임을 그 청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텔레비전의 영향력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건전하지 못하고 퇴폐적이며 폭력적이고, 품위가 없으며 도덕적인 가치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한 경고와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대회 역시 훌륭한 대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시기 적절하게 주어졌던 영감의 메시지에 대해 우리 모두 감사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 메시지들은 29개 언어로 동시 번역되었으며, 위성 중계와 텔레비전을 통해서 수 백만 명에게 여러 언어로 중계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텔레비전의 역할을 보면 1927년, 필로 티 판즈위스가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이 훌륭한 대중 전달 매체를 개발했음이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판즈위스 형제는 우리 교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과학 기술을 응용하여 이 세상에 그처럼 경이로운 발명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텔레비전은 이

세상에서 주요 산업이 되었습니다. 전세계 160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7억 5천만대가 넘는 텔레비전을 소유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약 25억 명이 매일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의 일일 생산량은 약 25만 대에 이릅니다. 이는 전세계에서 매일 출산되는 아기들의 숫자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의 급변하는 세상에 텔레비전을 통해서 받는 많은 혜택과 문제점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보턴만 놀러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는 국내 및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속보, 일기 예보, 동화 같은 이야기, 여러 지역에 대한 탐사, 역사 공부, 훌륭한 연극, 무용, 음악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고 대부분의 국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 우리는 방송업계에 대해 고마워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건전하지 못하고 퇴폐적이며 폭력적이고, 품위가 없으며 도덕적인 가치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주님의 영에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관한 경고와 주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훌륭한 가족들은 가정에서 텔레비전과 비디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관한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나는

빅터 비 클라인 박사의 다음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광고, 오락물, 소설, 영화 및 기타 예술 작품을 통해 반복하여 접하게 되는 영상, 환상적인 이야기, 배우 등은 거의 모든 젊은이와 성인에게 자아관 및 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제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버지니아주 노포크 타이드워터 모임에서 가족 생활에 관해 하신 말씀)

또 다른 모임에서 클라인 박사는 영양 섭취를 위한 음식 조절처럼 정신적인 영양 섭취를 위한 조절도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일곱 살된 자녀가 얼마큼 폭력물을 보는가에 따라 그 자녀가 열 일곱 살, 스물 일곱 살, 서른 일곱 살이 될 때 얼마나 폭력을 행사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마음은 은행과 같습니다. 얼마를 집어 넣든지 간에 십 년 후에는 이자와 함께 돌려 받게 됩니다. 폭력을 다룬 텔레비전은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폭력을 행사하는지 단계적으로 가르쳐 주고 그러한 폭력에 대한 두려움 및 희생자들이 받는 고통에 대해 무감각하게 합니다. 미국은 유례없는 폭력의 급증으로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은 폭력적인 오락물때문입니다.”(데저렛 뉴스, 1989년 3월 24일자, 28페이지 참조)

보통의 미국 가정에서는 매일 일곱 시간 가까이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으며, 이러한 가정에서 사는 19세 미만의 자녀들이 6,600만 명 이상된다는 사실을 알면 놀라실 분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한 잡지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과거에 텔레비전의 ‘세계의 창문’ 프로그램에서는 견고한 가족 유대, 훌륭한 모범이 되는 영웅,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안정된 사회를 보여 준 적이 있다. 현재는... 텔레비전이 그와는 아주 다른 것들을 보여 주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실제로 텔레비전은 이제 단순히 이 세상에 대한 창구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을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TV 가이드,

“창문의 또 다른 전쟁”, 3페이지)

세심한 주의 없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매일 두 시간 이상 시청할 때 텔레비전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지난 8년에서 10년 간에 걸쳐 실시된 조사 연구 결과 발견된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인용합니다.

1. 텔레비전을 보기 전에는 아이들이 많이 놀았으며 집 밖에서 많이 활동했고 창의적인 활동과 창작 및 독서에 보다 많은 시간을 사용했다.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았으며 함께 대화하고 함께 집안 일을 하며 함께 식사를 많이 했다. (엘런 프란코, 1980년, *TV시청 : 가족의 텔레비전 선용*, 굿이어 출판사,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 3~6페이지 참조)

2. 텔레비전은 심리적인 중독성을 지닌 것이다. (같은 책, 4페이지 참조)

3. 텔레비전은 육체적으로 수동적인 활동으로서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활동을 저해한다. 텔레비전은 어린이들에게 ‘나에게 보여 달라’ 또는 ‘나를 즐겁게 해 달라’하는 경향으로 이끄는 수동적인 활동을 조장시킬 수 있다. (텔레비전과 행동, 메릴랜드 록빌 : 국립 정신 의료원, 1987년, 45~46페이지 참조)

4. 텔레비전은 아이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정심을 무디게 하는 경향이 있다. (케이트 무디, 텔레비전과 성장 : TV의 영향—부모를 위한 보고서, 뉴욕 : 타임즈 북스사, 1980년, 91~92페이지)

5. 어떤 아이들은 현실로부터 배우는 능력을 잃게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인생을 통해 얻는 경험은 화면으로 보여 주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와 부모는 이와 비교해서 제한된 시간인 30분 내지 60분 내에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마인 로진과 케이트 무디, 편집인, *텔레비전에 대한 경각심훈련 : 가족과 지역 사회를 위한 시청자 가이드*, 내슈빌, 애빙든, 1979년, 43페이지 참조)

텔레비전의 좋지 않은 영향에 대해 언급한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젊은이들의 텔레비전과 비디오 시청이 그들의 행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최근에 처형된 살인자가 대중 매체에 나오는 춘화와 폭력물이 그의 생애 미친 영향에 대해 고백한 것을 가볍게 받아들여서는 안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이 “감각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잠언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즉’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폭력과 부도덕한 것에 접하게 될 때 그러한 것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고든 비 힐클리 부대관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리우드의 유력한 텔레비전 작가와 중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그들은 일반 대중보다 종교성이 훨씬 적었으며... 인터뷰에 응답한 104명의 할리우드 전문가들이 거의 전부가 종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으나, 현재 45퍼센트는 아무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나머지 55퍼센트 중 7퍼센트만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종교 예배 의식에 참석한다고 말했다.

“‘이 그룹이 쇼를 만들어 내는 주요 역할을 맡고 있었으며, 그것들은 우리 대중 문화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1983년 2월 19일, 제2부, 5페이지)

“이러한 자들이 연애 프로의 매체를 통하여 여러 면에서 복음의 표준과는 상반된 그들 자신의 표준으로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71페이지)

타임지 기사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개방은 방송 매체의 표준 및 정책 부서의 축소와 관련이 있다... 좋지 않은 쇼 및 상업 광고를 심사하는 검열관의 인원 수가... 1970년대에는 방송 매체 당 75명 내지

80명에서 오늘날에는 35명 내지 40명으로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CBS와 NBC에는 각기 30명도 채 못된다.” (“검열관은 어디에?”, 타임, 1988년 12월 12일) 텔레비전으로 방영되는 폭력물이 범람하므로 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평균 18,000건의 살인 장면 및 기타 수많은 폭력 범죄 등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로서, 우리의 가족을 현재 범람하는 TV 폭력물과 그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방송에 대해 좀더 많이 검열하고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랜들 에이 라이트는 그의 저서, *위험에 처한 가족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초창기보다 질이 떨어지고 있음을 추측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인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의 프로그램 스케줄을 30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55년도에는 폭력 범죄를 주로 다룬 프로그램은 전혀 방영되지 않았다. 1965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일 주일에 여섯 시간 방영되었다. 1975년에는 폭력물들이 스물한 시간 방영되었다. 1986년에는 스물아홉 시간으로 늘어났다.” 1986년 이후로도 폭력물들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고 믿습니다.

라이트씨는 이에 관해 계속 언급했습니다. “TV에 폭력물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도덕적이고 사악하고 타락한 여러 형태의 프로그램들이 우리 가족의 눈 앞에 펼쳐지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오늘 날 성과 관련된 장면과 내용으로 가득 찬 프로그램은 이십 년 전의 프로그램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라. 만일 우리가 텔레비전을 선별해서 보지 않는다면 적절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접하게 된다.” (랜들 에이 라이트, *위험에 처한 가족*, 45~46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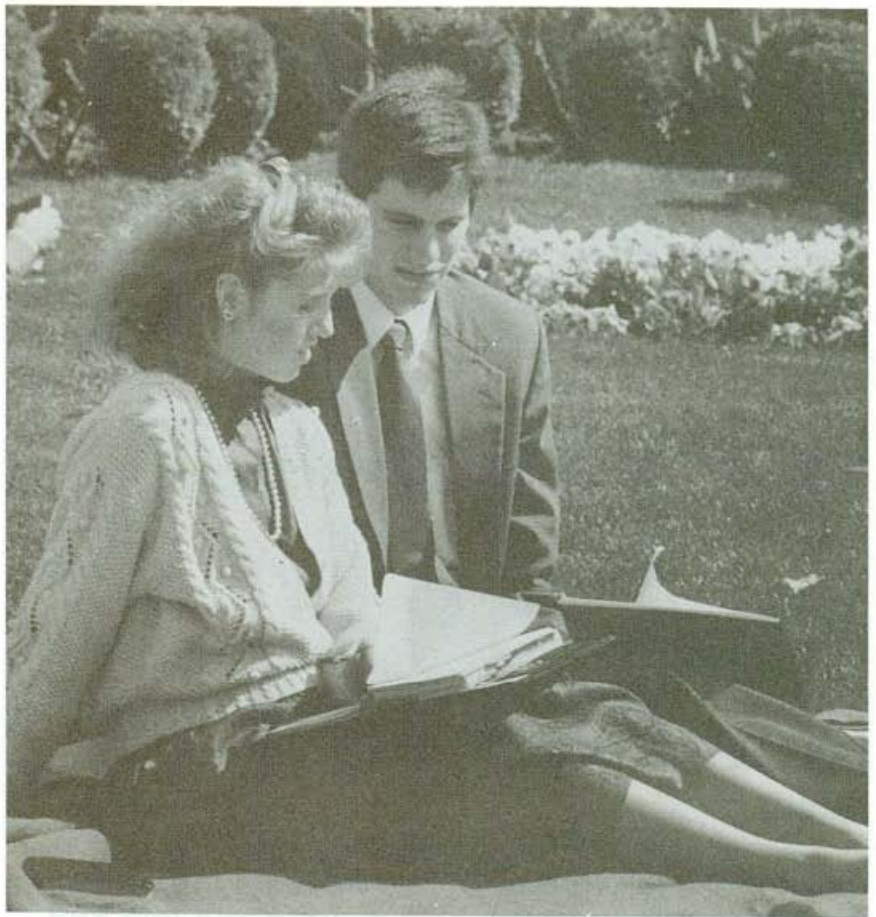
교회에서 우리는 종종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신성 모독과 폭력과 배신을

일상적인 일이며 심지어 멋있는 일처럼 보이게 하는 텔레비전 쇼를 볼 때, 우리는 종종 어떤 방법으로든 이 세상과 차단되어 우리 가족들을 이러한 것로부터 격리될 수 있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아마 난폭한 행위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분노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난폭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폭력, 탐욕, 신성모독,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경시, 성적인 난잡, 반항 등에 관심을 갖게 하거나 때로는 선호케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 자신과 이 교회가 실망하고 불쾌해 하며 심지어는 분노를 느끼고 있음을 표합니다. 니파이는 우리 시대에 사탄이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니파이서 28:20) 사탄은 텔레비전을 악하게 사용하여 우리 사회에 사악함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말씀 즉,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라"(요한복음 17:14 참조)를 두 문장으로 된 별도의 훈계로서 구분하여 말씀드립니다. 첫째, "세상에 살되," 참여하십시오. 지식을 넓히십시오.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십시오. 사회에 봉사하고 참여함으로써 뜻깊은 공헌을 하십시오. 둘째, "세상에 속하지 말라" 그릇된 길을 따르지 마십시오. 자신을 합리화하여 옳지 못한 것에 순응하거나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혐오감을 주거나 품위를 저하시키는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사회가 타락하여 부도덕한 곳으로 빠지려는 경향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이 온통 사악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위에 악이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도피해서는 안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33) 우리는 이 세상을 개선시켜야 하며 모두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악을 극복하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아버지께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유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요한복음 17:15) 교회의 회원들인 우리는 영향을 받기 보다는 영향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악의 조류에 수동적으로 휩쓸려 가기 보다는 그것을 막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문제점을 피하거나 무시하기 보다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단순한 짧은 시를 좋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이
아무리 예쁘다 하여도
가장 작은 배일지라도
가라 앉힐 수 없다네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모든 죄가
한 인간의 영혼을 망칠 수 있을까
스스로 받아들이기 전에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도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남녘을 막론하고 희망을 갖고 "어둠의 안개"(니파이일서 8:23)를 헤치고 빛의 근원으로 나아가게 해 주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분별력을 지니고 각자 의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가르칠 수 있습니다.



대회 방문자

주님께서는 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숨고 격리시키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모범적으로 살며, 기쁨과 성취감은 세상에 속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가르침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보여 주는 용감한 사람과 그러한 가족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각기 개인으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이러한 텔레비전의 흐름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제언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가족들이 하루에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두 시간 이내로 한정하여 프로그램을 사려깊게 선택해서 본다면 가족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1. 가치관 정립은 가정에서 배우게 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가족들은 가치관과 판단력을 어떻게 정립시킬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2. 가정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될 것입니다.

3. 자녀들이 숙제를 시간에 쫓기지 않고 마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4. 서로 대화하는 시간이 현저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5. 자녀들의 상상력이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6. 가족 모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분별하여 선정하고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7. 부모는 다시 가족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8.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대신 좋은 독서 습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닌 관심과 우려를 표시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라디오 방송국과 텔레비전 방송국, 유선 방송국 및 국영 방송국에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회사들도 우리의 견해를 듣고자 할 것입니다.

나의 의견으로는 우리가 가정과 국가를

강하게 해주는 가치관을 부수고 파괴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반대하는 다른 관심있는 사람들과 연대하여 우리의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일성도만이 이 문제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여러 교회 및 기타 조직체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그들과 힘을 합쳐 TV극작가들과 제작자들을 설득하여 그들의 능력을 보다 좋고 안전한 세상을 건설하는 데 행사하도록 합시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보다 친절한 나라와 보다 온화한 세계를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인베스터즈 데일리, 1989년 1월 23일, 11페이지) 전세계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좀더 친절하고 온화하게 만들으로써 그 일을 시작합시다.

예언자 모로나이는 우리 모두에게 선악을 분별케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주어졌으며 우리로 하여금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반면에 무엇이라도 우리에게 악을 행하게 하는 것은 악마에게 속한 것이니 악마와 그의 추종자들은 아무도 선을 행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모로나에서 7:16~18 참조) 이러한 간단한 시험 방법은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판단하는 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개선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가정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확실한 방법이 있으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원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라도 사악한 것은 들어가지 못하게 여러분이 막는 데 도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어린이들에게

에즈라 테프트 벤슨 대관장

“나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알기 원하시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여러분이 그의 뜻을 배워 행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금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성대한 연차 대회의 연단에서 전달되는 메시지들을 듣는 동안 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메시지들은 참됩니다. 총관리 직원들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들은 우리 자신의 구원에 필수적인 것이므로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 메시지들을 받아들이도록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종전의 연차 대회에서 나는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청남과 청녀에게, 그리고 독신 성인 형제와 자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대회의 마지막 메시지로써, 나는 이제 교회의 어린이이며 우리의 귀중한 자녀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는 메시지임을 알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을 무척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극진히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아름다운 초등학교 노래와 같이, 여러분 개개인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질 축복이 많이 있으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배워 행한다면 그분과 함께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찬송가, 187장 또는 다 함께 노래를, B-76 “나는 하나님의 자녀” 참조)

나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알기 원하시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여러분이 그의 뜻을 배워 행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지금 뿐만 아니라 일생을 통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어린이 여러분이 물몬경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알 때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행하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나는 여러분들로부터 이 성스러운 책을 읽고 있다는 수백 통의 편지를 받고 있으므로 여러분이 물몬경을 읽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대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몬경을 읽고 있습니다. 가정의 밤과 초등학교에서 여러분은 물몬경 이야기를 연극으로 하고, 물몬경에 관한 노래를

부르며, 물몬경 속의 책 이름을 배우고, 물몬경 게임도 하고 훌륭하신 물몬경 예언자들에 관해서도 배웁니다. 물몬경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 돈을 모으는 어린이도 있습니다.

물몬경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을 들으면 얼마나 기쁘는지 모릅니다. 나도 이 책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매일 계속해서 물몬경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 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배워 행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또한 여러분의 부모와 지도자들이 여러분에게 교리와 성약, 값진 진주 및 성경에서도 배울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외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중요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매일 그분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므로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분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여러분을 도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받은 축복에 대해 그분께 감사드리십시오. 우리의 만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주신 것을 감사드리십시오. 그분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십시오.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사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기도할 때 여러분이 생애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알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잘못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는 여러분이 다시 옳은 일을 행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분의 영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하십시오. 우리는 그 영을 성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신 역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성신은 여러분이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도와 주실 것입니다. 성신은 여러분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성신은 여러분에게 조용하고 작은 음성으로 옳은 일을 행하라고 속삭이듯 말씀하십니다. (교성 85 : 6 참조) 여러분이 선한 일을 행하면 좋은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신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신은 훌륭한 동반자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년 소녀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이 훌륭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 주십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즐겁게

해드리며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의 형제 자매에게 참된 친구가 되십시오. 높은 이상을 가진 친구와 사귀십시오. 여러분이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 줄 친구를 택하십시오.

성찬식에 참석하십시오. 감독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깊게 들으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도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부름을 받은 중요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초등학교를 매주 즐겨 참석하십시오. 회원이나 비회원 친구를 초등학교에 데리고 오십시오. 초등학교 노래를 잘 배우십시오. 그 노래는 참으로 훌륭한 것들입니다. 신앙개조를 암기하며 복음 실천상을 받으십시오.

정직하십시오. 거짓말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마십시오. 남을 속이지 마십시오. 불경스런 말을 하지 말고 깨끗한 생각과 깨끗한 말을 하십시오.

참된 말일성도가 되십시오. 신앙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초등학교 노래중 하나는 “용감하게 의 행하라”입니다. 그 가사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감하게 의 행하라. 할 수 있는 자는 너뿐이니 친절히 훌륭히 수행하라. 천사 지켜 보고 말하리라. 용감하게 진실하라.” (“용감하게 의 행하라”, 다 함께 노래를, B-81)

사탄은 여러분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는 여러분이 용감하게 의 행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분도 것처럼 불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사악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여러분이 의실물, 마약, 불경한 언행, 부도덕 등과 같은 나쁜 일에 빠지도록 유혹하게 합니다. 이러한 악행을 피하십시오. 좋지 못한 것을 보여 주는 책, 잡지, 비디오, 영화 및 텔레비전을 멀리 하십시오. 경건 말씀처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 : 22 참조)

옷은 단정하게 입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합당하게 감싸 주는 옷을 입으십시오. 예절바르고 공손하게 행동하십시오. 지혜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훌륭한 음악을 들으십시오.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학업에 충실하십시오. 훌륭한 학생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교회 배부부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테이프와 책과 그림을 구입하여 자신의 도서관을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매달 성도의 벗을 즐겨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를 사랑하십시오.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애국자가 되십시오. 국경일에는 국기를 다십시오.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초등학교 소년 여러분, 주님을 위해 복음 선교사로 봉사할 계획을 세우고 그런 소망을 계속 지니십시오. 소년



여러분, 선교사로 부름받을 경우를 대비해 준비를 갖추십시오. 또한 어머니에게 중요한 가사 기술을 배워 여러분이 자신의 가정을 이루었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제 나는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받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어린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매우 외롭다고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여러분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항상 여러분이 안전하게 보호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을 도와 줄 수 있는 분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교사, 감독 또는 친구가 여러분을 도와 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각자 가장 좋아하는 경전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물론경 니파이삼서 17장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미대륙에 있는 백성들을 방문하신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시기를 마치시고 일어서시었으되 무리가 큰 기쁨에 취해 있는지라,

“예수께서 저들에게 명하여 일어서라 하시니,

“그제야 무리가 땅에서 일어나는지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신앙을 가졌으며 복되도다. 보라 나의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같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시니, 무리가 이를 보고 증거하니라.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차대대로 저들을 축복하시며 아버지께 저들을 위하여 간구하시었고,

“이같이 행하시고 나서 또 다시

우시더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너희 어린 것들을 보라 하시매,

“저들이 눈을 들어 똑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니,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마치 불에 싸인 형상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와 어린 아이들을 에워싸매, 어린 아이들도 불로 둘러 싸였으며 천사들이 어린 아이들을 축복하더라.”(니파이삼서 17:18~24)

나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께 천사들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리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이 천사들을 볼 수 없을지라도 그들은 여러분을 돕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며, 여러분도 그들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비하신 예수님 아이들을 사랑해 따사로운 품 속에 포근히 품으시네 양친처럼 사랑하사 무리에게 말하길 천국은 저 애들과 같은 자의 것이라 주님 말씀 들으라
내게 아이 오게 하라
내게로 나오라
("아이들을 부르심", 다 함께 노래를, B-14)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시대에 여러분을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분의 가장 용감한 자녀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오늘 날 이 세상에 악이 많으리라는 것을 아셨으며 또한 여러분이 충실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주신 선물이며,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여러분을 아름답고 순결하며 충실한 상태로 그분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과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함께 걷고

훌륭한 모범을 보임으로써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알게 해 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분들은 여러분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은 충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초등학교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도록 부름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 초기에 복음대로 사는 방법을 알려 줄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의 어린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부모로서, 교사로서, 지도자로서 더욱 어린 아이같이 되어 더욱 더 유순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모사이야서 3:19 참조)

나는 오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초등학교 노래를 하나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의 빛 안에 걸여 가고
높으신 주님께 기도하며
올바른 일들을 깨닫도록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자, 나의 아가야 우리 함께
주님의 계명을 공부하고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항상 밝은 길 걸어가자.

우리가 가는 길 보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즐겁게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기쁘게 걸어가리
("빛 가운데서 걷게 가르치소서", 찬송가, 27장 또는 다 함께 노래를, B-45)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교과 과정에 관련된 대회 말씀

아래의 도표는 부모, 교사 및 교회 회원이 복음을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준비된 것이다. 이것은 198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말씀한 것으로서 1989년도 청소년 및 성인 교과 과정을 위한 것이다.

1989년도 복음 교리반...교리와 성약

공과	총관리 역원
16	토마스 에스 문슨(일요일 오전)
17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전); 마빈 제이 에쉬튼; 존 에이치 그로버그
18	엘 톰 페리; 로날드 이 포울맨
21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22	제임즈 이 파우스트
24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25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28	닐 에이 맥스웰
29	엠 러셀 벨라드
30	로이든 지 데릭; 로날드 이 포울맨
31	에프 앤지오 부쉬
32	제이 리차드 클라크
33	러셀 시 테일러
36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37	하워드 더블류 헌터
39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 모임); 리차드 지 스코트
4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41	보이드 케이 패커; 조셉 비 위스린
42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엘 톰 페리
43	델린 에이치 옥스; 하워드 더블류 헌터
44	글렌 엘 페이스

주일학교 제17반

공과	총관리 역원
3	리차드 지 스코트
4	휴 더블류 피녹크
5	로이든 지 데릭
7	토마스 에스 문슨(일요일 오전)
9	존 에이치 그로버그
10	리차드 지 스코트
12	델린 에이치 옥스
14	러셀 시 테일러
15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보이드 케이 패커; 리차드 지 스코트

16	러셀 엠 넬슨
17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21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33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엠 러셀 벨라드; 러셀 시 테일러
36	엠 러셀 벨라드
39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 모임); 닐 에이 맥스웰; 조셉 비 위스린; 로날드 이 포울맨
40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41	엘 톰 페리; 조이 에프 에반스

주일학교 제16반

공과	총관리 역원
5	조셉 비 위스린; 로날드 이 포울맨
8	리차드 지 스코트
12	델린 에이치 옥스
15	휴 더블류 피녹크
16	하워드 더블류 헌터; 리차드 지 스코트
19	제임즈 이 파우스트
20	존 에이치 그로버그
21	마빈 제이 에쉬튼; 로이든 지 데릭
23	러셀 엠 넬슨
26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러셀 시 테일러
32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34	조이 에프 에반스
35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38	보이드 케이 패커; 닐 에이 맥스웰; 로날드 이 포울맨
43	제이 리차드 클라크

주일학교 제15반

공과	총관리 역원
2	하워드 더블류 헌터
5	조셉 비 위스린
6	닐 에이 맥스웰
8	리차드 지 스코트
14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엠 러셀 벨라드; 러셀 시 테일러
16	마빈 제이 에쉬튼
17	러셀 엠 넬슨
18	닐 에이 맥스웰
19	제임즈 이 파우스트
28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29	엘 톰 페리
32	존 에이치 그로버그
33	제임즈 이 파우스트
38	델린 에이치 옥스
43	로이든 지 데릭

주일학교 제14반

공과	총관리 역원
30	보이드 케이 패커
32	엘 톰 페리
35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 모임); 닐 에이 맥스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날드 이 포울맨
37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42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마빈 제이 에쉬튼

주일학교 제13반

공과	총관리 역원
8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러셀 엠 넬슨; 리차드 지 스코트; 휴 더블류 피녹크
9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 모임); 리차드 지 스코트
11	보이드 케이 패커; 델린 에이치 옥스; 휴 더블류 피녹크
14	조셉 비 위스린; 조이 에프 에반스
15	고든 비 힝클리(신권 모임)
17	닐 에이 맥스웰; 리차드 지 스코트; 로날드 이 포울맨
18	하워드 더블류 헌터; 엘 톰 페리
19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리차드 지 스코트
20	고든 비 힝클리(일요일 오전); 엘 톰 페리
21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보이드 케이 패커; 러셀 시 테일러
22	보이드 케이 패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러셀 시 테일러
24	엘 톰 페리
25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 모임)
28	러셀 시 테일러
29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토마스 에스 문슨(신권 모임); 보이드 케이 패커; 리차드 지 스코트;
30	러셀 시 테일러
31	리차드 지 스코트
31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32	조셉 비 위스린
33	델린 에이치 옥스
36	에즈라 태프트 벤슨(토요일 오전)
42	닐 에이 맥스웰; 로날드 이 포울맨

피프티안 제2과정 / 불꽃반 제2과정 / 주일학교 제11반

공과	총관리 역원
2	휴 더블류 피녹크; 로날드 이 포울맨
3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10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제임즈 이 파우스트
12	엠 러셀 벨라드
14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토마스 에스 문슨(일요일 오전)
15	델린 에이치 옥스; 글렌 엘 페이스
19	보이드 케이 패커
20	조이 에프 에반스
21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엘 톰 페리
22	토마스 에스 문슨(일요일 오전); 조셉 비 위스린
25	델린 에이치 옥스; 휴 더블류 피녹크
40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제임즈 이 파우스트
42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에쉬튼
43	에즈라 태프트 벤슨(일요일 오후); 휴 더블류 피녹크

정의반 제1과정

공과	총관리 역원
----	--------

타임스 문화공
복

이정호 김지우 울시 울시



손자인 엘 톰 페리 4세와 함께 있는 심이사도 정원희의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위원회



본부 초등학교 회장단: 미셸린 피 그래슬리 회장(중앙), 베티 조 잭슨 자매, 제1보좌(왼쪽),
루스 브로드벤트 라이트 자매, 제2보좌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왼쪽부터 조이 에프 에만스 제1보좌, 바바라 더블류 윈더 회장,
조안느 비 독시 제2보좌



교회 본부 사무실 건물 앞에서 본 솔트레이크 성전. 전면에 개인 기부금으로 세워진 분수대가 있다.

